

2020학년도 상반기
취업성공우수사례 공모전 사례집
- 이공계열 -



2020. 9.

학생처 취업전략과

목 차

I. 수상작	3
1. [최우수상] (주)포스코 설비기술부(기계공학부)	3
2. [이공계열 우수상] S-OIL 검사기술팀(기계공학부)	13
3. [이공계열 우수상] 삼성전자 DS부문(전자공학과)	18
4. [이공계열 우수상] 아마존웹서비스(기계공학부)	22
5. [이공계열 장려상] 현대자동차 소재지원팀(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26
6. [이공계열 장려상] 삼성전자 제조기술팀(전자공학과)	31
7. [이공계열 장려상] 부산환경공단 기계직무(기계공학부)	35
8. [이공계열 장려상] 셀트리온 품질 관리(화학과)	39
II. 공모작	43
1. 현대자동차 생산기술(기계공학부)	43
2. 기아자동차 프레스금형기술2부(기계공학부)	47
3. 삼성전기 컴포넌트솔루션사업부(기계공학부)	51
4. 삼성전기 컴포넌트 설비개발G(기계공학부)	54
5. SK하이닉스 M15(기계공학부)	58
6. 삼성SDI 기술팀(기계공학부)	60
7. 한국조선해양 자율운항연구실(기계공학부)	64
8.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메모리공정개발팀(기계공학부)	68
9. 삼성전기 컴포넌트솔루션사업부(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71
10. LG MMA 생산직무(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73
11. SK하이닉스 양산기술(재료공학부)	74
12. 현대글로벌서비스 마린서비스부(조선해양공학과)	80
13. 삼성전자DS CCSS파트(환경공학전공)	83
14. LG이노텍 광학솔루션사업부(나노소재공학과)	87
15. 삼성전기 연구개발(화학과)	91
16. STX중공업/삼성중공업(조선해양공학과)	94
17. 한국수력원자력 안전부(기계공학부)	99
18.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로핵연료개발부(기계공학부)	102
19. 한국철도공사 동력차량팀(기계공학부)	105
20.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및 기술보증(나노에너지공학과)	108
21. 국립공원공단 레인지직(조경학과)	111
22.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협력단(미생물학과)	115
23. 동아화학(주) PE기술팀(고분자공학과)	118
24. 에이프로젠 공정개발(생명과학과)	121

최우수상-(주)포스코 설비기술부(기계공학부)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7/3.9	영어점수	TOEIC 830 TOEIC SPEAKING Lv.6(130)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교내] 취업실전특강(2018) [교내] PNU Junior Club 공기업반(2018) [교내] 금요취업아카데미(2018) [교내] 수리온 취업스터디(2018) [교내] 잡아라 취업컨설팅(2018) [교내] 자기소개서 교육 기초반(2018) [교내] 2018 하반기 대비 현대자동차 그룹 특강(2018) [교내] NCS특강(2018) [교내] 면접 Speech 강화 집단상담(2018) [교내] 선배와 손Job기 6,7,8기 멘토 참여중(2019~)		

□ 입사(합격)한 기업과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하반기에 (주)POSCO에 최종합격하였고 2019년 1월부터 설비기술 직무로 재직 중입니다. 이번 취업성공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제가 재직 중인 POSCO와 설비기술 직무, 그리고 취업기간(2018 상,하반기)동안 겪었던 경험들과 시행착오를 공유할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그 시작으로 제가 재직중인 (주)POSCO와 직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 철강업의 Leader, 기업시민 POSCO]

POSCO는 철강재(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스틸 등)를 생산하는 국내 철강업 분야 1위의 기업으로, 포항제철소(경상북도 포항소재), 광양제철소(전라남도 광양)의 제철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포스코의 경영이념]

[POSCO의 설비기술 엔지니어]

제철 공정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또 대형~소형에 이르는 설비들이 사용되는데요. 설비기술 엔지니어는 이러한 설비의 안정적인 운용과 최적의 운용방법에 대해 모색하고, 설비의 보수, 개선을 위한 공학적 기술을 검토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설비기술 직무의 전공은 "기계", "전기전자", "토목건축" 전공 엔지니어가 대다수이며, 각 전공 엔지니어의 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답

니다.

설비기술 직무를 수행하는 기계공학 엔지니어로서 수행 업무는 기계요소(나사, 기어, 축, 베어링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전공과목에서 배운 다양한 공학개념들을 활용합니다.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기계진동, 열전달 등이 핵심이며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응력, 변형률 해석도 핵심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학부 시절 배웠던 다양한 공학적 내용과 공학 소프트웨어 활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설비를 움직이기 위해 "유압(Hydraulic Power)"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유압을 이용하기 위한 펌프, 밸브, 배관 등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검토와 개선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계공학부 학부 4학년 1학기 선택과목에 "유압공학"이라는 과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궁금하신 후배님들께선 해당과목을 수강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기계요소, 유압기술에 대한 업무를 기반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제철공정의 최적화, 원가절감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로 세계경제포럼(WEF) 선정,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제조업의 혁신을 이끄는 "등대공장"에 등재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녹색창에 "등대공장"을 검색해주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설비기술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정리해보면 "전공역량"과 "소통역량, 협업역량"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POSCO의 설비기술 엔지니어를 꿈꾸시거나, 목표하시는 후배님들께서는 지원과정(자기소개서, 면접 등)에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지원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제가 기업을 선택했던 기준과 저에게 적합한지 판단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군에서 기업의 순위, 영향력) 두 번째는 근무지와 연봉, 세 번째는 기업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지? 입니다.

첫 번째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군에서 기업의 순위와 영향력**에선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포스코는 "국가기간(핵심)산업군" 중 "철강업"에서 국내 1위, 해외 5위(조강생산량 기준)의 위치에 있었고,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활동(스마트 팩토리 등)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근무지와 연봉**입니다. 저는 태어나고 자라온 곳이 부산이고 기업 선택의 기준에 근무지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처음 취업준비를 시작할 때에는 발전공기업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근무지는 큰 고려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발전공기업의 사업장은 대부분 오지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회로 발전공기업의 사업장에 방문하였는데, 주위의 인프라를 보고 근무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히 하게 되었습니다. "설령 취업의 문을 넘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여기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최소한 주요도시 또는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기업체에 취업을 해야겠다는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POSCO의 사업체가 위치한 포항은 경북 최대의 도시이며 주위의 대도시인 대구, 울산, 부산과도 인접해있습니다. 광양의 경우에는 포항에 비교하여 소도시이지만 주위에 광주, 여수, 순천이 위치하여 인프라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무지에 대해

저의 경험과 기준을 다소 길게 서술하였는데, 후배님들 역시도 근무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전에는 “나는 근무지는 상관없어”라고 말하다가도 막상 취업하여 일하게 되었을 때, “근무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하는 주위 지인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의 경우 대졸 신입직군에서는 높은편에 속하며(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포스코 공식채널 “포스코tv”의 인사팀과의 대화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7kfu1O1FL1g0>)을 참고해주세요^^) 저의 기준에 충족하였기 때문에 기업 선택에 있어 부합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업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기계공학 전공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기여도 하고 저 스스로는 성장하고 싶었고요. 다행히 철강업은 다양한 설비를 운용하는 장치 산업군이었고 기계공학 엔지니어로서 역량을 100% 그 이상으로 발휘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업무를 하며 엔지니어로서 성장해 나감을 느끼며 향후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다른 직무(생산, 설비투자, 구매 등)에서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대했던 성장성 측면에서 지금까지도 만족을 하고 있고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대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했던 것과 취업전략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석한 것을 꼽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정량적인 스펙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학점은 총점 3.9점, 어학은 토익 830점, 토익스피킹 Level.6(130점), 한국사 1급 정도였고 교내현장실습(8주)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지극히 평범한 스펙에서 내가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강점을 추릴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 학부 교육과정에서 수행하였던 전공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다른학생들과 달리, 매학기 전공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모두 조장 또는 팀장역할을 수행하였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자기소개서에서는 “리더십”, “능동적임”, “적극성”등의 키워드로 풀어낼 수 있었고, 실제 다수의 면접에서도 활용하였으며 면접관분들께 좋은 피드백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내 대외교류본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멘토활동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을 통해 타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함께 공부했던 기억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역시 자기소개서와 면접과정에 어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경험이 더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험이나 기회를 “학교 밖”에서 찾는것도 좋지만 “학교 안”에서 찾는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후배님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지식 뿐만 아니라 경험들, 주체적으로 결정했던 사례들 등은 모두 취업준비 과정에 있어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이러한 재료를 잘 다듬고 준비해서 취업준비과정에 유의미하게 활용하신다면 목표한 산업군의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업전략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취업전략과 프로그램을 거의 모두 참여하였다고 할 정도로 적극 활용 하였습니다. 특히 취업전략과 프로그램 중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면접 관련 프로그램은 꼭 참여하셔서 유의미한 피드백을 받으시길 바라며, “선배와 손Job기” 프로그램 역시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전 취업 후 6,7,8기 멘토로 참여중입니다^^) 선배와 손Job기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과 “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취업준비생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산업군, 기업과 실제 현업에서 종사 중인 사람의 눈에서 바라보는 산업군과 기업은 그 내용과 깊이가 상당한 차이를 가집니다. 취업을 준비중인 후배님들께선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취업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 중 취업준비를 하는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지원하자. 두 번째 피드백 받는 것을 꺼리지 말자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지원하자]

취업시장의 문은 매년 좁아지는 추세입니다. 20년 상반기의 경우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대부분의 기업이 채용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취소한 기업도 다수입니다. 저의 경우 졸업 마지막 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졸업과제, 전공과목 수강 등의 이유로 딱 세 군대의 기업(삼성전자IM, LG전자 R&D, 현대자동차R&D)만 지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LG전자 최종면접에서 탈락하였고, 2018년 하반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LG전자 최종면접 결과를 받은 이후 스스로 상반기 취업 준비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점검해보았는데 무엇보다 지원 기업이 적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취업 준비과정에서 비록 떨어질지언정, 그 경험은 다른기업 또는 다음 취업준비과정에 있어 자양분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2018년 상반기를 준비할 때 "어차피 관심도 없는 기업 왜 지원해?"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LG전자 최종면접에서 탈락한 경험은 저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취업 준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 하반기에는 10개 이상의 기업에 지원하였으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의 문이 점점 더 좁아지는 현실에서 공채 뿐만 아니라 인턴 등의 기회도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하시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피드백 받는 것을 꺼리지 말자]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피드백 받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드백"은 잘못된 점, 고쳐야 할 점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제가 처음 작성했던 자기소개서가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일 주일정도 고민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고 취업전략과 선생님께 피드백을 요청 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잘 썼다고 생각한 자기소개서는 그러나, 첫 줄부터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결론은 "글은 잘 썼지만, 자기소개서의 잣대로 보았을 땐 잘 쓴 자기소개서가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괄식으로 쓰기, 서수(첫째, 둘째 등) 활용, 자기소개서 질문을 분석한 다음 자기소개서 쓰기 등 수많은 단점을 지적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되돌아보니 자기소개서를 피드백 받았던 경험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의 자기소개서 피드백 후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과 기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쳐야 할 점을 지적받는 피드백은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는 것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본인의 부족한 점을 냉철히 점검할 수 있고, 더 나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태도 교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 받는 것에 대해 꺼리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친구, 가족, 교수님 등)과 취업전략과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요청드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앞서 말씀드렸듯, 저의 정량적인 스펙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학점은 총점 3.9점, 어학은 토익 830점, 토익스피킹 Level.6(130점), 한국사 1급 정도였고 교내현장실습(8주)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취업 준비에서 요구되는 스펙을 크게 학점, 어학, 자격증, 직무경험으로 나눈다면 저는 전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점 3.0으로도 합격한 사람이 있다던데?” 라는 말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케이스이며 학점 이외의 특별한 경험이나 역량이 면접관들에게 어필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학점관리 노하우는 최우선적으로 수업을 충실하게 이수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공과목 스터디를 만들거나, 선배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어학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을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독학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토익의 경우 온전히 독학으로 준비하였고, 토익 스피킹의 경우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무료강의를 통해 준비하였습니다. 무료강의는 “해커스” 강사진 강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독학으로 준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서관 온라인 이력서]



[도서관 온라인 이력서 강의목록]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학생이라면 3학년 겨울방학에 어학점수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요즘 취업시장의 Trend는 채용형 인턴을 통한 신입사원 선발입니다. 채용형 인턴 역시 자기소개서, 인적성시험, 면접의 과정을 통해 선발되는데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선 우선 어학점수(지원자격요건)가 필수입니다. 각 기업체별 인턴 지원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어학점수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인턴지원의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1단계: 지피(知彼) - 산업분야 / 기업 / 직무 파악하기]

기업에 지원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원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의 동향, 산업군에서 해당 기업의 위치, 그리고 지원직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선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 동향, 지원 기업의 정보의 경우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포털사이트에 “Dart”를 검색하신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증시에 상장된 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제공, 공개하기 위한 자료를 공시하는 곳입니다.

다. 검색창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검색한 후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필터링 후 확인합니다.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열어보면 해당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세세한 내용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참고해야 할 내용은 『회사의 개요』 부분과 『사업의 내용』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기업이 속한 산업군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 수 있으며, 기업이 향후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미래 사업 등)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



[분기보고서-Dart에서 열람가능]

② 취업전략과 『취업솔루션』

취업전략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하단에 “취업솔루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이라면 볼 수 있는 취업관련 자료들인데요. 이 곳에도 참고할만한 자료들이 많습니다.(자료제공업체 : 에듀스)

첫 번째로 산업 및 기업분석 자료입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검색하면 해당 기업에 대해 에듀스 측에서 분석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산업군 및 기업정보 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사람들의 대략적인 스펙도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유용 합니다.(앞서 언급한 Dart자료와 함께 보면 더욱 좋겠죠?)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은 “많이” 써보고 “많이” 고쳐보고, “많이” 첨삭 받는 것 입니다. 그리고 합격생 자기소개서를 보는 것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합격자 자기 소개서를 보고 베끼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기 서류전형에서 필터링이 되거나, 면접에서 자신만의 답변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생각될 때 이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본인이 가진 비슷한 경험을 다른 지원자들은 어떻게 풀어내는지 확인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풀어냈다면 적절하게 차용하는 것도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대기업 인적성 모의 Test인데요. 이는 요즘 입사 Trend인 온라인 인적성 시험을 대비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Online으로 시행되는 인적성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카테고리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취업전략과 홈페이지 취업솔루션]



[취업 솔루션]

③ 기업별 유튜브(Youtube) 채널

근래에 동영상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고 이를 게시하는 플랫폼들이 급성장함에 따라 기업체들도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지원 기업,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지원 기업을 검색해보면 다양한 동영상들이 검색되는데, 해당 기업의 공식채널에서 업로드한 영상을 꼼꼼하게 참고하면 좋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를 검색하면, 삼성전자 직원분들의 V-Log 형식으로 직무를 설명해주는 동영상이 상당수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회사의 분위기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유익한 방법이니 유튜브를 활용하여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2단계: 자기(知己) : 『경험정리』를 통한 강점 / 약점 파악하기]

산업군, 기업, 지원직무에 대한 정리와 이해가 이루어졌다면 다음으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험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데요, 경험정리란 "본인이 대학시절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익힌 역량, 느낀점을 STEAR 양식에 맞춰 써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목(주제) : [프로젝트명 / 경험 / 등 한 문장으로 입력하세요]

Key-Word

~아래의 내용(Situation / Task / Episode / Action / Result)를 먼저 작성한 후, 핵심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Situation

주제를 수행할 때의 연도/일자(학기)를 입력하고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서술하세요.

Task

~해결해야 했던 과제/주제 또는 문제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Episode

~문제 또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Action

~문제해결을 위해 본인 또는 본인이 속했던 팀, 그룹에서 행동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Result

[성공 / 실패]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성공했다면 어떠한 요인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실패했다면 어떠한 요인 때문에 실패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성공/실패와 관계없이 본인이 이 경험을 통해 쌓을 수 있었던 역량은 무엇인지?
(문제해결역량, 분석역량, 의사소통역량, 추진력, 자신감, 꼼꼼함 등)

[경험정리 양식]

위의 양식은 저도 활용했었고, 선배와 손Job기 활동에서 멘티분들께도 활용하고 있는 양식인데요. 중요한 것은 최대한 상세하게(그 당시에 기분까지 적어도 괜찮습니다) 적는 것입니다. 정리한 내용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추후 면접에 활용할 "재료"이기 때문에 당시 느꼈던 기분, 상황 등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 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적절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경험정리"에서 "경험"의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대학교 재학시절 수행하였던 조별과제, 전공수업, 인턴경험, 현장실습, 공모전 준비 등의 경험 등도 좋은 경험이지만 여행,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또는 이외의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경험이라도 정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사용할 소재들은 경험정리를 한 내용에서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정리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소개서 내용은 풍부해질 수 있으며, 꼭 자기소개서에 활용하지 않았던 경험이라도 정리해두면 추후 면접준비에 있어서도 수월합니다. 예컨대, 면접관께서 "자기소개서에 서술한 내용 말고 다른 경험은 없어요?"라고 질문하였을 때, 경험정리가 되어 있는 지원자라면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경험정리는 취업준비 과정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또 매우 유용하므로 위에 첨부드린 이미지를 활용하여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단계: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 산업군과 직무를 중심으로]

지피지기 : 상대(산업군, 기업, 직무)를 알고 나를 안다. 상대에 대해 이해하고 나에 대해 이해했다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볼만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은 매우 많지만, 그 중 강조 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첫 번째 두괄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기소개서 문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기 위해 아래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는 특별한 경험을 기술하여 주십시오.(POSCO)』

위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해본다면, ①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②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본인이 노력한 경험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도 이 질문의 흐름에 맞게 서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보자면,

『저는 00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역량으로 00과 00을 꼽고 싶습니다. 지원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쌓는 00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상세내용 서술)』

위의 문장처럼 우선 두괄식으로 서술한 후, 해당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두서없이 쓰거나, 미괄식으로 쓰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반드시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 후 두괄식으로 쓰기"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 산업군과 기업, 지원 직무 중심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군과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지원자들에게 궁금해 합니다. "수많은 산업군 중에 왜 이 산업군이고, 이 산업군에 있는 수많은 회사 중에 왜 우리 회사이며, 여러 직무 중에 왜 이 직무에 지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자기소개서에서도 녹아있어야 하고요. 대부분 위의 질문은 자기소개서 항목 중 『지원동기』 항목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모두 중요하나, 특히 『지원동기(회사&직무)』는 더욱 꼼꼼하고 신중하게 쓰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1단계: 지피(知彼) - 산업분야 / 기업 / 직무 파악하기』, 『2단계: 지기(知己) : 『경험정리』를 통한 강점 / 약점 파악하기』 1단계에서 이해하고 수집한 내용과 정보를 기반하여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논리적으로 어필하여 면접관으로 하여금 수긍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4단계: 취업 스테디를 활용한 인적성 시험 준비하기]

저의 경우 취업 스테디를 활용하여 인적성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인적성 시험의 경우 각 회사마다 유형이 다소 상이하였고, 우선 가장 보편적(?) 인적성 시험인 삼성의 GSAT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인적성 스테디는 제가 직접 만들었고(조장활동 병행), 스테디원을 구한다는 글은 부산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인 『마이피누』를 활용하였습니다.

스테디 진행방식은, GSAT을 메인으로 하여, 실제 시험시간과 동일한 시간인 오전 9시~12시에 모의시험을 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험시간 이후 각자 채점후, 풀이방식을 공유하였고, 이후에는 헤어져 각자 공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스테디를 직접 만들어 운영한 조장으로서 몇 가지 Rule을 엄격히 지켰는데요. 첫 번째로는 절대 반말하지 않기. 두 번째로는 취업 준비기간 동안 스테디원끼리 개인적인 약속 잡지 않기입니다. 대부분의 스테디가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하지만 곧 분위기가 풀어지고, 스테디가 아닌 술터디가 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에 이 두 가지 규칙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공부하는 스테디” 분위기를 잘 유지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스테디원 모두 목표하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스테디의 단점 때문에 혼자 인적성을 준비하는 후배님들도 분명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적성 시험을 혼자 준비하는 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저는 “스테디가 제대로 운영된다는 가정 하에” 인적성 공부를 혼자하는 것보다는 취업을 준비하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스테디를 구하다 마음에 드는 스테디가 없다면 직접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5단계: 모의면접을 통한 강점/약점 파악하기]

취업의 마지막 관문, 면접입니다. 면접준비는 취업 준비 과정에 있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생각과 논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발표 수업에서 발표역할 맡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목전에 두고 이러한 경험을 쌓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차선택으로 말할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모의면접 스테디』입니다. “뭐야, 또 스테디야?”라고 하실수 있겠지만 잘 운영된다면 스테디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적성 스테디 뿐만 아니라 모의면접 스테디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테디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선 앞서 이미 말씀드렸기에 여기에서는 모의면접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관련된 저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첫 번째, 모의면접 컨설팅을 통한 피드백 받기 : 강점/약점 파악

저는 본격적인 면접 준비에 앞서 취업전략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컨설턴트 분들에게 모의면접을 받았습니다. 방식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실제 면접처럼 다대다(면접관3 : 면접자3)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모의면접 컨설팅을 통해 얻은 수확은 저의 답변 태도, 답변 구성에서 고쳐야 할 점, 면접 중 저도 모르게 나오는 고쳐야 할 습관들에 대해 피드백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모의면접 동안 저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저의 모습을 제가 다시금 확인하면서 스스로 고쳐야 할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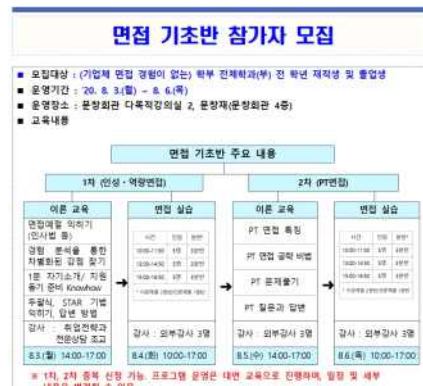
② 두 번째. 컨설팅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꾸준히 연습하기

컨설팅에서 받은 피드백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모의면접 스테디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면접스테디를 진행하는 방식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다대다 면접, 다대일(면접관 : 다수, 면접자 : 1명) 면접을 꾸준히 연습하였습니다. 스테디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몰입하여 연습하니 저의 생각을 말로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실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었습니다.

취업전략과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연습한다면 실제 면접도 큰 실수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 대비 실전 모의면접 실시 안내				
2020년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 대비 실전 모의면접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일정 및 내용				
날짜	시간	프로그램	모집인원	비고
7. 22.(수) ~ 7. 23.(목)	10:00~12:00(2H)	집단 모의면접(5인)	60명	- 면접지 5인 1개조 - 자기소개서 세수 - 전소서 검토 20분/ 면접 1시간/ 피드백 15분/ 점심 15분
	13:00~15:00(2H)	집단 모의면접(5인)		
	15:00~17:00(2H)	집단 모의면접(5인)		
7. 24.(금)	10:00~11:30(1H30M)	자율보론 모의면접(10인)	60명	- 면접지 10인 1개조 - 자문사 간 자율보론 진행(2인) - 수려 후기 30분/ 토론 30분/ 피드백 30분
	13:00~14:30(1H30M)	자율보론 모의면접(10인)		
	15:00~16:30(1H30M)	자율보론 모의면접(10인)		

[취업전략과 면접 프로그램1]



[취업전략과 면접 프로그램2]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최종 합격 이후 현업에 종사한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최종합격의 기쁨은 무뎌지고 요즘은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에, 대부분의 후배님들은 "그냥 아무 곳이라도 빨리 취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본인이 관심있는 "산업군", 일 해보고 싶은 "기업", 수행해보고 싶은 "직무"에 대해 한 번쯤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취업하여 "어떤일"을 하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방향을 잡기 위해 후배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취업전략과 프로그램을 통해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선배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목표하는 기업의 사업장에 방문 또는 견학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고민(생각)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고민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직접 발로 뛰고 눈에 담아두기 위한 행동과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취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수상-S-OIL 검사기술팀(기계공학부)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64	영어점수	TOEIC 980 / OPIC AL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교육청 다문화 멘토링(2017), 한국장학재단 다문화 멘토링(2018), 금정구지역 저소득층 멘토링(2018), 독서소모임(2019), 진로캠프(2014), PNU Pre-start Program(2014), 선배와 손잡기(2017,2018,2019)		
자격증	일반기계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2급		
수상경험	캡스톤 디자인 장려		
해외경험	해군 하와이 통역병 근무, 독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UAE 인턴		
봉사활동	RCY, 다문화 멘토링		
동아리	RCY, 별을 담다		
인턴십	아랍에미리트 에미레이츠 원자력 공사 인턴쉽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S-OIL은 원유 정제업을 기초로 하여 크게 정유사업, 윤활사업 그리고 최근 영역을 넓히고 있는 석유화학사업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를 대주주로 두고 있으며 엔지니어의 경우 울산 온산공장, 본사 사무직의 경우 서울 공덕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커리어를 쌓기 시작한 검사기술팀의 경우 기계재료와 부식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장치 산업 내 시설물의 검사 주기를 도출하고 부식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역할입니다. 흔히들 정유사라 하면 화공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듯 기계공학 및 재료공학적 지식 또한 필수 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우선 전공과 연관성, 직업안정성, 페이 및 근무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S-OIL의 경우 기계공학의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아직까지 사람을 자른 역사가 없어 근속년수가 매우 높다는 점, 기타 업종 대비 높은 연봉수준과 함께 연고지와 가깝고 순환이 없는 근무지 메리트에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군 제대후 2학년, 3학년, 4학년 내내 참여한 선배와 손JOB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선배와 멘토링을 통해 가장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과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기에 지원서를 잘 써서 참여해보시길 적극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채를 준비하기에 앞서, 필기시험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통상 필기업체를 전문시험업체에 외주(용역)를 줍니다. 행동과학연구소, 휴노, 오알피연구소, 중앙심리연구소, 커리어케어, 사람인 등이 있죠. 회사별로 업체가 다르며 시험의 유형도 다릅니다. 크게 PSAT 형과 모듈형으로 나뉘고 준비방식도 확연히 달라지죠. 시즌별 공기업의 외주업체는 필기시험 일정 조금 전에 '나라장터'라는 공공기관 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중반기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주)휴노에서 행동과학연구소(일명 행과연)으로 바꾸고 유형이 달라짐과 동시에 난이도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제가 준비하는 회사는 보통 PSAT 형으로 출제하는 행과연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짰 후 4 학년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 우선 **NCS 스테디**를 하기로 했습니다. 스테디에서는 기업별 봉투모의고사(일명 봉모)와 **5급 PSAT**(공직적격성테스트)라고 불리는 5급 공무원 1차시험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회식도 하고.. 여러모로 정이 많이 든 스테디네요. 무엇보다 PSAT 이 필기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스테디원분들 모두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 또한 **GSAT 스테디**를 병행했습니다. 대기업 인적성은 삼성을 기본으로하여 조금씩 응용되는 타입이라 메인을 삼성으로 잡고가시면 편합니다. 사실 삼성이 제일 쉽기도 하고(타기업 인적성에 비해), 다른 대기업은 워낙 까다롭게 나와서 대비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GSAT 2 주 전부터는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만나서 봉모 시험 및 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3. **면접스테디**의 경우 대한항공,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면접스테디를 진행하였습니다. 필기준비와 병행하나 혹은 필기불고 준비하냐의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전자가 정보력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후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후자를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건 본인에게 맞게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4. 다음으로 **영어회화 스테디**를 시작했습니다. **WAFF** 라고 불리는 이 스테디의 경우 매일아침 8시 새벽별도서관에서 시사나 이슈 등에 대해 영어로 자유토론을 하는,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있는 스테디입니다. 오래 되기도 하였구요. 올해 가장 잘한 선택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 다음으로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비타민**과 **매 3 비** 그리고 **신현 PSAT 책**(강의미포함)을 구매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전공공부** 입니다. 보통 공기업은 전공필기대비, 대기업은 전공 PT 나 기술면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공공부를 합니다. 전 하이브리드로 준비하기로 하였기에 범위가 넓은 공기업 전공필기 위주로 공부하되, 주요 개념의 경우 깊이를 두어 확실히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7. 정말 마지막으로 **시간관리**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회화스테디를 통해 하루를 일찍 시작하기도 했지만 중요한건 '순공'이라고 하는 순수 공부시간입니다. 작고 가시성이 좋은 **탁상 스탑워치**를 하나 구매하였고, '**열풍타**'라는 어플을 이용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2018 3 학년 겨울방학]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에미레이츠 원자력 공사) 인턴 최종합격

[2019 상반기(4-1 학기)]

- **지원회사(5)**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삼성전자인턴, 한국수자원공사, 서울교통공사
- **서류합격(5)**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삼성전자인턴, 한국수자원공사, 서울교통공사
- **필기합격(0)** : **필기 전부 탈락**

NCS 기본서 한 권과 기업별 모의고사 하나 정도 푼 상태였으나 지원한 회사의 필기전형에서 전부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탈락 시 점수를 알려주는데 전공과 NCS 모두 합격자평균에 한참 모자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인턴의 GSAT 에서도 물론 탈락하게 되었고 수자원공사의 경우 NCS 가 매우 쉽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합격점수와는 큰 점수 차로 탈락하였습니다. 대기업 인적성 혹은 NCS 라는 필기의 벽을 느낀 순간입니다. **타고난 머리가 중요하다** 는 말이 이해가 되었고,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유형의 시험들이라 덜컥 겁도 났습니다.

그리고 4 학년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하는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3 학년 때부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주변 동기들, 교수님, 부모님 그리고 현직에 계신 선배들께도 많은 조언을 구하였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고용안정성이라 할 수 있는 **정년보장, 초봉, 연봉상승률, 워라밸, 산업의 장래성, 업무강도, 근무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았고 무엇보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결정해야 하는 취준생으로서 정말 오래 고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생하고 많이 벌자'는 마인드였던 제게 주위 지인분들은 사기업을 추천해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그와 반대로 안정적인 공기업을 추천해주셨구요.. 이런 갈등 속에 하나를 놓치긴 너무 아쉬웠던 저는 그냥 둘 다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해보고 안 되면 더 맞는 쪽으로 다시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둘 다 하자. "

하나를 놓치기엔 제 욕심이 아직은 컸던 것 같네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에 담당교수님인 기계공학과 이석교수님(정말 좋으신 분입니다)께서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답일 수 있다'** 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공기업 하이브리드로 4 학년 2 학기 첫 공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스펙의 경우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수능 직후 토익이 700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군입대전 820점->895점, 군생활 도중 945점, 3학년 때 980으로 토익을 완성시키고 오픽을 IH에서 AL로 끌어올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입대전날엔 워드를 응시, 전역 직후엔 컴활을 취득하였습니다. 기사의 경우 통상 3학년 겨울방학 때 준비를 하지만 저는 인턴을 다녀왔기에 4학년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스펙을 미리미리 준비하려면, **확실히 놀고 확실히 준비하자** 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1학년 땐 놀아라는 식의 조언의 경우 솔직히 한 귀로 흘려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는 것도 제대로 놀고 할 것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아무리 1학년 때 열심히 하라고 강조해도, 잘 노는 사람은 알아서 잘 놀기 때문에 굳이 그런 조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이걸 조금 늦게 깨달아서 1학년 때 더 열심히 노느라 학점이 2점대를 찍기도 했습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서류작성의 경우 기업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떠한 직무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실제 그 직무와 일치하는 정도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사항 등을 파일에 정리해두고 그때그때 필요한 소재를 뽑아서 쓰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수월한 점이 많습니다.

필기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했던 방법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적성과 NCS의 경우 타고난 머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타고난 능력을 십분 발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몇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적성과 NCS를 공부하는 과정은, 달리 말하면 타고난 능력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계단식으로 실력이 는다는 점, 아직 내 실력이 100%가 아닐 거라는 마인드로 관리했습니다. 실제로 상반기 GSAT의 경우 30개 넘게 틀렸습니다. 이러다 평생 필기 때문에 취업 못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하반기 직전 스터디에선 10개 내외로 오답을 줄일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남을 정도의 실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또한 기계공학 전공자로서 대기업과 공기업을 하이브리드로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공기업은 대기업 준비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공기업 전공공부를 하게 되면 대기업 전공PT는 쉬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기업 필기를 위해 PSAT이라는 일종의 오버난이도(?)로 준비를 하다보니 대기업 인적성은 행과연 등의 PSAT형 NCS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스터디하시다가 5급 1차 합격하시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따라서 여전히 모듈형이 아닌 PSAT형으로 시험을 내는 일부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대기업을 병행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으며 저의 경우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면접 관련 조언을 드리자면.. 면접은 외모, 피지컬, 목소리, 어투, 자세, 눈빛 등이 포괄적으로 작용하는 **관상면접**입니다. 관상의 부족한 면을 메꾸는 것이 답변 내용이나 지식적인 부분, 경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평소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별과제 할 때 발표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자처하세요. 늘 말할 때는 두서 있게,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좋다고 봐요. 발음과 어투 및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는 습관 등은 단기간에 느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과 이야기 할 때도 말하는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늘 피드백하는 것이 면접 준비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Q.아까 정비 스마트화 이야기 했는데, 이거 인력 줄이자는 거죠?

A. 아닙니다.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Q.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시스템 스마트화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 그거 다 투자하겠다는 말인가?

A. 항공정비는 비계획정비와 같이 정비인력의 필요와 불필요가 불규칙적인 상황이 잦습니다. 따라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솔루션을 스마트화하는데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항공산업은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이 긴만큼 적정선에서 타협해야할 것입니다.

이렇듯 공격적이고 꼬리를 무는 질문이 들어왔을 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면 기업조사가 기반이 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뉴스기사도 많이 접해보시고, 여러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참고하면서 개인적인 주관을 많이 만들고 면접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아무리 가고 싶지 않은 기업이라도 시험을 볼 기회가 있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 ☞ 면접을 보고 났다면 가능하다면 최대한 복기를 하고 추후 자기피드백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전 주변에서 보수를 받고 판매해도 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질문부터 답변까지 열심히 복기했습니다.. 다른 면접 가기 전에 이 자료를 숙 훑고 가면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는 능숙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 ☞ 기업 면접스터디를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두 탕을 뛰셔도 돼요. (하지만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땐 꼭 혼자하세요)
- ☞ 기업 자료조사는 효율적이고 빠르게 하세요.
- ☞ 선배와 손 JOB 기를 활용하세요. 전 ASML, 삼성 SDI, 한수원, 대한항공 총 4 번의 선배와 손잡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S-OIL,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수원, 대한항공 등 현직에 계신 학과 선배님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계과 조교님께 가서 원하는 기업 선배 연락처를 여쭙보면 통상 다 주십니다. 예의를 갖추어 연락드리면 안받아주실 선배님 없습니다 !
- ☞ 입사지원서는 필히 워드나 한글파일로 따로 저장해두시길 바랍니다.
- ☞ 키워드 관련 기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구글알리미를 활용하면 매일 메일이 날아옵니다.
- ☞ 기업조사를 할 때는 사이트 내 지속가능보고서 외에도, 공시포털의 반기보고서(특히 '사업의 내용' 항목)를 참고하세요. 추가로, 미래에셋대우 같은 기타 투자증권사들의 기업리포트를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주식꾼들 정보력 무시못하죠.
- ☞ 오픈카톡방에서 얻는 정보는 아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상한 사람, 잘못된 정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딱 짓할 바엔 오픈카톡방을 보세요. (가끔 양질의 정보가 터지기도 합니다. 보통 그런 정보는 바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빠르게 '나에게'로 보내놓으시길)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올해 서울만 20 번 넘게 왕복한 결과.. 정말 운이 좋게도 첫 취준에 원하던 회사들에 합격하게 되었네요. 후두염성 몸살에 약으로 버티면서 면접 보러 다니곤 했던 기억들이 잊혀지기 전에,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취업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취준이 본 궤도에 오르신 분은 뒤로가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에 반해 이제 막 취업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담으로, 마이피누는 스터디 or 택시나 기차동행 등을 구하기 위한 '마이파티'나 "취업진로상담", '졸업생 및 직장인' 게시판만 활용했습니다. 위 게시판들에서는 실제로 취업후기를 올려주신 현직선배에게 쪽지를 보내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정보력**이 취준에서는 엄청나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누구에게나 때는 찾아옵니다. 시기가 조금 다를 뿐, 방향성이 조금 다를 뿐이라고 생각해요. 학우분들 모두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제가 막 대단한 걸 이룬 건 아니지만, 취업준비가 생소하다거나 막연히 취준을 시작하게 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하는 마음에 써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수상-삼성전자 DS부문 S.LSI사업부(전자공학과)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4.07	영어점수	토익 850 / 토익스피킹 140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IDEC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 교육 수료		
자격증	전기기사		
수상경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제2회 해커톤 대회 대상 수상		
해외경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해외파견 (세부 산호세 대학)		
동아리	영어시사 동아리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삼성전자 S.LSI 사업부는 R&D 전문 사업부입니다. 최근 AI, IoT, 5G, Automotive 등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되는 제품을 개발하여 팹리스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P, CIS, DDI 제품 등을 개발하며 각종 기능의 구현과 통합을 위한 연구개발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설계 담당자는 먼저 고객사와 SPEC을 협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칩 내부 아키텍처 구성 및 아날로그/디지털 회로를 설계합니다. 특히, 디지털 회로 설계는 Verilog HDL을 통한 RTL 레벨에서의 회로를 설계합니다. 또한, 이를 논리 게이트 레벨로의 변환하여 Timing을 고려한 여러 검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확한 처리를 최상의 속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회로 설계에 대한 고민하고 개선하며,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Scenario에서의 검증을 통해 제품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 그리고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기업에 입사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학부과정 중 디지털 회로 실험 과목을 수강하였을 당시, 논리게이트의 특성을 바탕으로 원하는 스펙을 구현하기 위해 Logic을 계산하여 하나의 회로를 설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집중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될 때까지 시도에 시도를 거듭하며 열정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과연 이 회로를 구현할 수 있을까? 이 회로가 과연 내가 의도했던 대로 동작할까?'하는 의문도 들었고 확신도 없었지만, 최종적으로 회로의 동작 결과를 실제 눈으로 확인하였을 때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Logic 계산을 통한 논리회로설계,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회로 검증과정에 대한 흥미를 발견하였고, 그 이후 디지털 논리회로 설계와 관련된 공부 및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 나갔습니다. 이처럼, 전자공학과를 전공하면서 가장 흥미 있었던 '디지털 논리회로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S.LSI사업부의 발전가능성 및 미래 비전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로 시장을 선두하고 있기에

세계적인 실력과 경쟁력이 입증되었습니다. S.LSI사업부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산업 변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1등을 선두하기 위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여, 실제로 내가 설계한 시스템 반도체 칩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곳곳에 활용되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취업 준비에 있어 교내 취업전략과에서 제공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 15개에 참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작성, 인적성시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서류작성에 있어, '자기소개서 기초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습득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업별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서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불필요한 내용 등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적성시험의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 '공기업 NCS 직무적성검사', '대기업 직무적성검사'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습니다. 과목별 문제풀이 요령, 시간 배분 등 필기시험에서 유용한 팁을 얻을 수 있었고, 실제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에서의 시험 응시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speech 강화 집단상담 : 그룹지도', '수리온 취업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모의면접 경험을 쌓았습니다. 실제 기업 채용 담당자로부터 면접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과 면접에 임하는 자세부터 면접 마지막 인사까지 코칭 받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모의 면접에 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긴장하였을 때나 헛실수설하여 당황하는 모습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연습을 거듭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철저히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고, 실제 취업 과정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직무를 선택하고 기업을 선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막연하게 Work&Life Balance가 좋다는 공기업에 입사하기를 바랐고 그에 필요한 자격증을 공부하여 취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과 직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고, 자료를 조사하고, 현직자로부터의 경험과 조언을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업과 직무와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공기업 입사를 위한 자격증 취득과 전공 지식을 쌓기 위해 투자했던 많은 시간과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입사에는 전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이런 일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직무를 확실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이 회사가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다는 말

을 듣고 준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정말로 이 회사에 입사를 하여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만족하고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임직원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며, 현직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2년 일할 기업과 직무를 찾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도 다닐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취업 준비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취업 준비에 있어 '직무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따라서 직무와 관련 없는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절대 쏟지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직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하고자 했고, 직무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바탕으로 쌓아온 직무 역량이 가장 강력한 스펙이자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균 학점이 아무리 높아도, 직무와 직결된 과목의 학점이 낮다면 오히려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무 역량보다 어학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직무와 관련된 학점 관리, 자격증, 어학능력, 직무경험 다 갖추고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하나의 스펙을 갖추더라도 '이 스펙이 나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스펙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직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서류전형에서는 직무와 관련한 나만의 강점과 스토리를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 높은 교과목 이수를 통해, 직무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 있는 과제와 개인/팀 프로젝트 중심의 내용을 담아 나만의 직무 강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교내 프로그램 중 'IDEC 반도체설계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수업 등을 활용하여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열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친구나 선·후배 혹은 교내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등 내가 쓴 글을 객관적으로 피드백 받는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내 글이 정말 잘 쓴 글인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 볼 때의 긴장감을 떨쳐내고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시로 작년 하반기 삼성 직무적성검사의 경우 첫 번째 과목인 언어 영역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첫 과목부터 어렵다는 느낌을 받고 좌절하여 뒤의 과목들을 집중해서 풀지 못했다는 후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한 저만의 방식이 있다면, 자기소개서를 쓰지 안 쓰지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 때 일단 써보자! 입니다.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분위기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긴장감은 줄어들고 결국 문제를 풀 때에도 페이스 유지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면접 전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면접 기본예절들을 배웠고, 인터넷 취업관련 카페에 있는 예상 질문 list(1분 자기소개, 본인의 강점,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등)을 모두 모아

질문 각각에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어떤 압박 질문을 받더라도 일관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 “본인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성격의 단점은 꼼꼼함입니다.”라고 답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 꼼꼼하면 업무 수행에 있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닌가요? 제때 업무를 끝내는데 어려움이 있진 않나요?”와 같은 추가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소 불리해보일지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앞서 말했던 나의 단점인 ‘꼼꼼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니요, 그렇게 꼼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기간 내에 업무를 완수했습니다.”와 같이 ‘꼼꼼함’을 부정한다면, 답변에 대한 일관성을 잃게 되어 면접에 솔직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확실히 ‘알고’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네, 과거에 이런 저의 성격 때문에 사소한 것에 치중하다 과제 제출을 놓칠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제 성격의 단점을 인지하였고, 주어진 시간에 대한 업무 진도를 체크하여 관리를 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면접관으로부터의 압박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면접 질문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본인만의 확고한 Mind-Set을 확립한다면, 면접전형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열심히 노력한 끝에 원하던 기업에 입사한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였습니다. 노력의 시간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수상-아마존웹서비스(기계공학부&빅데이터)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4.02	영어점수	TOEIC 930 (2016)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삼성 드림클래스 (2017~2019) 글로벌 인재육성 창업가 캠프 (2018) LG 글로벌챌린저 (2018) Developer Student Clubs Lead, Google (2019~)		
자격증	Google Cloud Professional Solutions Architect (2020)		
수상경험	제3회 창의 프로젝트 경진대회- 대상 (2017) 대전 기상청 인공지능 창업 경진대회 - 대상 (2019) 제1회 부경 메이커톤 경진대회 - 최우수상 (2019) 대한민국 인재상(2019)		
해외경험	글로벌 인재육성 창업가 캠프 (미주-서부, UC Berkeley) LG 글로벌챌린저 (미주-동부) 게이오 대학 학생 교류 활동 (일본-도쿄)		
동아리	코알라 무브먼트 (2017~2019) 캐글 코리아 부산 3기 운영진 (2019) Developer Student Clubs Pusan National (2019~) Google Cloud Certified Korea 커뮤니티 운영진 (2019~) 퀵랩 뽀개기 Organizer (2019~)		
인턴십	벤더스터 데이터 엔지니어, 백엔드 개발 (2019~2020)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는 아마존의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오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리소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원하게 된 Tech U Associate Solutions Architect 직군은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기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기술적인 컨설팅을 통해 보다 서비스를 잘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졸자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Tech U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의 프로세스와 다르게 1년간 현직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 기존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원래 기계공학을 전공하다가 IT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향후 일자리에 대한 전망도 있었고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제 개인적으로 IT쪽으로 약간이나마 공부했

던 경험상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더 잘 맞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T쪽으로 공부를 하다보니 클라우드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고 지금도 블루오션일만큼 많은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 도전해보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WS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클라우드 업계에서 가장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으며, 클라우드 분야는 대졸자 채용을 많이 하지 않고 경력자를 위주로 뽑았는데 이번에 AWS 같은 경우에 대졸자를 최초로 뽑게 되어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 같은 경우, Leadership Principle이라는 14가지 기업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문화 자체 역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큰 규모의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서 다양한 인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현장 실습을 통해 벤더스터라는 스타트업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풀타임 근무를 했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나 과제를 통해서만 할 수 없었던 서비스 개발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실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팀원들과 호흡을 맞춘 경험은 쉽사리 얻기 힘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벤더스터에서 서비스 인프라를 위해 AWS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자진해서 AWS 서비스를 관리하고 설계하여 구축했던 경험은 취업과 면접 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느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실제 취업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기업에 관한 정보나 직군에 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력서나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JD(Job Description)를 기반으로 직무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려고 하였고, 명시된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책이나 자료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 설명회를 통해 실제 채용 관계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정리하였고, 여기서 모호한 부분은 잡플래닛(Job Planet)이나 Glassdoor과 같은 채용 리뷰 플랫폼 등에서 현직자의 리뷰나 면접 후기 등을 참고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Youtube나 Medium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 notion에 정리해서 자주 보고 누구에게나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보통 채용 정보만 보고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안하고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원하는 직군과 관련해서 적으면 2~3개, 많으면 3~4개의 회사의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자신이 그 직무와 회사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학점관리]

제가 대외활동이나 멘토링 등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시험 기간 때 항상 스터디를 만들어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했던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 때 항상 같은 과목을 듣는 친구들과 스터디를 만들어서 서로 물어보는 방식을 통해 혼자 공부하면 애매한 부분을 빠르게 학습해 나갈 수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학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학능력]

저는 원래 학과 내 롤스로이스 인턴십과 해외 대학원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고 군 제대 동안 영어만이라도 남겨오자는 마음으로 토플 공부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공군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장려했는데 영어 회화 동아리를 하면서 미국에서 공부하던 사람들과 함께 영어를 같이 공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삼성 드림클래스 영어 멘토링, LG Global Challenger, 그리고 글로벌 사업가 양성 캠프로 UC Berkeley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등 이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기업에 도전도 해볼 수 있었고 이번에 Amazon이라는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학 능력은 가능한 빠르게 단련하는 게 좋다고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직무경험]

실제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하고, 직무 경험이 없이 취직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능력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는 것 대신에 한 학기 전부터 방학이나 학기 중 인턴을 준비해서 직무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작은 스타트업도 좋고, 엔터프라이즈 급 대기업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다면 어떤 곳이든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무 경험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고, 일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이슈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팀 단위의 경험보다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했는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역할로 일을 했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나눠서 기억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스펙관리]

스펙관리라는 게 빈익빈 부익부와 같이 스펙이 많은 사람은 다음 대외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이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펙이 없으면 오히려 대외 활동이나 직무 경험을 위해 지원하는 횟수가 적는데, 저는 그렇게 겁먹기 보다는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거나 관련된 활동이면 지원해보는 경험도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면 본인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발전할 수 있고, 떨어지더라도 그 떨어진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번에는 더 보완해서 준비해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Amazon 같은 경우 커버레터 없이 이력서만 제출하면 되고 이력서 템플릿 등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 포지션과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강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량은 1~2장 정도로 핵심만 들어갈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추천되며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모두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에 LinkedIn를 통해 직무 이력을 관리하였다면 이런 계정 정보를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직무 경험 -> 학업 정보 (학점, 프로젝트) -> 활동 정보 -> 자격증 및 수상 순으로 작성했습니다.

Amazon Web Services는 총 3단계의 프로세스로 채용이 진행됩니다. 서류 평가 -> 폰 스크리닝 -> Loop interview 순으로 진행되며 폰 스크리닝은 1시간가량의 화상 면접이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 컴퓨터 기본 지식과 역량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스토리지, 운영체제 등 학교에서 배웠던 기본 지식에서 핵심 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oop interview 같은 경우 Amazon의 독특한 면접 문화 중 하나인데 14개의 Leadership Principle에 기반하는 인재인지 평가하기 위해 면접관과 1:1로 한 시간씩 총 4~5번 정도를 하루에 진행하는 면접입니다.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STAR(Situation, Task, Action, Result)형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면접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편안했고 친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면접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따로 긴장하거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연습한데로 여유 있게 봤었고, 이런 부분이 좋은 평가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Amazon Web Services라는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의 첫 대졸 공채에 합격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이란 생각도 들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여 계속 도전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학우분들도 부산대학교라는 곳에서도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에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려상-현대자동차 소재지원팀(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93/4.5	영어점수	TOEIC SPEAKING level 6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동계단기파견(2016학년도 겨울방학,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교) 창의미래설계 디딤돌 사업(2017년 여름방학, 면접에서 탈락(팀명: OM.D)) 해외도전과 체험(2017년 하반기, 팀명: SMART로OMSE) 수리온 취업동아리(2018년 중, 팀명: 취업하러OMSE)		
해외경험	호주 (동계단기파견) 싱가포르, 호주 (해외도전과 체험) 일본 (학부연구생 기간 학회 참석) 대만, 필리핀, 베트남, 미국 (개인여행)		
봉사활동	RCY 대학생 봉사단		
동아리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내 발표동아리 OPR		
인턴십	LG화학 산학인턴 (2018년 9월~12월)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소재지원팀에 근무 중입니다. 제가 지원한 직무는 [경영지원]생산지원 직무입니다. 홈페이지 기준으로 생산지원 직무는 단위공장 내 인력운영, 총무, 교육, 노무 등을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일반적으로 타 회사의 경우 위의 사항들을 보통 인사관리 직무에서 수행하지만, 제가 속해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협력업체 직원들 포함하여 약 32,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전 공장의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업부별 생산지원팀을 운영함으로써 인사팀/인사지원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 및 사업부마다 계신 사업부장님을 보좌하는 팀으로써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지원팀 안에서 지원W/G(Working Group)과 노무W/G이 나누어지며 보통 생산지원 직무를 지원할 경우 지원W/G, 노무관리 직무를 지원할 경우 노무W/G에서 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업무인 인력운영에서는 사업부 내 총인원관리(신규, 전입, 퇴직 등)와 부서별 촉탁직원(계약직)을 주로 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 현장관리자(라인장, 그룹장, 파트장 등)나 보직과장(각 부서별 생산과장 등) 선임에 있어 울산 인사팀에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 (결정권은 울산 인사팀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사팀이 각 사업부 내 인원 정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 진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 업무로는 사업부 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에 대한 OJT 계획을 세우거나 사업부 워크샵 등을 기획하는 일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팀들과 연락하여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교육팀 등)

세 번째 업무는 총무업무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총무라고 하면 단순히 돈과 관련된 일을 하

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총무는 모든 일반적인 일이라는 뜻으로 돈과 관련된 일을 포함하여 잡다한 일이 많습니다. 포상, 징계, 작업복/안전화 신청 등의 업무부터 사업부 내 모든 부서에 필요한 사무용품(볼펜, 복사용지 등) 구매까지 총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합니다. 조직문화 개선 등 본사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전사적으로 확대 시행할 때 사업부 내에 해당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일도 수행합니다.

종합해보면, 생산지원팀이라는 말에 걸맞게 공장의 생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부 내의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약 1년 반 동안 LG화학의 HDPE생산팀에서 생산 기술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입사 당시에는 화학공학과 관련된 유기소재시스템 공학과에서 석유화학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게 되는데 흥미 없는 일을 하며 지낼 시간이 괴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2020년 2월 퇴사를 했습니다.

평소 해외도전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당시 주제였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분야 중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분야의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카메라 모듈, MLCC 등을 생산하는 삼성전기까지 총 3가지 기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LG화학에서 일할 당시 여수공장의 사택이 부족하여 약 4개월간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하며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택에 관한 문의에 대한 업무지원팀 직원의 태도가 상당히 불친절했고 LG화학에 대한 애사심이 많이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직원들이 다른 쓸데없는 걱정없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또한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인사/총무 등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 현대자동차 상시채용 항목 중 생산지원 직무는 단위공장 내 인력운영/총무/교육/노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발견하여 현대자동차에 지원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로 이어져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3학년 2학기에 준비하여 겨울방학에 싱가포르와 호주에 다녀올 수 있었던 해외도전과 체험 프로그램이 제일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원하려는 기업의 인재상이나 핵심가치 중에서도 그 기업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원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도전적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제 1, 2차 면접 모두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 중에 가장 도전적이었던 활동에 대해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았고 해외도전과 체험을 겪어 대답하였습니다.

해외도전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을 가진 자동차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으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지금 시대는 과거보다 전공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 것을 느끼기 때문에 취업 방향을 전공에 얽매어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화학계열 공과대학을 나와 화학공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다가 현재는 자동차회사 경영지원 계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기계공학과를 나왔으니 어디를 가야지, 화학공학과를 나왔으니 어디를 가야지 보다는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고민 없이 취업을 하게 된다면 결국 저처럼 일에 대한 흥미를 잃고 회사에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이 안 맞다고 고민하기 보다는 이 전공을 통해 내가 얻은 지식이나 배움을 관심 분야에 어떤 식으로든 적용시킬만한 게 있는지, 또 관심 분야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공부를 병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요즘 탈스펙이라는 말이 조금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학점이 높지 않아도, 영어 성적이 높지 않아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그와 관련된 역량을 쌓으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말에 어느정도 동의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정말 극소수일 뿐입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학점을 보고 어학성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일반적인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가고 싶은 기업에 딱 맞는 역량을 개인적으로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경우 학점 관리의 필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스펙이라는 말이 단순히 높은 학점과 영어점수 그리고 자격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점 3.93으로 상징적인 4점대도 아니고 영어성적은 토스 level 6, 자격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생활동안 봉사활동도 하고 교내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해외에 몇 번 나가본 적이 있고 도전에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스펙을 쌓으려고 억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맞는 학과 친구들과끼리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도전해보고 실패도 겪고 성공도 겪으면서 생긴 경험입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놓으면 서류든 면접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대학생활 동안 학점관리에 소홀하지 마시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대학교에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활동들이 많으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꼭 참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서류 후기 및 작성 Tip]

현대자동차는 현재 공채가 아닌 수시채용으로 신입사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채용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디로 배치가 될지, 어떤 업무를 할지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채가 남아있는 타기업의 경우 자신이 지원한 직무로 면접까지 보더라도 나중에 직무가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런 경우는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지원하려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학과 사무실에서 해당 기업에 가있는 현직자 선배님들의 번호를 받아 연락하거나 현직자들이 직접 답변을 달아주는 코멘토 등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외의 경우 읽기 쉬운 자소서를 만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를 제외하고 최대한 담백하게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느낀 점, 그것이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위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 관련 정보 및 준비방법]

현대자동차의 경우 HMAT이 폐지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2월에 입사한 선배의 말을 들어보면 1차면접 시 같이 쳤다고 했고, 저(6월 입사)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면접이 아닌 화상면접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기에 우선은 인적성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성검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관성있고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분위기, 준비요령 등]

현대자동차의 DNA는 도전에 맞춰져있다는 생각이 드는 면접이었고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1차면접을 약 40분 정도 진행했는데 첫 질문이 본인이 했던 가장 도전적인 활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였습니다. 해당 질문 하나로 그 프로젝트가 뭐하는 활동이었는데, 주제 선택 이유, 팀원 구성, 각자의 역할, 팀 구성 시 고려했던 사항, 경비 마련 방안 등 꼬리 질문을 하시며 20분 정도 그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제가 공대생인데 해당 직무를 경영학과 사람들보다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국 인사관리 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인사관리를 구독하며 공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2차 면접에서는 1차와 같이 도전적인 활동에 대해 한 번 물어보셨고 직무가 무슨 일 하는지 아는지, 답변한 내용과 하는 일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괜찮은지 이런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고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큰 틀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고, 제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작은 일들을 먼저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어떤 회사의 면접이든 구체적인 경험 분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자신이 한 경험들을 나열하기.
2. 그 경험들에서 팀원 구성, 각자의 역할, 무슨 활동이었는데, 활동기간, 경험을 통해 얻은 것,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나 제약사항 등을 정리하기.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일이어서 지원했지만 스스로도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출신으로써 현대자동차 그리고 생산지원이라는 직무에 안 맞다는 생각을 준비 기간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이 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는 요즘, 전공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에 너무 얽매이기 보다는 스스로가 정말 하

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하고 싶은게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지?'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프로젝트나 활동들을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내 흥미를 끌만한 주제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장려상_삼성전자 제조기술팀 메모리기술팀전자공학과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93	영어점수	TOEIC 885 / OPIC IH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삼성드림클래스 부산대 IDEC 반도체설계교육 다문화가정 및 탈북학생 멘토링 문화 속 전공분야 찾기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운전면허 1종		
수상경험	문화 속 전공분야 찾기 은상		
봉사활동	부산도시철도 통역봉사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저는 삼성전자 DS부문에 제조기술팀 메모리D기술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반도체 8대 공정 중 Implant 공정엔지니어입니다. 공정엔지니어가 담당하는 업무는 현재 진행되는 공정과정(Recipe)을 개선하여 생산시간(ST)을 줄이거나 품질(Yield)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개발된 신제품을 양산화하기 위해 반도체설비에 신제품 공정 투입 및 데이터검증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설비 반입 및 설치 이후 제품양산을 위한 공정Test를 진행하여 기존 설비 대비 공정데이터 유의차를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출근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초일류기업의 명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50개나 되는 출퇴근버스 정류장, 다양한 식사메뉴와 셰프가 요리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 등에서 이 회사가 그토록 자랑하는 복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세계 최대 단일공장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또한 큼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하면서 가장 깊이 와닿았던 것은 현업 엔지니어들의 마인드였습니다. 반도체인의 신조 1번 '안된다는 생각을 버려라'라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일을 해내는 조직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문제 분석과 협업을 통해 조치불가능해보이던 설비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던 공정 수치가 출력되는 것을 볼 때 저는 정말 짜릿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저는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반도체소자로 제어되는 전자제품에 관심이 있어 전자공학과를 지원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강의들 중 특히 전자회로와 반도체공학에서 반도체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대학교 IDEC 반도체설계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Custom Full IC 설계과목을 수강하였고 그곳에서 반도체 Layout 설계이론을 배우고 실습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식과 경험은 공정엔지니어의 업무를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도체공정을 담당하는 설비는 제가 실제로 학과에서 배운 회로이론, RF이론, 물리전자, 전자회로 및 반도체공학 등 다양한 전공지식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설비구조와 동작원리, 그리고 공정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3학년부터 영어회화를 계속 공부했고 지하철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봉사도 했었습니다. 삼성드림클래스라는 대외활동에서는 공과대학 남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수학이 아닌 영어강사를 지원하는 등 영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근무환경은 개발실의 경우 외국인들이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부서도 많고 실제 생산라인현장에서도 외국계 반도체장비회사의 현지인력이 파견되어 협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꾸준히 해온 외국어공부가 현업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교내에서 진행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결과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참여한 문화 속 전공분야찾기라는 교내 대외활동을 통해 '시빌워'라는 영화 속에 나타나는 전자공학 및 미래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실제 나노코리아 박람회를 견학하며 현재 개발 중인 다양한 기술들을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전공에 대한 탐구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자소서에 녹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3학년 방학기간 중 IDEC 반도체설계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강의들로 이는 실제로 실무에 적용가능한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소서에 경험을 서술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취업준비과정 속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드리고싶은 조언은 일찍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소서 쓰고 인적성 시험치고 면접보고 합격하면 취업하는 것입니다. 과정은 쉬워보입니다. 그런데 자소서쓰기 전에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만해도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의 인재상, 핵심가치, 사회적활동들과 신제품, 신기술 개발동향에, 전반적인 회사 대외적 이슈들도 알아야합니다. 물론 자세히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결국 시간이 많은만큼 많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언하고 싶은 부분은 절대로 목표기업을 선택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기업을 지원한다고 생각해야하며 본인이 입사할 기업은 합격한 기업 중에서 고르는 것입니다.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가고싶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기업에 합격하겠다는 다짐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회사는 성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 척도는 성적입니다. 취업관련 사이트에서 학점이 낮음에도 잘 준비해서 취업했다고 하는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합니다. 성적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어성적은 반드시 준비되어있어야하며 영어관련 경험이 있는 것이 자소서 및 면접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글로벌 경험을 요구합니다. 영어관련 경험은 단순 여행경험보다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활용했던 경험이 좋습니다. 저는 통역봉사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지하철같은 공공장소에서 외국인들 표 구매하는 것과 위치정도만 설명해주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자소서나 면접에 활용하기는 좋은 경험이 됩니다.

영어는 성적을 위한 공부보다는 빠르면 2학년 늦어도 3학년부터 회화를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회화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토익성적에도 도움이 됩니다. 말할 수 있는 문장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회화를 공부하면 듣기성적이 향상됩니다. 회화를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스피킹시험을 준비하는게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 채용설명회를 반드시 가셔서 꼭꼭꼭 직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채용설명회에서 근속, 연봉, 복지, 워라벨 등을 물어보고 나오시던데 사실 근속, 연봉 등은 여러 기업에 동시에 합격하시고 어디갈지 결정할 때 따지셔도 안늦습니다.

채용상담에서 실무자께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시고 알아본 정보를 자기소개서에 적절히 녹여내시면 됩니다.

1. 먼저 채용상담을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소개서를 먼저 작성해보세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다보면 기업의 채용홈페이지에서 실무자인터뷰나 직무소개를 반드시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서 궁금한 것들을 실무자에게 물어보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자소서 작성기간이 채용상담 이후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채용상담에서 최대한 자세히 정보를 얻으셔야합니다.

2. 직무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경력개발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진 이러한 역량은 그 직무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등 물어볼 거 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가령 KT 자소서에서는 대부분의 통신장비가 리눅스 기반이라는 것, 그리고 저의 라즈베리파이 사용경험을 어떻게 자소서에 녹여낼지 등을 물어보았고 자소서에 녹였습니다.

한화큐셀 자소서에서는 생산기술직무에서 CAD를 사용하는지 물었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CAD가 사용되는지 알게됐습니다. 태양광 셀 내에 FINGER나 BUSBAR의 간격을 조절할 때 CAD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셀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이렇게 알게된 정보를 자소서에 녹임은 물론 실제 직무면접에서도 얘기하여 당당히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질문과 분위기, 면접TIP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면접 중 기억에 나는 첫 번째는 직무면접이었는데 문제를 푸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면접 보기 전 문제푸는 시간을 가지고 실제 풀이과정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도중 순간 기억이 안나 “잠깐만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은 다음에 천천히 다시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고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정훈님은 문제를 잘못 이해하셨네요?”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문제 질문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직무면접 문제 풀다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왜 본인이 그렇게 풀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임원면접이었는데 실제 부장급되시는 분이 저에게 도전을 해본 경험을 물었습니다. 저는 드림클래스에서 공과대 남학생이지만 수학강사가 아닌 영어강사를 지원한 것을 도전한 경험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그것은 그 대외활동에 참여한 것이지 도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대답하시며 압박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했고 합격했다는 점에서 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압박이 있어도 본인 생각을 잘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대답에 아쉬운 점은 문두에 ‘면접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시작했다면 더 예의바르고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면접 준비요령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본인 자소서에서 질문이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자소서작성이나 면접 전에는 꼭 자신의 경험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창의성발휘, 실패, 도전, 리더십발휘, 성취, 갈등 및 극복 등 다양한 경험들을 정리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실제 면접에서도 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취업스터디 무조건 하세요 면접준비 같이하는거 굉장히 도움됩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하우들로 삼성전자 공정엔지니어, 현대모비스 생산기술, 한화큐셀 생산기술직무에 최종합격했습니다. 제가 취업준비하면서 얻은 TIP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하고 대한민국 취준생 모두 파이팅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장려상-부산환경공단 기계직무(기계공학부)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48	영어점수	TOEIC(885)/TOEIC-S(140)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2019-1)자기소개서 실전반, 공기업 취업특화 프로그램, 공기업 NCS 직무적성검사 (2019-2)자기소개서 실전반, 면접역량강화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기초반, 기업체 채용설명회, 잡아라 취업 PNU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공기업 취업특화 프로그램, 공기업 NCS 직무적성검사, 자기소개서 특강		
자격증	일반기계기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수상경험	(2019-1)교내 공모전 장려상		
해외경험	(2017-여름)싱가포르 해외파견 프로그램		
봉사활동	(2014-여름)하동 농촌하계봉사, (2017-여름)공학교육봉사		
동아리	(2014~2015)중앙동아리 여울, (2014~2018)기계공학부 학술동아리 ZOOM		
인턴십	(2019-1)중소기업 TISS 현장실습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부산환경공단은 부산 곳곳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등을 관리, 운영하여 부산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기계 직무는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시 신속히 해결하여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부산환경공단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기계공학도로서 다양한 설비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긴 여러 환경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부 시절 교내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쓰레기통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껴 '자동 분리수거 기계'를 설계하여 공모전 장려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의 중요성이 주목받을 것인데, 이처럼 환경에 기여하는 설비를 제작한 경험을 활용하여 부산환경공단에서도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우선 저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과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본 점이 좋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한 시기는 3학년 거

올방학이었습니다. 4학년 1학기에 이공계열 학생들은 관련 학과 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기사 필기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였습니다.

4학년 1학기는 필수 영어 성적인 TOEIC과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TOEIC-Speaking을 기본 성적 정도로 맞춰놓았습니다. 또한, 학과 공부와 기사 실기 공부 그리고 취업전략과에서 실시하는 '취업 특화 프로그램'과 '자기소개서 실전반'에 참가하여 가고 싶은 기업을 알아보고 취업의 큰 틀을 그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성시험을 위해 'NCS 스터디'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름방학에는 기사 실기와 대부분의 공기업 취업에서 가점을 얻을 수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서류 전형에서 기본 조건을 갖춰놓았습니다.

4학년 2학기인 2019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취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취업전략과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프로그램'과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 작성 실력이 부족하여 여전히 서류합격률이 높지 않았고, 무엇보다 부족한 전공 지식 때문에 필기시험의 벽을 실감하였습니다.

이후 1학기 졸업 유예를 신청하고 겨울방학 때는 부족한 전공 지식을 쌓기 위해 전공 공부에 집중하면서 취업전략과에서 모집한 '자기소개서 실전반'에 참여하여 서류를 다듬었습니다. 또한, '면접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면접에도 대비하였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3학년 겨울방학 때도, '어떻게 취업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할 때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하였으나, '어떤 기업, 어떤 직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는 생각보다, '남들 다 따니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가장 후회되는 점은 '더욱 일찍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직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중에서도 주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동기는 원하는 기업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좋아하는 일을 바탕으로 본인의 미래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① 학점관리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학점관리'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19로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된 취업난으로 취업준비생은 많은 상황에 사기업은 공채를 폐지하며 최소한의 인력만 수급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는 공기업만 준비하시는 취업준비생이 아니라면, 학점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학점이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는 고학년 이전인 1, 2학년 때 좋은 학점을 받아둔다면 수월한 학점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② 어학능력

'어학 능력'은 이공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의 성적(TOEIC 850, TOEIC-Speaking

LEVEL 6)만 있으면 서류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취업난으로 TOEIC 900, TOEIC-Speaking level 7 or Opic IH 이상을 받아두신다면 분명 서류 합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③ 자격증

‘자격증’ 중 관련 기사 자격증은 대다수 공기업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며, 최근에는 사기업도 우대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쌍기사’라고 불리는 2개의 기사 자격증은 분명 채용에서 가점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몇몇 기업에서는 기사 2개를 서류 점수에서 가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에 맞춰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은 한국사 자격증 or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다면 서류 전형에서 변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직무 관련 경험

최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펙은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채가 폐지되고 수시채용이 늘어나면서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뽑고 있기 때문에, 직무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선호할 것입니다. 3학년 겨울방학부터 관련 직무 인턴십을 해두면 서류와 면접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인턴도 소위 ‘금턴’이라 불리며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부산대학교 현장실습센터에서 해외나 국내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① 서류 전형

취업의 첫 번째 관문인 ‘서류 전형’에서는 ‘지원 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드러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관련 기사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미래에 나아갈 방향과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면 좋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Google 알리미’를 이용하여 원하는 기업을 검색어로 설정해두면 관련 기사를 메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DART’라는 사이트에서는 시장형 기업의 기업 정보와 관련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기 보고서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잡알리오’와 ‘클린아이’는 각각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직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잡플래닛’, ‘코멘토’, ‘블라인드’ 등을 이용하거나 현직자 지인 및 취업전략과 프로그램과 취업캠프에도 참여하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② 필기 전형

두 번째 관문인 ‘필기 전형’은 지원 기업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업에서는 삼성의 ‘GSAT’가 문제도 깔끔하고 출제되는 4개의 유형(언어논리,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은 타 기업에서도 출제되는 확률이 높아서 사기업 인적성 시험의 표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이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GSAT’는 ‘유튜브’에서 문제 풀이 팁과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많은 정보를 얻기 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재면서 시중의 봉투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입니다.

공기업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전공시험인 직무수행능력평가 2가지를 실시합니다. NCS는 소위 'PSAT'이라고 불리는 '5급 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바탕으로 언어, 수리, 문제해결 영역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 외 7개의 NCS 영역은 '모듈형 NCS 문제집'과 'NCS 교수자용 파일'을 통하여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원 기업이 '모듈형 출제'인지 'PSAT형 출제'인지 출판사별로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공은 관련 기사 기출 문제집을 바탕으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의 관련 전공 문제를 풀어 보면 고득점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③면접 전형

마지막 관문은 '면접 전형'입니다. 적게는 1.5배수에서 많게는 3~4배수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이라고 들뜨거나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접은 솔직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우거나 준비한 모습보다는 조금 서투르더라도 진솔한 모습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큰 목소리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좋을 것입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성과는 아니지만, 주변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자신에 대한 성찰 등, 힘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취업 수기를 읽는 학우 분들은 분명 남들보다 취업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는 학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과 '하고 싶은 직무'를 찾고 그에 맞춰 준비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장려상-셀트리온 품질 관리(화학과)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58	영어점수	토익 975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교내 필리핀 교환학생, WEST 해외 인턴십, 교육인증원 해외 전공 봉사		
자격증	위험물 산업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해외경험	필리핀 어학연수		
봉사활동	글로벌 전공 봉사 (인도네시아 해외 봉사)		
동아리	나우누리 (화학과 봉사 동아리)		
인턴십	WEST 해외 인턴십 (미국)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현재 셀트리온 품질관리 팀에 재직 중입니다. 셀트리온은 항체 의약품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입니다.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한 기업으로 대표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항체 바이오 시밀러인 램시마가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품질관리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안정성,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셀트리온의 전자 품질 관리 시스템인 LIMS(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시험법의 유효한 data를 얻기 위한 Parameter를 선별하고 관련 Specification(규격)의 logic을 Master data로서 LIMS 상 등록합니다. 비록 개발, 임상, 생산, 품질, 허가 등 수많은 과정 중 작은 조각을 맡고 있지만 내가 기여하는 업무가 인류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화학 전공으로서 4학년 재학 당시 생화학 과목을 수강하면서부터 제약, 생물학제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흥미를 이어서 미국 샌디에고에 위치한 지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인턴으로서 일을 하면서 직접 관련 업계를 경험했고 바이오신약과 관련한 직종의 전망이 넓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재직 중인 셀트리온은 창사 20주년이 조금 넘는 회사이나 현재 코스피 시총 10위권을 유지하는, 투자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지만 그 중 가장 각광 받는 곳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은 CMO(의약품 위탁 생산)이 아닌 실제로 신약을 연구하고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셀트리온은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입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저의 적성과 성향에 잘 맞을 것으로 판단하여 셀트리온 입사를 희망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문서는 영어로 기록되고 해외 업체와 밀접하게 업무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해외 경험이 많고 영어 실력이 높은 지원자들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비단 셀트리온만의 이야기가 아닌 대부분의 생물학 제제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위와 같은 채용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꾸준히 영어 능력을 키우고 해외 경험을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해외 경험은 금전적 여유가 필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내 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해외 경험을 쉽게 쌓을 수 있습니다.

2학년 여름계절 수업으로 교내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필리핀 라살 대학교에서 English communication 및 Business English를 계절학기 동안 수강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내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경제적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WEST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WEST 인턴십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실습 지원비를 지원받으면서 미국에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취업전략과 현장실습센터에서 별도 실습 비를 지원 받고 해외 인턴십 I(18학점)를 수강하였습니다. WEST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를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외 인턴십이라는 경험 자체가 흔한 편은 아닐뿐더러, 정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근무하는 기업과 인턴십 경험의 질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턴십은 영어 실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계기가 되었을 뿐더러 직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 교육인증원에서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8 글로벌 전공봉사 BEE Happy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PENS 대학 멀티미디어 전공 대학생들과 함께 수라바야 지역의 전통 의상을 알리는 팸플릿 및 영상을 제작하는 재능봉사를 했습니다. 직 무나 전공과 연결 지을 수 있는 활동은 아니었지만, 해외 경험을 하면서 외국인 친구들과 협업하여 결과물을 도출해내었다는 점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파악했던 이력들을 잘 어필 할 수 있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저는 비록 제약회사 취직을 희망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취업난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세상의 모든 기업이 저를 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선택지를 추렸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는 남습니다. 구직 당시에는 절박한 마음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떠올리면 가능한 모든 기업에 지원한 탓에, 어느 한 곳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입사하고 싶은 몇 군데의 기업이 아닌, '어디든지 붙여만 다오'와 같은 마인드였기 때문에 깊게 파고들어 기업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업계, 기업, 직무를 정확히 정한 뒤 그에 집중하는 방향을 추천합니다.

각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및 합격자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의 스펙 중 해당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기업을 파악하는 것은 꽤나 오래 걸리는 공부이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정확히 설정한 뒤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성한 자기소개서에서 몇 단어만 바꾸어 제출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인재상에 잘 부합하도록 각 기업별로 자기소개서를 달리 작성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미루지 마세요. 취업난 이 심해지고 고스펙의 지원자들도 채용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를 더 높이겠다든지 자격증을 따겠다든지 하는 이유로 지원을 미루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토익 점수는 높을수록 좋고 자격증은 있을수록 좋지만, 정작 취업시장에서 가장 마이너스 요소는 나이입니다. 요즘엔 신입 사원들의 나이가 평균적으로 오르는 추세이기인 하나, 여전히 어떤 나이를 넘어서서는 아무리 좋은 스펙의 지원자라고 할지라도 구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토익 20점을 올리기 위해 1년 뒤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제가 생각하는 스펙의 중요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경험 > 어학능력 > 학점 > 자격증
학점, 영어 성적은 고고익선입니다. 특히나 영어는 어떤 기업이든 중요하게 보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성적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소속된 화학과에서 주로 따는 자격증은 위험물 산업기사, 화학기사, 화학분석기사 등이 있지만 취업 시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은 가점되는 요소이긴 하나 채용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하기 전인 대학교 2~3학년 재학 시에 따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스펙은 직무경험입니다. 요즘은 신입보단 경력이고 경력보단 경력 같은 신입을 선호합니다.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 노력하고 교내 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 취업전략과 공지를 매일 확인하면서 일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경험을 늘려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특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것도 아주 나쁘면 안 됩니다. 모든 스펙이 훌륭하지만 학점이 2 점대와 같은 경우는 결국엔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 다른 지원자들은 받지 않을 학점과 관련된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관련된 답변을 준비해야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본인의 강점과 스펙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동일한 스펙일지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성실함에 방점을 둘 수도 있고 분석력에 둘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미국 인턴십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인턴십에 지원하여 타국 생활하며 현지인들과 함께 일을 하는 면에서 저의 적극성과 끈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어 능력을 방증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직접 일을 하면서 업무를 체득하고 직무 능력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나의 강점과 대응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혹은 합격자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회사의 리크루팅이나 설명회 등에 많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벤트에 참석한 현업자에게 직무관련 질문을 최대한 많이 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설명회에 참석한 현업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받아 질문을 한가득 보냈습니다. 그 분은 친절하게 저의 질문에 답변 해주셨고 면접에서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주는 정보는 정말 값집니다. 따라서 원하는 기업의 현업자를 마주치려는 기회를 늘리고 그 상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주로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정보를 찾고 분석해야 합니다. 요즘은 면접후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꼭 알아야하는 기업 정보는 꼭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분 자기소개는 어떤 기업이든 꼭 준비해야하는 사항이며, 30초 분량 혹은 영어 자기소개 등 다양한 버전으로 연습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긴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변할 때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답을 모르는 질문이더라도 최대한 내가 아는 지식과 연관 지어 공부한 내용을 십분 드러내야 합니다.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의 정보 차이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태도와 인상으로 면접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이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취업 준비 할 당시 학교 근처에 있지 않아서 취업 전략과나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훨씬 수월하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혼자해서 제가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합격 메일을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뻐고 '내가 잘 하고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어 더 기뻐했습니다. 학우 분들은 제 경우처럼 혼자 취업 준비하시지 말고 취업 전략과의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면서 취업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생산기술(기계공학부)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74	영어점수	오픽IH / 토익865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수리온 취업동아리(2019년)		
해외경험	미국 산호세 대학교 랩실 연구참여		
봉사활동	부산대학교 해외봉사단(태국), 현대자동차그룹 해피무브 해외봉사활동(미얀마)		
동아리	사랑공학연구회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회사 소개]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PBV,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담당 직무]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기술 업무인 플랜트 기술, 간단히 말하면 생산기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자동차 생산에는 크게 4가지 공정(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는 그중에서 프레스 공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레스 직무에도 품질관리, 설비관리, 생산관리,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업무 등 정말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저는 현재 신입사원으로 아직 업무가 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느낀 점]

아직 담당업무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수평적이며 자율근무제를 시행 중이어서 워라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평소 업무시간은 8~17시이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적용하여 금요일에는 3시, 4시에도 퇴근할 수 있어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또한 처음에 품질업무에 배정되었지만 또 다른 업무를 하고 싶으면 업무변동도 자유롭게 가능하여 회사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1) 직무적합성 : 기계공학 전공자로서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자동차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 자동차 회사 중 최고인 현대자동차를 목표로 하여 꿈을 키워왔습니다.

2) 아르바이트 경험 :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졸업하고 우연히 자동차 공장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처음으로 프레스라는 기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자동차 엔진 열 방지 커버'를 만들면서 생산기술 직무 자소서에서 자연스럽게 녹여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현대자동차그룹 해피무브 해외봉사활동 경험 :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주최하는 해피무브 해외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양곤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직접 견학하며 자동차 제작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깔끔한 공장의 모습을 보며 현대자동차에 대한 꿈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세 가지가 모두 시너지 효과를 내며 운 좋게도 현대자동차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시절에 무엇이든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대외 활동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수시로 학교홈페이지나 학과홈페이지를 들어가며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지 조사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봉사활동입니다. 저는 교내 기장멘토링에 1년동안 참여하였고 또한 부산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해외봉사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봉사활동 자체가 취업을 할 때 큰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또한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저의 활동들이 어우러져 취업면접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주최하는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참여하였지만, 저만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국제설계프로젝트였고, 자소서나 면접 준비과정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내 프로그램 자체도 정말 좋았지만, 미국에 약 2달간 다녀오며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을 다녀온 후,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서 토익이나 오픽 성적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사실, 대학교 2학년때부터 꼼꼼하게 학점관리와 취업을 원하는 분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관련된 대외활동을 하며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어려우므로, 어떠한 대외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꾸준히 학점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기 마련이니깐요 ;)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최근 트렌드는 대학교 이름을 보기보다 '직무적합성', '학점'을 정말 많이 본다는 것을 취업준비를 하면서 몸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대학교가 좋으면 취업이 잘된다는 것은 옛날 말이며 대학교 4년동안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굳이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학점>직무적합성>어학>자격증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기준)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서류 후기]

특히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원하신다면 서류를 정말 정말 꼼꼼하게 잘 써야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량이 아닌 자신이 보유한 직무역량과 지원한 직무와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직자를 찾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서류검토를 인사과에서 진행하기 보다는, 실제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번 수십번 정독해서 읽으며 누가 가장 직무와 적합한지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은 실제 현직자가 봤을 때, 직무적으로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많고 현업과 무관한 부분도 정말 많습니다. 현직자를 만나면 실제 업무에서 어떠한 용어를 쓰는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자소서를 작성할 때, 부산대학교에서 장려하고 있는 K-MOOC이라는 온라인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제가 모르는 부분을 정리해서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K-MOOC에서 검색해보며 강의를 듣고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을 강추합니다 ;)

[면접 후기]

먼저, 채용과정은 서류전형>인성검사>실무면접>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무면접에서는 과장급 되시는 실무진들이 면접에 들어오게 되며, 실제로 제가 입사했을 때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정말 이 사람이 뛰어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그룹에 잘 적응하는가'를 많이 본다고 느꼈습니다. 면접은 다대일 방식이며 제일 처음 자기소개 PT를 약 5~10분 발표했으며 자기소개PT에 대한 질의응답 10분, 인성+직무적합성20분, 총 40분정도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원면접에서는 임원진분이 면접에 들어오게 되며 역시나 다대일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임원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적인 부분이며 뿐만 아니라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산업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총 20~25분정도 질의응답을 한 후 면접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면접 준비 꿀팁

저는 면접 준비할 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취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word파일에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친구들이랑 멘토선생님 또한 대학선배들에게 여쭙어보며 이상한 것은 고치고 다시 작성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단순히 대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톱 치면 튀어나오도록 제가 적은 대답을 체화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약 2달간 진행하니,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고 면접을 잘 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면접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때, 항상 초점을 맞춘 것은 4가지였습니다.

1. 두괄식으로 대답해라
2. 모르면 제발 모르겠다고 해라

3. 필살기를 넣어라(배우려는자세/열정)

4. 현직자를 찾아라

먼저 자신감이 없고, 질문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두괄식으로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두괄식으로 대답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친구들에게 피드백 받는 과정에서 두괄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해야 합니다. 면접 볼 때 저희 앞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들이 앉아계십니다. 애매하게 아는 척하다가 오히려 면접을 망칠 수 있으므로 그 질문은 빠르게 모르겠다고 넘기고 아는 질문에서 잘 대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필살기를 넣어라 입니다. 필살기란 단순히 질문에 대한 대답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어필'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면접왕이형', '강민혁' 이 두 분의 영상을 참고하며 제 면접템플릿 수정을 정말 많이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현직자를 찾는 것입니다. 직무적합성을 어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직무역량서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취합해도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직자를 찾아서 내부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면접합격률은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현직자를 찾기 위해서 학과사무실에 연락도해보고, 블라인드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한 블로그나 아니면 선배들과 대학동기들에게 연락해보고 물어보고 현직자 1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면접도 인맥싸움이고 정보싸움입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가장 먼저,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학점관리를 더 잘 해놓을걸... 미리 어학성적을 땃어야하는데... 직무 관련된 인턴을 도전해볼걸... 이라는 후회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보다 이 순간 할 수 있는걸 찾아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차근차근 준비하다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원하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자동차 프레스금형기술2부(기계공학부)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66	영어점수	TOEIC 950 / OPIc IH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창의충전소 공학봉사(2015년) - PNU 공학교육거점센터 언어교환도우미(2015년도) - PNU 국제언어교육원 해외교환학생(2016년도) - PNU 대외교류본부 해외현장실습(2017년도) - PNU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의팩토리 교육(2017년도) - PNU 교육인증원 해외도전과체험(2018년도) - PNU 학생과 기아자동차 인턴(2018년도) - 기아자동차		
자격증	컴활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기능사 한국사 1급		
해외경험	해외교환학생(네덜란드)		
봉사활동	창의충전소 공학봉사, 언어교환도우미		
인턴십	기아자동차(2018.07~2018.08)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 ▶ 회사 소개 : 완성차 회사.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이전 예정)
- 국내 공장 : 3곳 -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화성시, 광주광역시
- 해외 공장 : 5곳 - Slovakia, China, USA, Mexico, India
- ▶ 현재 담당 직무 : 프레스금형
- ▶ 근무하면서 느낀 점 : 장점 - 인지도 높음 || 단점 - 공장 위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 ▶ 위 기업을 선택한 계기 : 개인적 고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중 합격한 기업

개인적 고려 조건 :

- ① 대도시에서 통근 가능 - 울산/수도권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평생 오지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기업에 정말 많이 지원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2개 기업에 합격했습니다.
- ② 적지 않은 급여 - 10대 대기업 평균 이상 원했습니다.
- ③ 인지도 - ASML에 다니다가 기아자동차로 이직했어요. ASML은 참 좋은 회사지만, 인지도가 낮아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설명해야 했어요. 기아자동차는 그런 고충은 없습니다.
- ④ 직무 - 생산기술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아래에 서술한 저의 강점을 어필하기 좋았습니다.

- ▶ 나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 위의 고려 조건을 만족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 학과 수업 내 팀 프로젝트 및 대외활동

[학과 수업 내 팀 프로젝트]

2학년 : 창의적 공학설계 || 3학년 : iHCI, iRobotics, 기계공학기초실험및설계

위 과목들은 제가 기업 지원 시 자기소개서에 주로 적었던 팀 프로젝트 과목들입니다. 위 과목들의 공통점은 프로그래밍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창의적 공학설계 과목에서는 LEGO MINDSTORM의 자체 코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로봇을 제어했습니다. iHCI(introduction of Human Computer Interaction), iRobotics 과목은 네덜란드 교환학생 시절에 수강했던 과목입니다. iHCI 과목에서는 java 언어를 사용해 '그림판'을 만들었고, iRobotics 과목에서는 java 언어를 사용해 LEGO MINDSTORM 로봇을 자동 제어했습니다. 기계공학기초실험및설계 과목에서는 My-Rio 코딩 프로그램, 모터, 센서 등을 활용하여 저는 자판기를 구현했습니다.

위의 활동들을 통하여, ㉠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로봇 제어에 관심이 많은 점, ㉡ 리더로서 팀원들을 이끌었던 경험을 어필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학창 시절에 해 왔던 경험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외활동]

2학년 : 창의충전소 공학봉사 || 3학년 : 해외교환학생(네덜란드), 해외현장실습

4학년 : 해외도전과체험, 기아자동차 인턴

인턴을 제외한 대외활동이 전부 해외에서 진행되는 활동입니다. 해외 경험이 주 목적이었지만, 취업 준비 시 전부 유기적으로 결합하였으며 global 인재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창의충전소 공학봉사는 '공학을 활용해 봉사'를 하였다는 점을, 해외교환학생은 해외에서 전공을 공부했다는 점을, 해외현장실습은 현장실습을 해외에서 하는 global 지향성을 어필하였고, 해외도전과체험은 ZEV(Zero Emission Vehicle)을 주제로 함으로써 기아자동차 입사에 도움이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기아자동차 인턴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 다수(위 답변 참고.)

▶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 도움이 됨(위 답변 참고.)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 시행착오 :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술

3학년 2학기부터 기업체 인턴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인턴 서류 탈락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타인에게 자소서 첨삭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창 시절의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계속 쓰면서 스스로의 경험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깨달은 점 : 본인의 학창시절 경험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들과 차별화되는 자소서는 '본인의 경험을 쓴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 학점관리 : 3.5/4.5 & 석차 상위 30% 이내 관리 추천합니다.

학점은 고고익선이며, 석차도 상위 30% 이내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격증 : 공과대학이시라면 기사 자격증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매년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실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슬프게도 저랑 시험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교통공사 2차 면접에서 기사 자격증이 없는 것이 탈락의 가장 큰 원인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에서 '기사 자격증이 왜 없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학능력 : TOEIC 850 이상, OPIc IH 이상 취득 추천합니다.

TOEIC 850~895 : 중상위권 / 900~945 이상 : 상위권 / 950~990 이상 : 최상위권

▶직무경험 : 공개채용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시채용에서는 있으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상시채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등) 특정 직무를 골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자기소개서에 쓰기도 좋고, 면접에서도 유리합니다.

▶스펙관리 노하우 : 학기별 스펙관리 노하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2학년 : 본인이 희망하는 대외활동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 어학 성적 확보. TOEIC, OPIc 등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 자격증 준비. 기사 시험 등

4학년 1학기 : 자격증 응시. 기사 시험 등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 자격증 확보

4학년 2학기 : 기업체 지원 및 합격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서류 후기 및 작성 Tip : 본인의 경험에서 '느낀 점', '얻은 점', '어필하고 싶은 점'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단순 여행 내용은 적지 마세요.

▶필기시험 관련 정보 및 준비방법 :

사기업 : 직무적성검사 문제를 미리 준비한다. 4대 대기업 위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GSAT, HMAT, SKCT, LG인적성)

공기업 : NCS + 전공 준비 동시에 필요합니다. (3개월 이상 준비 필요)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분위기, 준비요령

- 질문 및 답변 내용 : 질문 - 지원 동기, 본인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점, 팀프로젝트에서 힘들었던 점 || 답변 - 생략

- 분위기 : 실무진 면접은 자유롭습니다. 임원 면접은 격식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아자동차 로고가 빨간색이라서 빨간색 넥타이 매고 면접 봤습니다.

- 준비요령 : 긴장 X, 티 나는 거짓말 X, 당황하지 않기, 자기 어필 하자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최종 합격 소감 :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특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① 학교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저는 '창의충전소 말레이시아 공학봉사(전액), 네덜란드 교환학생(200만원), 루마니아 해외현장실습(200만원), 해외도전과체험(미국 서부)(550만원/4인)' 전

부 학교 지원 받고 다녀왔습니다.

② 금전적/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1달 이상의 장기 여행 다녀오세요. 취직을 하면 보통은 2주 휴가가 Max입니다. 아시아를 벗어나보시기 바랍니다.

③ 취업하면 예쁜/잘생긴 여자친구/남자친구도 생겨요!

삼성전기 컴포넌트솔루션사업부(기계공학부)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60	영어점수	TOEIC 795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취업전략과 주관 프로그램 다수 참여		
자격증	일반기계기사, 한국사능력검정1급,		
해외경험	인도네시아 공학봉사 <Creativity Station 2018> 참여		
봉사활동	인도네시아 공학봉사 <Creativity Station 2018> 참여		
동아리	과동아리 Cfirst 활동		
인턴십	교내 부품 가공공장 현장실습 인턴십 수료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삼성전기는 MLCC라는 수동소자를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저는 그중에서도 공정을 개선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제품과 공정에 대한 학습이 많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익히고 배우는 과정에서 흥미도 느낄 수 있으며, 스스로 직접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뿌듯함과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직무입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교내 채용설명회 참석으로 삼성전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정보, 직무, 근무환경, 복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현직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사업장이 부산이라는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회사에 대해 알아보던 중, 당사는 제조업 직종으로서 설비의 자동화/내재화가 중요하므로 기계공학을 전공한 저에게는 전공 적합성을 만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선 지금, 점점 자동차/5G 산업 시장은 성장할 것이므로 향후 당사의 비전에 확신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취업전략과에서 주관한 모의 면접 프로그램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면 놓칠 수 있는 점들을 실제 면접관계서 집어주고 피드백 해줌으로서 면접 준비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고 모의 면접을 거치며 스스로 자신감이 많이 생겨 마인드 컨트롤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의면접을 같이 봤던 학우도 면접에 합격하여 현재 회사 동기가 되었습니다. 피면접자들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라 하면, 하염없이 불안하고 두려움 마음이 찾아올 때였습니다. 좁은 취업시장에서 서류탈락, 필기시험탈락, 면접탈락의 경험은 쌓여 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야 할 일들은 다 하지 못하고 마음만 급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탈락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인 '취업'을 향해 가는 단계임을 항상 생각하며 마음을 고쳐먹곤 했습니다. 나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았고, 긴 취업준비 생활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모든 스펙은 다다익선, 고고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고 높으면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에 비해 부족하다거나, 많지 않다고 해서 불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학, 학점 조건의 최소 점수는 맞추어야 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므로 너무 낮지는 않게 관리하되, 어느 정도 수준의 학점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스펙 관련 요소 중 우선순위는 직무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직무는 아니더라도, 유사직군의 직무를 경험해보는 것이 단순히 스펙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생활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며, 서류 전형/면접 전형에서도 충분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학년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것보다, 교내에서 주관하거나 게시하는 다양한 외부 활동들이 있으니, 저학년부터 차근차근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며 스펙을 정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서류 후기 및 작성 Tip]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Tip은 '그냥 쓰기'입니다. 처음에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 어떻게 써야할지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대학생활과 경험들을 글로 꼭 직접 쓰면서 정리해보면 어떤 장점을 살리고 어떠한 경험을 어필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글자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서술한 후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고 글 다듬어 나가면 좀 더 깔끔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관련 정보 및 준비방법]

필기시험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인적성 교재를 사용하였고, 준비를 할 때도 항상 실전처럼 시간 제한을 꼭 두고 풀어야합니다. 최대한 많이 풀면 풀수록 좋습니다.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분위기, 준비요령 등(필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면접 스테디가 필수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 하는 것보다, 같은 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면접 준비를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또 무엇보다 남들이 봤었을 때 나의 문제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황스러운 질문에 대처하는 태도나 좋은 답변을 배울 수 있고 여러 번의 모의면접을 통해 실제 면접장에서 긴장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면접질문을 보면, 압박질문은 많이 없었고 자기소개서를 읽고 궁금한 질문이나, 대학생활의 아쉬운 점, 회사에 대해 공부한 것, 자격증 취득 과정 등 솔직하게 대답하면 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예상 질문을 던지고 실제로 많이 말해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마지막으로 뻔한 이야기지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듯 면접은 면접관의 주관적인 요소가 반영되므로, 잘 웃고 부드러운 표정이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최종합격 후 취업준비를 하며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선/후배 모두가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은 언젠가 꼭 찾아올 것이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원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전기 컴포넌트 설비개발G(기계공학부)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68	영어점수	TOEIC 860, OPIC IM2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사회리더대학생멘토링(2018), 2018청년울산대장정(2018), 대기업 취업특화 프로그램1,3,5,6,7,10,13차(2019), 자기소개서실전반(2019) 공기업 취업특화 프로그램4,6,8차(2019), 면접역량강화 프로그램2,8,25차(2019) 선배와 손잡(Job)기 1학기(2019), 선배와 손잡(Job)기 2학기(2019), 수리온취업 동아리(2019)		
자격증	한국사2급(2016), 워드1급(2016), 일반기계기사(2019)		
수상경험	BEEBOY로보컵(2018)		
해외경험	AMRC Traing Centre(세필드, 영국)		
봉사활동	SK대학생자원봉사단(2017), 교육청다문화멘토링(2018),현대차그룹 대학생 교육봉사단(2019)		
동아리	MIRR(과 설계동아리)		
인턴십	AMRC Traing Centre(세필드, 영국)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회사에 대한 소개]

삼성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닌 한자로 번개 전(電,)과 기계 기(機)가 사용되어 Electro-Mechanics로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MLCC, 인덕터 같은 수동부품을 만들고 카메라 모듈, 기판 등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현재 담당하는 직무]

저는 수원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부의 컴포넌트 설비개발G 기구설계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MLCC를 제조하는 과정은 16가지인데, 저는 그 중 배치/성형/인쇄 설비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현 설비의 수리 및 개선점을 관리하여, 새로운 설비를 위한 기구설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구설계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미팅, 설비 발주 및 셋업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느낀 점]

자율 출퇴근제와 회사의 복지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회사 워라벨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게 될 수도 있지만, 회사생활을 하며 든 생각은 취업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현재 배치/성형/인쇄 설비개발에 있지만 언제든지 다른 공정을 맡게 될 수 있고, 전혀 해보지 않은 분야의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 두어도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하기에 계속해서 자기 계발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저에게 기업 선정의 가장 큰 요소는 근무지. 바로 부산 근무였습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랐고 학교 친구들도 모두 부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산교통공사 기계직, 삼성전기 연구직, 대한항공 항공우주 직을 1순위로 정하고 취업 준비를 하였고 삼성전기에 취업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요소였던 부산근무가 아닌 수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계획한 대로 흐르지 않더라고요. 수원도 대도시라서 인프라도 좋고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산근무라는 요소 외에도 산업에 대한 전망을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차와 5G 사업들이 활발해질수록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MLCC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을 매우 높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MLCC에 들어가는 유전체와 내부 전극의 다층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료, 화공과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재료, 화공과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기계과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분야를 배워 일하는 것에 큰 두려움이 없었기에 전공 관련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삼성전기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삼성전기는 유튜브 채널이 매우 잘 되어있습니다. STAFF라는 조직이 따로 존재하여 유튜브와 사내 행사를 도맡아 하여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복지와 생활을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 시기에 유튜브 알람 설정까지 해두고 챙겨보곤 하였는데요. 사내병원, 다양한 시간대의 셔틀버스, 하루 5끼 무료 등 다양한 회사 복지도 삼성전기를 선택하게 된 큰 이유입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학년별 활동내역]

2학년-SK 대학생봉사단

3학년-취업전략과 프로그램, 2018 청년 울산대 장정, 교육청 다문화 멘토링

4학년-선배와 손잡(Job)기, 취업전략과 프로그램, 수리온 취업동아리, 현대자동차 대학생봉사단 점프스쿨, AMRC연구소 인턴십

취업전략과 프로그램과 **선배와 손잡기**, **수리온 취업동아리**와 같은 목표가 취업과 명확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취업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활동이었습니다. 선배와 손잡기로는 1학기 때 부산교통공사, 2학기에는 대한항공 선배와 취업 얘기, 모의 면접 등을 해주시며 실무자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말과 도움이 취준생에겐 크게 다가왔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모의 면접도 봐주시면서 진행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준한 **봉사활동**은 스토리텔링 하기 좋은 소재였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될 줄은 몰랐고 그 당시 활동들이 재밌어 보였기 때문에 시작하였습니다. 2학년-SK 대학생봉사단, 3학년-교육청다문화멘토링활동, 4학년-현대차 대학생봉사단 점프스쿨로 3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인맥 커뮤니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4학년 때 현장실습을 하여야 했는데, 학교를 통해 갈 수 있었던 영국의 **AMRC연구소에서의 인턴십**과 관련하여 자기소개를 쓸 때 소재로도 많이 쓰였고, 면접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계과는 현장실습이 필수인데, 해외가 아니더라도 아무 곳이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지원할 회사와 엮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선정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저는 공기업과 사기업을 동시에 준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업 인·적성시험을 준비하고 한국사와 기사 자격증도 4학년 때 공부를 했었죠. 하지만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하기는 쉽지 않았고 그 둘 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 사기업형 인재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기업 서류탈락도 한몫했습니다) 공기업을 준비할 때도 부산에 거주하고 싶은 생각이 커서 부산교통공사를 목표로 준비를 했었는데, 채용공고가 2019년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9월부터 대한항공, 삼성전기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 외에도 많은 회사에 지원했지만 서류탈락 비율이 높았고 그럴수록 더 긴박감을 느껴서 전혀 알지 못하던 회사에 자소서를 쓴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점은 급하게 쓰고 그 회사에 대해 잘 모르거나 간절함이 없다면 헛수고가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따라서 지원하고 싶은 기업 선정을 잘해보시고 채용공고가 떴서 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정말 원하는 기업 5~8가지 정도를 정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한항공은 서류통과 후 3번의 면접이 존재했고, 저는 2차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삼성보다 일정이 앞섰기 때문에 대한항공 면접 준비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고, 대한항공 탈락 소식 후 삼성전기 면접을 준비해야 할 때 항공기의 지식은 도움이 되지 않아 삼성전기 면접 준비도 미리미리 할 걸이라는 후회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면접을 준비하며 면접의 기본자세, 태도 등을 배울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학점관리의 중요성은 모두 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3.5 이상만 된다면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학점이 서류 컷이 아니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높으면 좋죠!

어학 능력은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요. 토익시험을 10번가량을 치고 나서야 850점을 근근이 넘게 되었습니다. 토익은 꼭 방학에 2달간 토익에만 투자해서 점수를 꼭 획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피킹이랑 토익 같이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대기업이 스피킹이 필요한데, 저는 취업 준비를 위해 급하게 따서 기준만 넘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자격증을 땀지만, 공기업 서류탈락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공기업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기사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 미리미리 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서류 후기 및 작성 Tip]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엔 자기소개서 질문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회사마다 준비하지 않았고 경험 위주로 사례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공기업의 경우엔, NCS 직업기초능력에 들어가면 10가지 능력이 기술되어 있고 항목마다 3~4개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자신의 경험 및 사례를 준비하시면 서류 지원 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필기시험 관련 정보 및 준비방법]

삼성은 GSAT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대기업 인·적성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LG, SK보다 문제가 정형화되어있고 준비를 많이 할수록 점수를 눈에 띄게 올릴 수 있는 시험입니다. 아무래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팁도 많고 유튜브에 빨리 푸는 노하우들이 꽤 잘 정리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을 알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한다면 문제만 많이 푸는 것보다 더 점수상승을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 3학년 때 인·적성 특강이 열리면 시간을 내서 들었고, 그런 것들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필요가 없었지만 4학년 1학기부터 인턴 준비를 하며 GSAT 스테디를 하였는데, 모아 둔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테디를 꼭 하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현 위치를 알 수 있고 잘하는 사람들의 팁을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분위기, 준비요령 등]

삼성은 총 3가지의 면접이 진행됩니다. 인성, 직무, 창의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 면접입니다. 특이한 질문은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며, 다대일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관들 모두 저에게 집중해주어 분위기가 좋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며 완벽하게 암기한 것은 1분 자기소개밖에 없었습니다.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 질문들을 완벽하게 외우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고 꼭 말해야 하는 스토리나 자신의 강점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대답을 외우지 않고 질문-대답을 연결하는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이러한 경험과 배운 점을 얘기해야겠다고 정리를 하였는데, 네이버에 인성 질문 90선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질문 90개를 얻게 되시니 인성 준비를 할 때 90개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얘기할지 정리하시고 추가로 스테디나 모의 면접을 하면서 듣게 되는 질문들을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20가지 정도를 추가한 110개의 질문에 대한 경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꽤 겹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경험, 키워드로만 정리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에 취업해서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취업 준비를 하시는 모든 학우 여러분들, 힘든 상황에서 준비하느라 힘이 빠지기도 할 텐데,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앞으로 헤쳐나갈 자신감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저학년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저 같은 경우에 방황하지 않고 2학년 말부터 취업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 취업전력과 프로그램의 활용했던 케이스입니다. 저는 성적이 뛰어나지도 영어 실력이 우수하지도 직무 경험이 다양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학교를 졸업하고 꼭 취업하고자 했던 의지가 강했던 것이 결과로 나타나 주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전략과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고 동기들과 선배들과 술, 이성 친구 얘기도 좋지만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취업에도 많은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SK하이닉스 M15 Defect Analysis(기계공학부)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총평점: 3.59 / 전공평점: 3.54	영어점수	895
인턴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년 (15년~16년도)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SK하이닉스입니다. 주로 DRAM과 NAND와 같은 메모리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직무는 DA(Defect Analysis)로서 제품을 만드는 여러 공정 중간 중간에 Wafer를 검사해서 불량을 검출하고 불량을 발생시키는 원인공정을 찾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불량에 대한 이해와 발생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부와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불량을 마주할땐 스트레스도 받지만 저의 분석을 통해 불량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땐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매력적인 직무입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사실 이 sk하이닉스를 선택한 계기는 취업 실패 후 학교를 배회하다 만난 sk하이닉스 취업설명회였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자동차 혹은 포스코같은 기계공학과 익숙한 회사만 생각하다 우연히 지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게는 행운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끊임없이 공부의 기회를 주고 신입사원도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어 주도적인 업무를 할 수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잡아라 취업 PNU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안했는데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내 스타일이 어떤지,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깨닫지 못했던 포인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턴쉽”이었습니다. 저는 그 때의 결정이 후회되진 않습니다. 거기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아직도 만나고 있어서 후회는 안하지만, 취업면에서는 불리한 SPEC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왜 공대생과 상관없는 무역회사에 인턴쉽을 했는지를 공격적으로 물어봤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직무와 상관없는 SPEC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이 길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일하고 싶은 직장도 직무를 정해두고 그 곳을 향해 열심히 도전하는 것은 100% 좋은 것이지만, 저의 경우엔 그것을 넘어 “이 길만이 내 길이다”라는 생각에 잡혀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학부때부터 자동차관련 직업

에 종사하고 싶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자동차Part에 인턴쉽을 지원하고 현대자동차식당에서 점심도 먹고 자동차관련 Spec은 기회가 되면 다 쌓도록 노력했어요. 하지만 실제 취업시장에선 완성차업체부터 부품업체까지 저를 많이 탈락시키더라구요. 그렇게 좌절과 함께 공채한 시즌을 놓친 후에 느낀게 '아 이래선 취업 못할수도 있겠다. 넣을 수 있는데는 다 넣어보자'였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좋은 기회를 통해 지금의 회사를 입사할수 있었습니다. 취업시장에선 구직자의 생각과 회사 및 인사담당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길, 이 생각이 오직 진리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학점관리에 대해선 여러분들도 지겹게 들었으실거 같아요. 학점은 가장 먼저 보는 spec이기도 하고 기초적인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학점이 낮다면 그를 보완해줄만한 무기가 있어야해요. 주로 경험이 되겠죠. 경험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최대한 찾아서 만들어야해요, 예전 사진첩도 보고 자신의 기록이 담긴 인터넷기록도 뒤져보며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찾아서 무기로 가공하는게 좋아요. 그 외 영어자격증은 공대생기준으로 800정도만 되도 무난한 것 같고 기사자격증은 회사마다 다른거 같아요.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가 기사자격증에 대한 가점이 있으면 따는게 좋겠죠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서류는 최대한 많이 써보고 그 중 대부분이 떨어지는게 당연한거니까 낙담하지 않으시면 좋을거 같아요. 물론 쓰다보면 "아 내가 여기 쓴다해서 뭐 붙을 수 있을까? 시간 낭비인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나중에 서류기간이 끝나고 인적성기간을 거쳐 면접기간이 되면 끝까지 채용과정 진행중인 회사가 몇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힘들어도 그물을 많이 던져놓는게 좋은거 같아요.

인적성준비는 여러 책을 사는것보다 기업마다 한권 책만 사서 집중해서 푸는걸 추천합니다. 다 푸셨으면 내가 틀린이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해요, 왜 틀렸는지. 혹은 왜 이 문제에서 막혀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지. 이런 분석을 하는게 많은 문제를 푸는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면접준비는 각자 스타일대로 준비하시되 모의면접 많이 해보시고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세요. 그리고 실전 면접에서는 떨리겠지만 떨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의식적으로 말을 낮고 천천히 하도록 해보세요. 듣는 상대방에겐 그런 목소리가 더 집중되고 신뢰가 갑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취준의 시간은 때로 길고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가족들의 관심(?)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직관입니다. 가족들의 말보단 객관적으로 나를 봐줄수 있는 학교내 취업전문가의 말이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신의 단점보단 장점을 더 크게 생각하는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취업에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단점을 정확히 알고 충분한 고민이 있었다면 더 이상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항상 응원하고 언젠가 같은 회사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길 기대합니다.

삼성 SDI 기술팀(기계공학부)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63	영어점수	토스(Lv6), 토익(750)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부산경제진흥원 청년 컴패니언		
자격증	AUTO CAD(2급), 한국사 1급, 워드 프로세서 2급		
수상경험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컴패니언 우수상		
봉사활동	유니세프 아우인형 프로젝트		
동아리	농구 동아리 Air Meca		
인턴십	없음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회사 소개]

삼성SDI는 차세대 배터리 사업 및 전자 재료 사업을 구성하고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흔히 알고 있는 2차 전지 중 원형, 각형 소형 배터리 및 LVS, PHEV, EV 등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 생산하는 제조 회사입니다. 중대형 배터리의 경우 울산, 서안, 헝가리에 법인을 구성하여, 생산된 배터리를 유럽, 미국, 중국 각 지역에 판매 후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동차 환경 규제 및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과 더불어 유망한 업종의 회사입니다.

[현재 담당하는 직무]

삼성SDI 울산 사업장에서 기술팀의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팀 엔지니어 중에서 제조기술 직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분석,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신규 프로세스 양산화 작업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법인의 안정화 및 생산 라인 추가에 따른 라인 Set-up도 진행하며, 국내 뿐만이 아닌 글로벌 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느낀 점]

현재는 배터리 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향후 5년 이후에 성장 가능성을 보고 나아가는 회사이며, 자동차 업체가 유럽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 많다 보니, 글로벌적인 업무가 많아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회사로 생각됩니다. 또한, 배터리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재에 안주하기 보다는 미래 지향적이며, 기술 개발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활발한 연구, 실험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부분으로는 삶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의 역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선택을 하는 업종 중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 많은 분야가 있지만, 해당 업종에서는 이미 성장이 많은 회사이고, 앞으로 나아갈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해당 분야의 업종을 찾던 중 현재 성장을 시작한 배터리 업체와 그 중에서 중대형 전지인, 전기 자동차, ESS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 해당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드는 생각으로는 이루어 놓은 것보다 이뤄야 할 것이 많은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 개인적인 역량 향상 및 업무 연구를 진행하며 만족하고 있고,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 1)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은 해당 기업 관련 기사, 해당 분야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위해 하루의 시작을 해당 기업 및 관련 분야의 뉴스 검색으로 시작하였고, 해당 기사들을 매일 스크랩을 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 면접을 보는 시점인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하며, 기업 및 관련 분야의 경향성, 트렌드, 발생한 사건 등을 숙지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관심은 자소서 작성,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자신감과 관심을 어필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2) 두 번째로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면접 스터디입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취업 면접 스터디가 아닌,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을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 면접 스터디를 실시하였고, 일주일에 1회 해당 면접 스터디 진행 구성원들과 돌발 질문에 대한 모의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에 대한 압박감과 해당 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였고, 처음 해보는 면접임에도 떨지 않고 해야 할 말을 다 할 수 있었던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교내 프로그램으로는 자소서 첨삭을 도움 받는 활동에 신청을 하여, 참여를 하였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하며, 어떠한 방법,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 모른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였는데, 최종 제출 전 마침 교내에서 진행한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당 자소서를 첨삭 받았을 때, 현재 작성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기승전결이 없이 마구잡이 형식으로 쓰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소서 전체를 재작성 하였고, 이후 다른 기업 자소서 작성 시에도 해당 유의점을 반영하여 작성한 결과 높은 서류 합격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졸업 후 취업보다는 대학원을 가고자 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취

업의 전선으로 돌아서게 되어 사전에 준비된 부분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졸업하기 1년 전부터 원하는 진로를 사전에 정하고, 그 분야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기본적인 부분을 사전에 준비한다면, 취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개인적으로 학점 부분에 대해서는 학점이 3.5 이상이면 취업을 준비하는데 크게 걱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학점이 3.5 이상인 경우에 면접에서도 학점에 대한 질문 등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학점이 3.5가 되지 않더라도, 낮은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학점 대신에 본인이 진행한 경험, 그로 인해 얻은 부분이 나,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격증의 경우에는 공기업, 공무원 등을 준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무에 연관된 자격증을 취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많지는 않지만 AUTO CAD, 한국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면접에서 면접관님들이 관심을 보인 자격증은 직무와 연관된 AUTO CAD 부분이었으며, 오히려 직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증을 굳이 취득을 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은 경우도 있어,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어학능력의 경우 높을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항목이 아니기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원한 업무가 글로벌 업무로 어학적 역량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토익, 토스 등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해당 부분에 많은 시간적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평균 이상이 된다면 다른 업무 연관성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경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턴 등을 지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 실습이더라도, 방학 때 신청을 해서 많이 하는 것이 좋으며, 면접 등에서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연관성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취업 준비 6개월 간 기본 진행 항목]

- 1) 16.12월 ~ 17.6월 까지 매일 아침 가고자 하는 기업 및 업종 기사 스크랩
- 2) 미리 준비하는 인적성 공부 : 해당 기업의 인적성은 서류가 합격 하고 진행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쉰 기업의 인적성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GSAT는 자소서 작성과 더불어 실시
- 3) 기본적인 면접 스테디 준비 : 해당 기업관련 면접스터디가 아닌, 기본적으로 면접에 대한 압박감과 순발력 증진을 위한 면접 스테디 실시(자소서 작성 시작부터 면접 완료 까지 주 1회 실시)
- 4) 직무 연관 자격증 취득 :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 검색 후 단기간에 가능한 AUTO CAD 공부 후 자격증 취득(높은 급수의 자격증도 아니고 사설 자격증이더라도,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으로 선택)
- 5) 자소서 첨삭 : 본인이 쓴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기

[취업 본격 준비 기간 진행]

- 1) 자소서 작성 : 다수의 기업의 작성이 아닌 원하는 기업에 집중

- 2) 인적성 준비 : 대기업의 인적성은 1주일 간격 이루어지기에, 기본적으로 준비하던 GSAT은 자소서 작성부터 꾸준히 실시하였고, 해당 기업 진행 1주일간 해당 기업 준비 실시
- 3) 면접 준비 : 인적성에 합격한 회사에 한해 해당 기업 면접 스터디 추가로 가입 후 기본 면접 스터디 외 추가 진행 실시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취업준비를 6개월 준비하면서, 엄청 긴 취업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준비 하는 내내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서류 및 인적성 합격/불합격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일로 인해 본인이 준비하는 페이스를 잃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선택을 먼저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조선해양 자율운항연구실(기계공학부)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학부(3.6)/ 석사(4.5)	영어점수	820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취업캠프(2016년도), PNU학습동아리(2017년도)		
자격증	일반기계기사		
수상경험	대한기계학회 우수논문상 / 한국전산역학회 최우수포스터상		
봉사활동	지역사랑 기장 멘토링(2015년도)		
동아리	학과동아리 로보테크, PNU 학습동아리(공모전)		
인턴십	현장실습(2016년도)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현재 현대중공업이 사명을 변경한 연구 중심의 그룹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조선업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뿐만 아니라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 현대오일뱅크 등 현대중공업그룹 내에 필요한 선행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기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에서 쏟아져 나오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 데이터를 창출하고, AI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엔진을 만드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면서, 제조업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박 및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엔진을 더욱 똑똑하게 만들기 위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능화하여 자율 운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조선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점 값싼 기술이 아닌 고부가가치의 선박을 통하여 최근 수주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의 핵심인 지능형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고민하고 적용하기까지 제 손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큰 가치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사물에 적용되는 모습이 아직까진 신기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미래 기술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취업 당시 LG화학 차량전지사업본부와 현대중공업 엔진연구소에 최종 합격하였으며, 최종 합격 후 4개월의 시간동안의 고민 끝에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4개월 동안 현대중공업이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회사 중 조선업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주변 사람의 만류가 있었으나 한국조선해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석사 과정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것과 동시에 운항 빅 데이터를 다루어 왔던 연봉적인 측면보다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는 기업에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기업의 입사는 취업 성공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과거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탄탄한 기계 기술과 한국조선해

양이 가진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았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조선해양의 연구원이 되어 기술을 함께 이루어갈 때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총 6년 동안 부산대학교에 다니면서 거점중학교육성사업 대학생 멘토링, 취업캠프, 집단검사, 학습 동아리 등 교내 프로그램 참여를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는 전공 적합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PNU 학습동아리를 통하여 공모전을 수행했던 내용과 집단검사에서 이루어진 나의 성격적인 특징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어 면접관에게 자기소개서가 인상 깊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취업 상담입니다. 무더기식의 스펙을 쌓아놓고 다듬을 줄 몰랐으나, 반복적인 취업 상담을 통하여 자기소개서 솔루션에서부터 면접 준비까지 취업전략과에 계신 원미경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에 대한 면접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에게 멘탈 관리까지 받았습니다. 힘든 취업 준비를 내 일처럼 고민해주시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취업 상담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합격 당시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시던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스펙 한 줄 보다는 실패해서 얻은 내 경험을 정리하기]

번번한 공모전 입상 경력이 없었던 저는 공모전 동아리라는 목적 지향적인 동아리를 만들면서까지 자기소개서에 스펙 한 줄 더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모전으로 입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대외 활동 및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이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채용 시장이 익숙해질 때쯤에는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고 실패한 이유를 생각하며 성공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자기소개서 사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던 내용들을 취업 준비 시 글로 옮겨가며 정리한 것들이 실제로 면접에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한 줄의 스펙보다는 실제 내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잘 정리하면서 성장해가는 것이 면접관에게 더욱 잘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원하는 직군에서 요구하는 스펙 쌓기]

연구직을 희망했던 저는 줄곧 기업 연구 개발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공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대학교 4학년 때 기사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한국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스펙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토익과 토익스피킹 등 스펙을 쌓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기업 연구직은 대부분 경력직으로 이루어지며, 대기업 연구직은 기사자격증은 아주

작은 부분으로 어필되며 한국사 1급은 무관하여 자격증란에 작성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연구직에서는 대부분의 논문이나 최신 기술 자료가 영어로 이루어지다보니 높은 어학점수가 채용시장에서 어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 직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스펙을 쌓다보니 공부와 시간은 많이 들었으나, 실질적으로 취업 시장에서 합격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지 않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을 똑똑한 후배들은 자신의 경력과 직군에 맞는 스펙을 분별하여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자기소개서 작성 팁 : 질문에 대한 답변하기와 의도 파악하기]

학부 인턴에서부터 현재 서류 합격률이 오르기까지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 했던 실수는 나의 경험을 내세우는 것에 급급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정말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해야합니다. 다른 회사가 아닌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와 우리 회사의 차별성을 알고, 본인과 우리 회사가 적합한 타당한 이유를 내 경험에 찾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하기 위한 한 가지 팁은 질문을 그대로 답변 칸에 옮겨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과 이를 통해 무엇을 성취 할 수 있었는지 기술하십시오"라는 질문 란이 있다면, 답변 란의 주제는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인 경험은 ooo입니다."라는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고치다보면 본 주제에 멀어지게 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주제에서 벗어나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팁 2 : 읽기 쉬운 글 작성하기]

자신의 전공 적합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보면 전문 용어가 등장하고, 경험이 어렵게 나열되기도 합니다. 몇 천명, 몇 만명이 되는 자기소개서가 물 밑 듯이 밀려가는 자기소개서 속에서 내 자기소개서 읽히려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 쉬운 글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헤드라인은 한 줄 미만으로 작성했으며 헤드라인에 대한 부연 설명 문단과 근거를 두 문단으로 작성하여 자기 소개서의 글의 구조가 얼핏 봐도 들어오게끔 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공자, 비전공자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비전공자가 읽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대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분위기, 준비요령 등(필수)]

연구직의 경우, 대부분이 1차 면접은 PT면접과 인사팀 위주의 인성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PT면접의 경우 관련 연구나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직접 한 역할은 무엇인지와 우리회사에서 관련 연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밝으나, 아주 꼼꼼하게 질문하기 때문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처럼 꼼꼼하게 정리해두는 것

이 좋으며, 본인의 연구 분야를 아주 깊게 아는 사람과 아주 모르는 사람이 함께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해야하며,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야합니다. 예상 질문을 준비하면, 대체로 자신의 예상 질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사팀의 인성면접은 연구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주로 질문 받았으며,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빠지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빅 데이터 분석 연구를 주로 수행해오던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저의 생각과 회사가 나아가야할 길, 그리고 그 속에서의 저의 역할들을 글로 정리해두면서 면접을 주로 준비했으며, 면접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입사 한지 1년입니다. 1년 전, 기계관에서 넉터를 가로질러 효원관에서 취업 상담을 받을 때 지나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대학원을 포함하여 6년의 시간동안 부산대학교를 다니면서 수업, 조별 프로젝트,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지도 교수님을 비롯하여 저에게 배움을 주신 교수님들, 함께 공부했던 학우들, 조교님, 직원분들께 많은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취업준비생 시절 굉장히 막막했지만, 여러 가지 학교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가며 부담을 덜어왔고, 학교는 언제나 도와주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입사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 사태로 채용이 줄어들고, 활기 넘치던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는 일도 학교 행사를 통해 추억을 쌓는 것도, 특히나 어려웠던 취업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취업 수기를 또 다른 학우들이 작성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들을 언젠가 기억하며 회상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메모리공정개발팀(기계공학부)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7	영어점수	TOEIC 780 / TOEIC Speaking Lv.6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ACE 사업 <창의미래설계 디딤돌 사업>		
자격증	한국사 1급 / 한자자격증 2급		
수상경험	ACE 사업 학생연구 분야 부산대학교 총장상(최우수상)		
인턴십	LG디스플레이 산학장학생 인턴 2개월 (기구설계 직무)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메모리공정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DRAM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제품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는 일을 합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서 PHOTO 공정을 담당하고 있고, 반도체 특성상 매우 다양한 전공이 존재하지만 전공을 살리는 것은 조금 힘든 편입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입사 전에 반도체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에서 인턴생활을 하다가 디스플레이/반도체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반도체 업종이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직할 때는 반도체 호황이어서 채용도 많고 연봉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이클이 끝나서 그렇게 성과급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는 미래에도 꾸준히 필요한 분야라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화성인데 근처 인프라가 좋아서 위치가 괜찮습니다. 자율출퇴근의 만족도가 높고 밥이 맛있는데다가 문화도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인턴 경험입니다. 면접 때도 인턴 생활에 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검증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학교/학과 공지에 나오는 산학장학생이나 인턴 모집은 무조건 지원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3학년 때 교내에서 실시한 학생연구 공모전에서 입상한 적이 있는데, 이 경험이 인턴과 회사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저는 연봉을 기준으로 회사를 정했습니다. 처음 입사한 회사는 하이닉스였는데 1년 다니고 삼성전자로 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반도체에 대해 접하게 되었는데, 몇몇 직군을 제외

하면 전공을 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 했습니다.

자신의 전공에 애착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업종을 잘 골라야합니다. 도중에 회의감을 느끼고 관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신이 중요시하는 것을 잘 고려하여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처럼 24시간 가동되는 사업은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니 참고하세요.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학점이 1순위, 인턴경험 2순위, 대외경험 3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학점은 성실함의 지표입니다. 인턴 경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정말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외경험은 교내에서도 많은 공모전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하나 정도는 해두는 게 좋습니다.

공대 기준으로 자격증은 공기업 말고는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학도 평범한 수준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커트라인은 꼭 맞춰야합니다.(삼성기준 토익스피킹 Lv.5~6) 오히려 취업 후에 어학이 더욱 필요해지는 느낌이어서 어학은 잘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서류 작성]

서류 작성할 때 두괄식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제부터 말하고 관련내용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배경을 자기소개서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냥 대학교 때 사건 위주로 쓰세요.

인적성시험은 회사별로 문제를 찍으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국어가 약한데다 긴장해서 문제를 많이 풀지 못 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럴 땐 찍으면 안 되는 회사라도 차라리 찍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일정이상 못 풀면 어차피 과락이니깐요.

[전공면접]

면접 질문 관련 내용은 취업전력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051-510-3709)

[인성면접]

처음에 자기소개 필수입니다. 주로 자기소개서 위주의 질문을 받았는데, 50% 이상은 인턴 경험에 대해서 질문 받았습니다. 제일 곤란했던 질문은 다른 회사 지원했냐는 질문이었는데, 솔직하게 면접보고 왔다고 말하니까 "두 군데 전부 합격할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패널티는 전혀 없어요." 라고 말씀 해주셨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긴장도 덜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3학년 때부터 산학장학생, 수시채용 등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만큼 나중에 여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산학장학 인턴과 교내 공모전 수상 경력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학과 공지사항을 보다가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기회가 꽤 많으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채용시장이 얼어붙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라 생각됩니다.. 열심히 노력

하시는 여러분, 모두 파이팅 입니다!

삼성전기 컴포넌트솔루션사업부(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4.01	영어점수	TOEIC(875) / TOEIC SPEAKING(6)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취업전략과 프로그램 (2019년) 현장실습 프로그램 (2018년 겨울계절, 2019년 여름계절)		
자격증	화학분석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 1급, MOS		
해외경험	국외교류 교환학생 (2018년 1학기)		
봉사활동	기장희망꿈나무 멘토링, H-점프스쿨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삼성전기는 전자부품 제조업에 속하는 회사로, 유전체 커패시터인 MLCC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개발 직무로 지원하여 입사하였으며, 현재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직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실험품을 진행시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이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해결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기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근무 환경입니다. 집과 멀지 않은 부산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또한 사내 직장인들의 워라벨, 여성 직장인들에 대한 배려 등 수평적인 회사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회사라고 느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4학년동안 참여했었던 다수의 취업전략과 프로그램들은, 처음 취업 준비를 하던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채용설명회부터 자기소개서, 필기 시험 준비, 그리고 면접 준비까지 취업전략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의 필기 시험이나 모의 면접과 같은 프로그램은, 실제 시험장이나 면접장을 가보지 않았던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처음 4학년이 되었을 때, 취업 준비를 어떻게 시작할지조차도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공기업, 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어떤 기업에 지원할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은 기업의 채용 공고 그리고 취업 관련 문서들을 정독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기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업의 채용 공고 시즌이 언제인지를 꼼꼼히 메모해 두었습니다. 4학년 1학기에는 다수의 인턴 공고에 지원서를 제출해보면서, 취업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표로 하는 기업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저는 주로 방학을 이용하여 자격증이나 어학능력, 그리고 현장실습 참여 등 스펙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점 관리에 집중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방학 기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현장실습, 인턴십 등)에 지원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취업 후 느낀 점은 학점이나 자격증, 어학점수는 부가적인 것들일 뿐, 취업을 좌지우지하는 항목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고득점만을 취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목표를 만들어 달성하면서, 자신만의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는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읽어보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항상 첫 문단에 제시를 하고, 미사여구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들여다보면, 요구하는 문항들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들을 키워드로 생각해 놓고, 알맞은 문항에 적용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기 전형]

저는 단기간에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을 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업마다 문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참고서를 모두 구매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실전 문제를 꾸준히 풀고, 이에 더해 부족한 영역은 추가적으로 보충하였습니다.

[면접 전형]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면접 스터디와 모의 면접 프로그램 참여였습니다. 면접 스터디를 통해 많은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실전 면접에서 많이 당황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취업이 어렵다는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종종 자신감을 잃곤 했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언제 끝날지 모를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함보다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LG MMA 생산직무(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8	영어점수	토스 6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 특강(2018년), 대학생 CAP+(2018년), 수리온취업동아리(2019년), 선배와손잡기(2019년), 대기업 취업특화 프로그램(2019년)		
동아리	취업동아리, 축구동아리, 학생회		
인턴십	MCNS 인턴(2019 7~9월)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19년 11월에 입사해 현재 LG MMA MMA 생산1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LG MMA는 각종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LG화학, 일본 스미토모화학, 일본촉매의 합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직무는 MMA 1공장에서 발생하는 공정상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을 이해를 기반으로 Trouble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들을 관리하고 작업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 업무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한 현장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해야한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생산팀에 근무하시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한 서로 이해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고분자 및 다양한 유기소재에 대해서 공부하고 취업 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MCNS 공정혁신팀 폴리우레탄을 제조하는 화학공장에서 인턴을 통해서 현장을 이해하고 공정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현장 교대조분들과 이야기 하면서 생산 관련된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공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입하면서 전문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1, 2학년 때에는 놀기도 놀고 대부분 학과 공부에 전념했었습니다. 이후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해보자는 취지로 3학년 여름방학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두 달 동안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이 안에서 관련 실험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후 취업전략과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특강에 참석하면서 자기소개서의 감을 익혔습니다. 한 번은 자기소개서 강사님께 자기소개서에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메일로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강사님께서 포트폴리오 작성요령이 있는 자료를 보내주셨으며, 그 자료를 기반으로 제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수리온 취업동아리 회장으로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직무, 전공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공유하고 공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과에서 배웠던 수업의 내용들을 요약정리하고, 직무 및 전공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취업준비를 했습니다.

선배와 손잡기를 통해서 현직자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멘토에게 모의면접, 자기소개서 첨삭 등 다양한 취업 관련된 노하우들을 전수받아 MCNS 인턴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모의면접을 통해서 면접 시 태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면접에서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면접관님께서 저에게 맞춰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모의 직무적성검사 및 졸업생의 취업특강을 최대한 많이 참석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했습니다.

취업 관련 된 취업전략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취업전략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수한다면 충분히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여서 실제 취업하는 데에 있어서 면접 시 제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순간들이 모두 시행착오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포기 하지않고 계속해서 서류를 지원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회사에 지원을 했고,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기소개서 특강 및 직무 특강 등에 참석하면서 보는 안목을 넓혔던 게 취업하는 데 유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조금 더 취업을 하는 데 유리 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라도 좋으니 빠르게 하나하나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학점이 높고 자격증이 많으면 취업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펙이 면접을 볼 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학능력 및 자격증이 최소 요건만 맞았습니다.

하지만 스펙의 빈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직무경험을 우선 시 했습니다. 인턴을 통해서 현장에서 배웠던 부분과 이해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면접 시에도 제가 인턴을 통해서 배우고 진행했던 과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 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더욱 더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자기소개서는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20년 9월 하반기를 준비한다면 8월에는 자기소개서의 작성이 완료되고, 이를 서류를 내기 전에 계속해서 첨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삭이 어렵다면 취업전략과에서 첨삭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첨삭을 받는다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입니다.

대기업의 인적성 시험은 삼성의 인적성 시험인 GSAT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다가 해당하는 기업의 인적성 계획이 나오면 그 때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GSAT가 대표적인 교과서 같은 인적성 시험 형태입니다. 또한 기업마다 과목, 시험시간, 유형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질문은 먼저 기본적인 1분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를 준비하고 이후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을 뽑아서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립트는 1회만 만들고 암기하지 않고 흐름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응용력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면접 기본 질문들을 뽑아서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기업마다 면접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 해당하는 면접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전공 PT, 인성, 영어 등 다양한 면접에 대해서 유형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면접장에 항상 일찍 도착해서 면접장의 분위기에 최대한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면접장에 도착하게 되면 여유도 없을뿐더러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면접장에 빨리와서 면접장도 좋고 회사 주변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면접 시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최종 합격했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지금 회사에 와서 일을 하면서 입사도 중요하지만, 입사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않고 회사생활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스트레스트도 받겠지만 최대한 행복하게 취업준비하시고 모두 취뽀하시길 기원드립니다.

SK하이닉스 양산기술(재료공학부)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4.29	영어점수	Lv.6(토익스피킹)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스마일프로젝트 현지파견(2019년), 대기업취업특화프로그램(2020년), 효원튜터링(2020년), 부산대와 함께하는 금정지역 멘토링(2017년), Buddy 프로그램(2016년), 탄자니아 교육봉사활동(2020년), 한국어도우미(2018년), 중국 하얼빈 공업대학교 단기파견(2018년),		
수상경험	로봇게임창작경진대회 대상		
해외경험	모로코 공학봉사활동, 탄자니아 교육봉사활동, 중국 하얼빈공업대학교 단기파견		
봉사활동	313시간		
동아리	독서토론동아리, 골프동아리, BEEBOY 로봇동아리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종합 회사로 저는 반도체 양산기술 직무로 지원하였습니다. 양산기술은 반도체 공정을 담당합니다. 즉, 반도체가 최고의 수율로 양산될 수 있도록 생산 공정을 구현하는 업무입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관련 분야에서 성장률도 최고일 뿐 아니라, 구성원 행복을 강조하는 기업이라 제 성향과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팀의 분위기를 중요시하게 생각했거든요! 팀의 분위기가 결국 팀의 성과와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양산기술 직무를 지원한 이유는 저희 과는 크게 철강, 세라믹, 반도체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반도체가 가장 흥미있었고, 특히 반도체 공정 과목이 재밌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3학년 때까지는 취업에 관련한 정보가 없었기도 했고, 아직은 취업이 먼 얘기인거 같아서 스펙을 쌓지 않았어요. 대신 학점관리는 철저히 했죠! 그때까지는 취업과 대학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학점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그 후 학점관리만 했어서 저의 학교 생활이 너무 단조로운 것 같기도 하고 학생일 때만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고 싶어서 하나 둘 씩 대외활동을 찾아서 했습니다. 스펙 쌓는다는 목적보다는 정말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처음에는 3학년 여름방학 때 중국 하얼빈 공업대학교에 단기파견으로 갔어요. 중국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외국어가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귀국하자마자 영어 스터디를 찾았고, '부산학생통역협회'에 가입했어요. 이런 식으로 남들이 하기

때문에 따라 한다가 보다는 그때그때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배우고 싶은 분야에 도전했고, 결국엔 이런 도전으로 쌓인 스펙이 자기소개서 적을 때나 면접에서 저를 어필할 때 확실히 도움 되었습니다.

학년	활동내역
1	Buddy 프로그램, 골프동아리(팀장)
2	부산대와 함께하는 금정지역 멘토링, 독서토론동아리(회장)
3	중국 하얼빈공업대학교 단기파견, 부산학생통역협회, 모로코 공학봉사활동, 학부연구생, 한국어도우미, EU 인턴
4	탄자니아 교육봉사활동, 효원튜터링(튜터), 대기업취업특화프로그램, 로봇동아리, 로봇게임창작경진대회(대상)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저는 취업 관련해서 정말 아무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도 채용공고 뜨고 시작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취업한 선배가 있다면 저학년 때부터 미리 정보를 얻어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해가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도 미리 작성해서 취업전략과에서 제공하는 자기소개서 첨삭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적성도 정말 늦게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것도 미리 스터디나 혼자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활동과 관련해서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다른 지원자와 비교했을 때 저는 대외활동을 꽤 많이 한 측에 속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대외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외활동을 무차별적으로 많이 하다가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듯해요.

또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직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저는 주변에 SK하이닉스에 다니시는 선배가 없었는데 취업전략과에서 제공해주는 모의면접에서 SK하이닉스 현직자 선배님께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물어보면서 직무에 대해서 알아갔어요.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저는 다양한 사람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스펙이 쌓아졌어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도전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스펙이 쌓아지는 것 같아요. 남들 따라 한 스펙은 '이거 왜 했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서 도전하다보면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점은 정말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활동하면서도 학점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결국엔 대외활동도 나름 많으면서도 학점도 꽤 높다보니 면접관분들이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다 잘하는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사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학점수에 대해서는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제가 목표한 점수를 획득한 이후에는 몇 점 더 높이려고 계속 시험을 치기 보다는 그 시간에 다른 대외활동을 했었어요.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1) 서류

자기소개서는 혼자서만 보면 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많이 활용했어요. 자소서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수정할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첨삭을 많이 했어요. 또한 주변 사람 뿐만 아니라 취업전략과에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도 있으니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 필기시험(SKCT)

먼저 저는 필기시험에 많은 시간을 투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시간동안 전략적으로 공부했어요. 문제집 한 권사서 먼저 한 번 짹 풀면서 출제경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봉봉TV'를 많이 봤습니다. 필기시험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풀이 전략 노하우에 대해 엄청 도움 많이 받았어요! 무료이고 짧아서 부담없이 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집에 있는 모의고사를 꼭 시간재고 풀었어요. 필기시험은 물론 다 풀 수 있다면 좋겠지만, SKCT는 특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한 문제에 잡혀있으면 안돼요! 모르는건 빠르게 넘어가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면접

저는 스터디 꾸려서 연습했어요. 다른 기업도 준비하고 있어서 면접스터디 3개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질문 받아보는 경험이 도움 됐습니다. 취업전략과에서 모의면접 프로그램에도 참가했는데 실제 인사팀에 계셨던 강사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 받았어요! 그리고 면접은 정말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으로 무장해서 면접에 임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절대 기죽지 마시고 '앞으로 배워나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대답하시면 좋습니다. SK 면접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압박면접은 없었고, 제가 편하게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인성 면접 질문과 제가 당시에 했던 답변 내용을 간략히 알려드리자면

Q. '학점이 좋은데 대학원은 생각이 없었는지'?

A. 학부 때 매학기 팀프로젝트 과목을 수강할 정도로 팀 프로젝트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Q. '스트레스 관리법'

A. 초등학생 때부터 수영을 좋아했는데 역동적인 활동을 하면서 잡생각을 떨쳐버리는 편입니다.

Q. '희망 부서'

A. 재료공학부 전공과 프로그래밍을 접목시킬 수 있는 임플란타로 희망합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SK는 특이하게 면접 끝나고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면접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자신을 최대한 어필하셔야 해요. 저는 자신감있는 목소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띄면서 면접에 임했더니 '기분이 좋아지는 면접이었다',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은 지원자였다' 등의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직무 면접에서는 OOO 관련한 문제(직무면접 관련 내용은 취업전략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051-510-3709)가 나왔는데, 어렵지 않았고 반도체 공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저는 주어진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온 배경을 같이 설명했

더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EUV가 나온 배경을 RES, DOF와 같이 엮어서 설명하였더니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거는 자신감과 미소입니다! 면접 연습하실 때도 항상 자신감과 미소 기억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정말 취업관련 정보도 거의 없었고, 상대적으로 늦게 준비했지만, 취업 첫 도전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비록 처음 준비하실 때는 뭐부터 준비해야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다보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제가 산증인입니다!! 끝까지 본인을 믿고 자신감있게 하시면 취뽀하실거예요! 부산대 학우님들 화이팅입니다!

현대글로벌서비스 마린서비스부(조선해양공학과)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66/4.5	영어점수	토익850, 토스LEVEL6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CK-1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2016년, 2017년) 효원튜터링 (2016년, 2018년) PNU학습동아리 (2017년) TPC(Test Preparation Course)외국어특강 위탁 프로그램 (2017년) 교육청 다문화 및 탈북학생 멘토링 (2017년) 외국인 학생 튜터링 프로그램 (2018년도) PNU Buddy프로그램 (2018년도) * 그 외 참가신청서에 작성된 '취업전략과'프로그램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국사능력검정 1급		
수상경험	ACE 2016 부산대학교 e-Portfolio 경진대회 금상 (2016-11-04) Human and Solar Powered Vessel Festival 2015, 2016년 총 6번 수상 - 해미르 동아리 단체 상		
해외경험	2016년 동계 단기파견(영어연수)		
봉사활동	부산대학교 언어교환도우미 (2015-12-28~2016-01-02) 총12시간 효원튜터링 (2016-09-05~2016-12-07) 총30시간 교육청 다문화 및 탈북학생 멘토링 (2017-04-01~2017-08-31) 총80시간 교육청 다문화 및 탈북학생 멘토링 (2017-09-01~2018-01-31) 총100시간		
동아리	해미르(인력선 설계 및 제작 학과 동아리)		
인턴십	현대글로벌서비스 취업연계형 인턴(2018년8월)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또는 그 외 조선소에서 지어진 선박을 대상으로 고객(선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선박 인도 후 선박을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솔루션 개발,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솔루션 제공 등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잠재적인 고객들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선박 무상 AS를 하고 있으며, 선박 인도 후 1-2년 혹은 평생 동안 고객(선주)으로부터 제품(선박)에 대한 Feedback, Claim, 문의를 듣고 개선/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조선해양공학과에 진학을 하고 공부를 해오면서 조선 산업 분야에 꾸준히 흥미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조선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울산, 거제도가 아닌 부산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근무 환경, 접근성, 미래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이라는 생각에 이 회사에 지원 및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스펙으로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내 활동은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것과 단기 해외 어학연수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조선분야는 직무관련 경험을 쌓기가 난해한데 '해미르'라는 과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직접 선박을 제작해보고 실무에서 쓰이는 단어도 접해보았던 것이 취업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TOEIC, OPIC 등 영어점수도 중요하지만 영어권 나라의 문화, 즉흥적이고 실무적인 외국어능력이 면접을 볼 때 중요하기에 학교의 도움을 받아 단기 해외 어학연수를 경험한 것이 취업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펙 외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교내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산지역 국립대학 취업, 진로, 창업 한마당 박람회' 참여를 통해 실제 회사 근무자들을 만나 회사에 대해 설명/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면접 speech 강화 집단상담'을 통해 무료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첨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자기소개서를 처음 작성할 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몇 날 며칠 혼자서 끙끙 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자서 여러 번 수정을 해 보아도 자기소개서는 정답이 없다보니 불안함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각자의 일로 바쁘겠지만 주변 선배 분들과 교수님들께 조심스럽게 조언을 구하고, 취업전략과의 선생님께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첨삭해 준 자기소개서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불안함을 해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면접준비 또한 혼자서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보고 Feedback을 들어보고 수정 보완을 거치는 작업을 혼자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선배님들과 취업전략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혼자서 책을 통해 공부를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처음 취업준비를 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꼭 혼자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라고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기업에서 학점을 성실함의 지표로 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점관리는 1학년 입학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꾸준히 관리해야 할 항목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필수전공은 학년별 프로세스를 최대한 지킬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번 놓쳐서 계속 시간표가 다른 수업과 겹친다면 계절수업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과목이기에 과목하나 때문에 5학년을 해야 할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양이나 일반선택 등은 저학년 때 많이 들어두어 4학년 때 학점관리보다는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인 것 같습니다.

영어성적과 자격증의 경우, 2년 이내의 것만을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라면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영어 성적과 함께 한국사자격증과 기사시험, NCS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기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라면 더 긴 시간을 두고 자격

증보다는 최대한 영어성적을 높게, 제2외국어성적이 있으면 좋고, 대내외 활동을 많이, 인턴이나 직무관련 경험을 많이 해 두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무작위의 주제보다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있고 내용이 알찬 활동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이나 봉사활동기록서, 확인서 같은 서류들은 그때그때 스캔 또는 사진으로 기록해두면 취업 준비 할 때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기업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분석을 먼저하고 방향에 맞게 작성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20년 넘도록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주제별로 어떤 활동을 했으며, 하게 된 계기와 결과, 그로 인해 변화된 점 또는 느낀점 등을 정리해 두면 자기소개서 작성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준비해야 될 면접 질문은 1분 자기소개, 회사지원이유, 직무지원이유, 앞으로의 포부 이정도 일 듯 싶습니다. 답변은 두괄식으로, 설명은 간략하게 핵심만, 말끝은 흐리지 않고, 면접관의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거나 잘 모를 때는 모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어필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사전에 어떤 사람이 면접관으로 들어오는지 파악을 해두면 면접 준비 방향성을 잡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사장이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온다면 사진을 앞에 두고 면접 준비를 해보는 것도 익숙함을 이용한 나름의 전략일 것입니다. 면접당일은 회사에 들어가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좋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본인이 예상한 모의질문들에 답변을 생각해본 후 녹음, 녹화하여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긴장하면 하게 되는 행동도 직접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면접을 통해 면접관의 입장도 되어보고 다른 사람의 답변 중 마음에 드는 문구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모방하여 본인의 답변을 수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입사한지 어연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입사만 하면 마냥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돈을 내고 다니는 곳이 아닌 돈을 벌기위해 다니는 곳이라 그런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과 함께 힘들고 외로울 때도 많은 곳이 사회인 듯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많이 도전해보시고 수많은 상황에 부딪혀보시고 하루하루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다보면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운명이 닿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하고 훌훌털고 본인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에 집중하여 스스로를 믿고 정직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꿈꾸던 회사의 구성원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DS CCSS파트(환경공학전공)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4.3	영어점수	토익스피킹 Lv.6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수리온취업동아리(2017), 여대생 Career Frontier(2017), 여대생 취업역량개발 프로그램(2017), 면접교육(2017), 여대생 취업역량개발 프로그램(2018), 수리온 취업캠프(2018), 대기업 취업특화 프로그램(2019)		
자격증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산업안전기사, 화공기사, 한국사2급		
동아리	과내 동아리		
인턴십	교내 실습 경험 3회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제가 합격한 회사, 담당하는 직무 그리고 근무하면서 느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입사한 회사는 국내 대표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 DS부문입니다. 꽤 많은 분들은 'DS는 뭐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생산 제품에 따라 크게 CE, IM, DS 3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CE는 가전 제품, IM은 모바일 제품, 그리고 DS는 반도체, 약자는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온답니다.) 만드는 제품에 따라 각기 다른 회사 조직도, 경쟁사/고객대상,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마트폰의 A사는 CE에게는 경쟁사이지만, DS는 경우에 따라 고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CE/IM과 DS가 나뉘어 공채도 개별적으로 운영됩니다. 삼성전자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회사의 특성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부터 고르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DS는 종합반도체제조 회사로서 다양한 Device Solution 제공을 위해 여러 사업부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의 소속 사업부인 글로벌인프라총괄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제반 시설 및 기술 즉, 기초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기, 물, 전기, 화학물질, 건설 기술까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과 역량을 가진 분들이 모입니다.

제가 속한 부서는 많은 인프라 중에서도 화학물질 관리 및 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입이라 부서에서 맡은 업무보다는 소속 부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반도체 생산에는 반도체에 직접 들어가는약품 외에도 제조 과정 자체에서 사용되는약품들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러한 화학약품의 순도 및 특성과약품 입고부터 공정에서 공급되기 전까지 필요한 설비 및 배관을 관리합니다. 단순히 화학물질 및 설비 관리를 넘어서 관리 필요한 설비 기획, 투자 및 운영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사하고 느낀 점은 '내 생각과 많이 다르구나'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사 전 회사에 대한 상상이나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오면 업무적인 부분부터 상상과는 다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일단 저만 해도 제가 생각한 직무와 다른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현재 부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예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상황과 마주할 수 있는 곳이 회사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기 보다는 주어진 상황에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고, 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회사 입사 지원을 선택한 결정적인 계기는 교내 캠퍼스 리쿠르팅이었습니다. 그 때 저는 입사 지원의 두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측면에서 취업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사의 전망을 비추어 볼 때, 채용 규모는 늘어날 것이고 당연히 취업의 가능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타사와 다른 직무 특성이 있었고,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환경 관련 직무에는 설비 및 공정과 관련된 직무와 법/규제 대응 업무 등이 있는데, 아예 독립된 두 개의 부서가 각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법/규제 대응보다는 설비 및 공정에 좀 더 집중하고 싶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저와 잘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 중 가장 좋았던 것은 현장 실습입니다. 작게나마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과 많은 사람과 회사 생활을 접한다는 것도 큰 메리트였습니다.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하다보면 이력서 한 줄, 자소서 소재 하나하나가 큰 위안이 됩니다. 직무 경험은 아주 훌륭한 소재로 다들 인턴 경험은 꼭 하고 싶어하죠. 요즘은 인턴 자리도 따내기 힘들어서, 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실습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습니다. 잘 찾으면 제법 기간이 긴 인턴도 할 수 있고, 월급도 꽤 쓸쓸하게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무와 관련된 회사와 매칭되면, 이론으로 들었던 내용을 실제 현업에서 만날 수 있으니 배울 점도 많습니다.

또한, 사회 생활은 취업에 간접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 생활하고, 공적인 집단에 소속되어 그 곳의 문화에 어우러지는 것은 회사 생활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임원 면접에서는 업무 능력뿐 아니라 집단에 잘 어울릴 수 있는가도 보니까요! 저 역시 실습을 통해 많은 사람 앞에서도 저를 표현하고, 상호간에 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혔습니다. 덕분에 스스로 면접 스터디를 만들어 운영해보기도 하고, 면접장에서 다른 면접자 분이나 진행 요원과도 대화하면서 면접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세는 면접에서도 고스란히 배어나오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시행착오는 면접 준비와 멘탈 관리였습니다.

면접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준비해야했습니다. 처음 면접 기회를 잡은 것은 두 번째 면접 시즌을 준비했을 때입니다. 첫 시즌에서는 인적성에서 전부 탈락해서 면접 준비를 해본 적도 없었고, 당연히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면접 기회를 잡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생각보다 면접 준비를 인적성 합격 후부터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면접 준비는 방학 중간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량적인 것만큼 정성적인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게 멘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면접을 탈락하고 느낀 점은 면접의 중요성보다도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면접 기회가 나에게 다시 올까라는 두려움과 후회가 밀려들어 무기력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취업 준비도 손에 안 잡혀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그냥 될 대로 되란 식으로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었던 걸 해서인지 리프레쉬도 되고, 뭔가를 해내는 성취감 덕분에 다시 도전하고자하는 의욕도 얻었습니다. 덕분에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좀 돌아오기는 했지만 결국 원하는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만 하다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하나 정도는 꾸준히 하면서 멘탈을 관리하는 것은 비단 취업 준비뿐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정신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요즘 말하는 '스펙'은 예전에 말하던 의미보다 범위가 더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정량적인 것'만 말했다면, 요즘은 인성이나 경험과 같은 '정성적인 것'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보는 항목이 더 많고, 정성적인 것은 가시적인 지표가 없어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게 알게 된 자신의 모습과 특성들이 다 정성적인 스펙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쌓으라고 하면 다들 인턴이나 직무 경험을 떠올리는데 오해 없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 아르바이트, 하다못해 여행도 경험이고, 그걸 취업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문제는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했던 경험이나 능력도 회사 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직무에 국한하지 말고, 꼭 여러 가지 경험에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또한, '스펙'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야말로 '부분'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지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자격증 없으면 안되나요? 준비할게 많은데 뭐부터 할까요?"입니다. 자격증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만, 자격증 하나 없이 입사한 동기들도 많습니다. (이는 사기업 기준이고, 자격증 가점에 대부분 지원자가 자격증을 따는 공기업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신 자신이 다른 것을 부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스펙 항목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챙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중간하게 다 가져가려는 것보다 몇 가지만 확실하게 잡는게 좋습니다. 준비는 길지만 결정의 순간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정작 면접에서 다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공부가 좋고 공부할 시간이 된다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사람 만나는 게 좋다면 대외활동에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특히, 시간이 촉박한 분들은 스펙도 선택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1. 기업조사 : 기업 정보는 다다익선이지만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모으면서 스스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려내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정보 수집은 현직자, 닥트 정기보고서, 회사IR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 자사는 자소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좀 투박하더라도 글은 솔직하고 간결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할 점은 글의 주제 선택입니다. 특히 사회적 이

슈를 묻는 3번 문항은 평타만 쳐도 되니까 민감한 주제(차별, 정치색 등)는 피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전형시 자격증 기입과 성적 수기 기입이 꽤 까다로운 편이니 성적은 중간중간 꼭 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3. 인적성 : 삼성 gsat는 순전히 연습량에 달려있습니다. 기출유형, 실전모의고사, 봉투모의고사 등 본인에게 맞는 유형의 책을 구입하여 꼭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4. 면접 :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임원 면접입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진실된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짓말은 절대 안되고, 모르는거나 약점을 들켜도 솔직히 시인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는게 가장 좋습니다. 더러 최고가 되고 싶다s는 말을 하면 좋게 보시는 면접관도 있습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학우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도 읽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업 절벽에서 더한 상황까지 온 것 알고 있습니다. 이미 상황에서 없는 힘까지 쥐어짜내고 있는 사람에게 더 힘내라는 말도 우습죠. 여러분들 노력이 부족한게 아니라 상황이, 운이 여러분의 노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책 같은 건 하지도 말고, 지금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가 힘들 때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인데 여러분께도 위안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다들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하시고,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날 만나길 바랍니다!

LG이노텍 광학솔루션사업부(나노소재공학과)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4.03	영어점수	875(TOEIC Speaking : Level6)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유니브엑스포(2014) 직업선택과 취업준비(2017)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LG이노텍 소개]

본 현직자는 LG이노텍의 광학솔루션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부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고화질의 휴대폰 카메라 모듈과 안면인식을 활용하기 위한 레이저 모듈을 생산합니다.

[현재 담당하는 직무]

대표적인 생산 공장은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현장과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현장에 Guide를 내리는 생산 관리팀이 존재합니다.

저는 본 사업부의 생산 관리팀 소속이며, 주요 업무는 수율 향상을 위한 활동과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존재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실수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무하면서 느낀 점]

매달 월급을 받으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생각보다 분주하고 치열합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에 기여하고 내가 만들어낸 제품들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고객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근무 시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비록 자신이 똑똑하고 유능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논의하고, 고민하는 공간인 회사는 무엇보다 남들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내 의견을 내세우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흥미와 적성, 내게 맞는 기업과 직무인 이유]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들과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제가 생산팀을 선택하게 된 사유도 회사 내에서 타 부서들보다 더욱 현장 사람들과 긴밀하게 지내고 소통하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을 기록하기를 원하고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나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해 인화하거나 컴퓨터에 저장했다면, 지금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휴대폰에 보다 쉽게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사회는 당분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발전 가능성과 저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직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

저는 외향적인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아르바이트를 선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지점(피자헛, 메가박스)과 단기 알바(맥주 페스티벌, 워터파크 홍보, 호텔 뷔페 등)를 경험했습니다.

[전공 관련성]

실질적인 업무는 전공과 깊은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 공부할 때 필요했던 끈기나 집요함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친구들과 함께 했던 스터디처럼 타 부서와 미팅을 하고, 그 사이 학생 때 증명을 하던 것처럼 본인의 논리를 들어 내 의견을 주장하고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이외, 디테일한 동작 과정을 분석할 때 전공 기초지식이 도움됩니다.

[향후 일자리 전망]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이 매년 기능을 추가하고, 과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출시되는 것처럼 회사는 무한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승리하는 것처럼 실수 없는 로봇이 위주가 되어 생산을 하는 세상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에 맞춰 정보화와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빅 데이터나 5G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어떻게 사업에 기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무환경]

현재 직장은 생각보다 일과 사생활의 밸런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여 주어진 일을 처리하고, 가능한 근무 외 시간은 저만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가끔 내가 진행해야 할 프로젝트나 업무가 남았을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야근을 하지만 타 회사보다는 근무 환경이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교내 프로그램 :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

많은 학생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었던 것이 취업 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교수님이 처음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흐름이나 어투를 검토해 주셨고 이때 자기소개서 작성의 기본을 배워 추후 주제 선정이나 내용을 써 내려감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외활동 : 유니브 엑스포 프로그램]

나이/성별 불문하고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 한 팀을 이루고, 주어진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하는 짧은 기간 동안 그들과 소통하고 웃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

습니다. 취업 전이라면 더 많은 대외활동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대외활동은 분명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취업 중 맞닥뜨린 상황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면접이었습니다. 운 좋게 첫 면접을 동기들보다 일찍 보게 되었는데,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는 제 의지는 면접 시작부터 꺾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부터 면접자라는 압박 때문에 면접관들의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후 동기들과 면접스터디를 하면서 예상 질문을 준비하여 서로 얘기해보거나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사전 준비가 잘 되었고 몇 번의 면접을 해보면서 면접관들과 면접자들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내가 주인공처럼 말하고 분위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며 많은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대기업에 입사하기를 소망하는 취업 준비생의 스펙은 현직자의 관점에서 2가지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학점입니다. 머리 길이만 다른 수많은 지원자들을 기업에서 객관적이고 수치적으로 평가할 방법은 높낮음이 명확히 보이는 학점입니다. 학생 때 자격증이나 대/내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학점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학능력입니다. 단 평균 수준의 어학성적이 있다면 문법보다는 자연스러운 영어가 나올 수 있도록 회화를 많이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기업은 외국 고객사를 상대로 미팅하거나 업체와 논의할 자리가 많기 때문에 오고 가는 말 속에 문맥을 파악하고 설명할 줄 아는 능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서류 후기 및 작성 Tip]

취업 준비 당시 자기소개서는 총 8개 정도를 작성하고, 그중 4군데를 합격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Tip은 동기들과 몇 가지 활동을 대학생활 여유시간에 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저의 경우 친한 동기들과 재미 삼아 자동차 만들기 대회를 나가보고, 시험 기간에는 스터디를 함께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 "내가 창의적이라 생각하는 사유"나 "리더십을 발휘해 본 경험 기술"등 작성하기에 스토리가 부족하고 막막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학 동기들과 함께 했던 일들에 살을 덧붙여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간다면 생각보다 쉽고 깔끔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항목에도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교내 프로그램을 활용하라는 점입니다. 저는 수강을 담당해주신 교수님에게 첫 자기소개서를 검토 받고 이후 스스로 수월히 작성하기 전까지는 항상 첨삭을 받았습니다. 첨삭을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문맥도 깔끔해지고 어필하고자 하는 문맥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입니다.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교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실력도 늘리고 결과도 좋을 수 있도록 후배님들을 응원합니다.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분위기, 준비 요령]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저는 항상 자신감이 있었고, 면접만 가면 무조건 합격하리라 했지

만 사실 첫 번째 회사의 면접을 가보니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들과 면접 상황에 대한 많은 연습을 하고 인터넷이나 선배님들을 통해 예상 질문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미래에 본인과 같이 일을 하고 평가할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대게 참석하며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한 자리에서 본인의 지식보다는 사회성과 인간성을 어필하는 것이 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며, 실제 면접관들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입사 후 취업 준비를 하는 동기와 친구들을 위해 면접을 보았던 4가지 회사(H사, H사, S사, L사)의 면접 질문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자기소개와 간단한 영어 질문(가족관계 설명, 회사 설명 등), 지원 동기입니다. 이외 각 회사별 곤란한 질문을 알려드리자면

1. 첫 번째 H사는 "현재 중국의 반덤핑관세로 기업이 어려움을 맞았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나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한 가지 설명하십시오"등의 질문이 곤란했었습니다.
2. 두 번째 H사는 "선배들 중 아무도 자사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지원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나 "운전 중 신호를 받았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시겠습니까? 사유를 말해주세요"입니다.
3. S사는 "특정 판매 제품의 최고 기업이 어디입니까"와 "내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의 기준과 퇴사하고 싶은 회사의 기준"입니다.
4. L사는 "자신의 가치관을 설명하십시오"나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는 각자를 어필하고 마지막 할 말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첫 합격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업 중 합격 문자가 왔고 힘든 시간 제 곁을 지켜준 많은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충분한 돈을 받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해 주십시오. 즐거우나 슬프나 옆에 사람이 없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부디 건승하시고 행운과 좋은 결과가 옆에 있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삼성전기 연구개발(화학과)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87	영어점수	토익 870 / 토익스피킹 level.6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교내] - 선배와 손잡(Job)기 [2018] - 기업체 채용설명회 [2018] - 취업 특강 [2018] - 공기업 NCS 직무적성검사 [2018] - 삼성(GSAT) 직무적성검사 [2018] -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2018] - 취업아카데미 [2018] - 잡아라 취업 PNU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2017] - 부산지역 국립대학 취업,진로,창업 한마당 박람회 [2017] - 부산대와 함께하는 금정지역 멘토링 [2014,2015] [교외] - 부산 특허전략대회 [2018] - 기술평가 체험단 [2018] - 부산시청 취업연수생 [2018]		
자격증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고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KBS 한국어능력시험 3+		
수상경험	서울교통재단에서 주최하는 아이디어공모전 장려상 수상 외 전무		
봉사활동	- 부산대와 함께하는 금정지역 멘토링, - 독거노인 재가방문 봉사 (2015년부터 1년간 대외 봉사동아리 꾸준히 활동함)		
동아리	[교내]부산대학교 합창단 [교외]봉사동아리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회사에 대한 소개]

삼성전기는 핵심 전자부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소재, 다층박막성형, 고주파회로설계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칩부품,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 기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하면 MLCC, 카메라모듈이 떠오르죠. 실제로도 이 2가지가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삼성전기 유튜브나 블로그에 가면 쉽고 재밌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는 직무] 연구개발

[근무하면서 느낀 점]

생각보다 전공 지식이 많이 쓰입니다. 회사에서 특정한 전공을 뽑는다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입사하니 전공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조금 후회가 되기도 했네요.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제 전공을 우대하고, 부산에 위치함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장산업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막상 들어와 보니 왜 해당전공을 우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공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산 사업장 근무환경은 바로 회사 앞에 문화시설이 없다는 것 말고는 통근버스, 사내식당 등 복지가 잘되어있어서 만족합니다. 여자는 부산이 집이라도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어서 주거면에서도 좋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사실 재학생때는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학교프로그램을 듣지 않았습니다. 4학년 졸업할 때가 되어서 취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졸업유예를 하여 학교취업전략과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위 교내프로그램 참여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웬만한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4학년이나 3학년때 미리 들으세요**) 그 중에서 저는 정말 취업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배와 손잡(Job)기**와 **취업 특강입니다.** **선배와 손잡기 프로그램**에서 취업을 한 선배가 직접 자기소개서도 첨삭해주고, 모의면접도 도와주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네요. 또한 **취업특강에서는** 인강으로만 만날 수 있는 1타 강사들이 직접 와서 며칠 동안 집중특강을 해주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들으세요. 이것 덕분에 삼성 인적성 시험에 한 번에 붙은 것 같네요.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학교생활을 다 끝내고, 유예한 상태에서 취업준비를 하니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혼자서 공공됐는데, 학교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멘토를 만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3학년 때부터 미리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기업에 다니는 선배들을 만나면서 취업의 폭을 넓힐 것 같네요. 또한 저같은 경우 관련 인턴경험이 전무했는데, 인턴경험이 1~2달이라도 있는 것이 기업에게 관심을 어필하거나 자기소개서에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면 인턴 혹은 현장실습을 할 것 같네요.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 학점관리 : 고고익선이지만 최소한 3.5는 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면접에서 공격당하지 않는 마지노선)
- 자격증, 어학능력 : 삼성같은 경우는 딱 최소 조건인 영어말하기 자격증만 있어도 된답니다. 잡다한 자격증(저같이 한국사, 한국어 등은)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스펙관리 : 인턴경험이나 현장실습한 경험이 가장 좋은 스펙이 될 것 같고, 사실 별다른 스펙이 없더라도 전공적인 면에서 공부가 잘 되어있다면 면접에서 좋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성면접에서도 학점에대한 것을 물어보거나, 전공적인 지식면을 물어보는 분이 많습니다. (삼성뿐만아니라 타 회사에서도)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 서류 후기 및 작성 Tip(필수) : 잘 아시겠지만 두괄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 키워드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면접관들이 미리 자기소개서를 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미리 안읽고 들어와서 자기소개서를 쪽 훑어보다 그냥 눈에 걸리는 키워드를 보고 질문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질문 받았으면 하는 키워드를 눈에 잘 띄게 자기소개서에 넣어주는 것이 서류합격뿐 아니라 최종면접합격까지 이어지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필기시험 관련 정보 및 준비방법** : 인적성은 최소 2달 전부터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실제시험과 동일한 시간으로 모의고사 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적극 활용하세요.
-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분위기, 준비요령** : 면접에서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 자신의 장점과 단점, 이 활동을 왜했는지, 스트레스 잘 받는 편인지 등 예상면접질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면접질문리스트였습니다. 면접은 들어갈 때 웃으면서 예의바르게 인사하며 최대한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것이 밝은 분위기를 이끌 수 있으며 면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같네요. 또한 면접은 꼭 스터디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단 1번이라도 사람 앞에서 해본 것이라 아닌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틈날 때 마다 가족들 앞에서 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었답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벌써 입사한지 2년이나 됐네요. 부산대생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세요. 그리고 학교에 소속되어있을 때 유료의 외부학원 찾지 마시고, 학교의 프로그램을 똑똑하게 잘 이용해보세요.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STX중공업/삼성중공업(조선해양공학과)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29	영어점수	Opic IH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2017년1학기 기업체 채용설명회27차수(이수) 2017년2학기부산지역 국립대학 취업,진로,창업 한마당 박람회1차수(이수) 2019년2학기 선배와 손잡(Job)기1차수(7기) (우수) 2019년 선배가 들려주는 취업 노하우 특강 강사 2020년1학기 선배와 손잡(Job)기1차수(8기) (진행중)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활용 전문인력양성사업 언어교육원 2017년 여름 계절TPC(Test Preparation Course) 외국어특강 위탁 프로그램(2차수) 2017년2학기FLP(Foreign LanguagePrograms) 외국어 특강 자체 프로그램(1차수) 2017년2학기FLP(Foreign LanguagePrograms) 외국어 특강 자체 프로그램(3차수) 2017년2학기TPC(Test PreparationCourse) 외국어특강 위탁 프로그램(2차수)		
수상경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15년 HSPVF (인력선)		
해외경험	2016년 세계 일주		
동아리	인력선 동아리 해미르 , 축구동아리 바이킹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첫직장 (18.03~19.06)

STX 중공업

선박의 주요 추진 기관인 Main Engine을 제조하는 제조업체 입니다. 덴마크 MAN-ES 사 license를 가지고 Main Engine을 제조, 주로 국내 중형 조선소(STX 조선, 대한, 대선) 및 일부 중국조선소에 Main Engine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당시 담당하던 직무는 국내 대형조선소(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하는 영업 담당자 였습니다. 공학을 전공한 후의 영업 직무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지만, 영업 직무에 근무를 함에서도 공학적인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중형 엔진 제조사에서 대형조선소로 납품을 시작하기는 단계이었기에, 영업단에서의 많은 홍보, 기술 설명회 및 가격적인 Merit 제공등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기본적인 설계적인 내용, 원가 및 견적가 산출 계산, 시장 상황 파악 등 다양한 업무를 폭 넓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선박 발주량 감소에 따른 국내 중소 조선소들의 수주량 감소에 영향을 받아 엔진 수주 물량 감소 및 대형조선소 시장 진입의 어려움 (기존 실적 거래 업체가 있기에 설계 경험 및 단가적인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 License 생산의 한계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영업적으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인 제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중형 엔진 제조사로서 높은 단가로 인하여 일부 소규모 물량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형조선소 시장진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전공(조선해양공학)을 살려, 항상 꿈꿔왔던 조선소 취직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고 영업

담당자 시절 고객사였던 삼성중공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직(19.07 ~ 현재)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조선, 해양 사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입니다. 전 세계가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조선해양 사업에서, 선주로부터 고가의 선박을 미리 주문받아 생산하는 수주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수주/인도, 세계 최대 크기 LNG 선, 세계 최초 에탄운반선 수주 등 여러 실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의장설계팀 기장기기설계파트에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대만 Evergreen 사 23000 TEU) 프로젝트 기장기기 설계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장기기 설계 담당자는 선박의 엔진룸 구역에 배치되는 다양한 기계 장비들의 설계를 담당합니다. 선주와 계약된 사양서에 따라 적합한 장비들의 사양을 점검하고, 장비 발주를 위한 사양서 작성 및 발주 요청, 장비의 상세 배치를 위해 후행 설계 부서와 협업하여 설계를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신규 장비 업체에 대한 Audit 및 업체 방문, 시운전 탑승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선박에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은 설계 담당자가 빠질 수 없는 일이기에, 전사적으로 설계인력에게 많은 초점을 맞추어 많은 지식과 경험을 요하고 있으며 핵심부서라고 가히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설계인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매일을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량이 감소하여, 수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영상황 악화로 연결되고 있으나, 향후 카타르 LNG선 (100척 수준), 모잠비크 LNG선 등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가 예상되고 있기에 현 상황이 개선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일을 알아가는 삶을 살며 쌓아가는 그 지식을 무기로 삼아 세계 각지의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선박을 지을 수 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2009년 ~ 2010년 경 한국 조선해양산업이 최고점을 찍고 있을 때, 당시 대형 조선소들의 신문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 신문광고는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며 멋지게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만드는 세계 최고의 선박들이었습니다. 그 때 그 장엄한 모습에 세계 최고의 선박을 짓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고, 조선해양공학을 전공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으며, 모교의 조선해양공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학 후 지속적인 선박 발주 감소 추세로 업계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조선 3사에서는 채용이 약 3년간 중지 될 정도 였으며, 그로 인해 많은 선배, 동기, 후배들이 조선업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조선업에 종사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중형엔진사부터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약 1년 반의 경력을 쌓은 후, 재차 국내 대형 조선소의 채용이 시작 될 때 신입사원으로서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삼성중공업을 선택한 것은 세계 최고의 선박을 짓겠다는 제 꿈에 대한 확고함을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내 꿈은 틀리지 않았음을 언젠가는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조선소에서 기장기기설계 직무로 근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설계자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다릅니다. 늘 새로운 기술 검토에 앞장서기에 진취적인 업무 특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한 수많은 인력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이 외향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인 성격과 적합하였습니다. 이에 입사 후 부서배치과정에서 내가 기장기기설계로 가야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드러내어 해당 부서에 배치받고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1~3학년 동안은 두드러지게 취업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학성적조차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3학년 이후 휴학 후 세계일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복학 후 어려워진 조선경기로 인하여 대형조선소가 채용을 하지 않았으므로, 창업을 할지 취직을 할지 잠깐 고민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조선업계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4학년 때 취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첫 단계는 자소서 작성이었습니다. 자소서 작성을 통하여 본격적인 취업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취업준비기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자소서 첨삭과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활용 전문인력양성사업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무스펙이라고 생각하며 처음 써본 중구난방적인 자소서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본 자소서 소스들을 확보한 뒤에 기업별 특성에 맞추어 재편집하여 기업별로 다르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활용 전문인력양성사업의 경우 현업에서 퇴직하신 선배님들이 학교로 직접오셔서 자소서 첨삭 및 면접 시뮬레이션들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임원으로 지내신 분들도 계셨기에 기업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면접상황에서 자기 PR 로 활용하였습니다. 약점도 강점으로 살리는 대화법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어학 준비에 관해, 취업을 위한 수많은 학원 광고들을 돈을 벌기 위한 상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흔한 토익학원마저도 저에게는 불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토익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이 있을 것이며 필요없는 취업준비생도 있습니다. 보통 취업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다하니깐' 혹은 불안감에 우선 토익학원부터 등록하는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필요한 스펙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취업을 위하여 토익에 응시한 적이 없습니다. 최신 어학 시험 트렌드에 맞추어 Opic 시험을 준비하였으며 그 또한 대학에서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거나 무료인 것도 많았습니다. 방학과 학기 중에는 TPC 센터의 오픽강의를 들었으며, 언어교육원에서 중국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의 취직 준비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4학년 재학 중, 단 1년동안 얻은 것들입니다.

물론 취직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에 후배 여러분은 1~4학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교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개인의 성장을 이루셔서 원하는 기업에서 근무하시길 염원합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중형엔진사에서 근무하며 대형조선소로 이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후, 국내 대형조선소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중형엔진사의 영업직무 경력을 살려 조선 영업직무로 지원하였으나, 삼성중공업(서류탈락)과 대우조선해양(최종면접탈락)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다시 삼성중공업의 설계 직무으로 다시 지원해보며 영업직무에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분석을 해보니, 대형 조선소의 영업직무는 대부분 영어영문과나 해외대학 출신 즉, 언어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한 인재를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하게되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직무가 있어도, 그 기업에서 해당 직무에 대한 선호하는 인재상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는 이상 합격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문제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영업 직무 근무 경력은 잠시 접어두고 본 전공인 설계&기술 직군으로 지원하니 한 번에 합격 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회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 적재적소에 적합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는 것도 취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 사항으로는 입사 후에도 배치받은 본인 직무에 대한 충분한 output을 내면 다른 직무로 전환배치 등 도전적인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본인 꿈을 위한 길은 여러가지가 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조선소 한정 사항이 되겠지만 서류를 통과할 정도만 된다면, 어학능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요소들은 (특히 자격증) 매력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자격증의 경우 그 자격증은 글로벌한 업무영역을 다루는 조선소 현업 업무와 많이 동떨어져있고, 실무에서도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조선기술사나 국제자격증의 경우에는 조선소 업무에 매우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학부생 시절에 해당 자격증을 따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증보다는 학점관리와 어학능력, 특히 어학능력에 더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삼성그룹의 경우 토익,토픽등의 지필 시험 성적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Oral test 성적(Opic)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실제 영어 화자와 소통하며 업무를 해결할 수 있냐의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시험들 또한 시험전용의 연습으로 단기간에 어느정도 성적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취직 한정용이며 대부분의 발주처가 외국의 선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의, 이메일 작성이 영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업 적응에 영어 어학능력은 필수적이기에 실제 업무를 위한 formal한 영문 이메일 작성 및 free talking은 별도 공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업계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는 spec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부시절 학생회 활동(학생회장 등) 및 국내 대형 조선사가 후원하는 대회에서의 입상경력 등 조선업에 대한 열정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가 있어서 취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으로서의 대외활동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 그 자체를 보여줄 방법으로서의 대외활동의 방향을 선정해보면 좋겠습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1. 자기소개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은 본인이 실행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소개서의 소스가 됩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학점도 낮고, 별다른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일주여행 1년의 경험을 살려서 문제 해결대처 능력, 외국어 실제 구술할수 있는 능력들을 어필하였습니다. 세계일주여행과 같이 거창하지 않더라도 봉사활동 등 다른 대외 활동을 통해서 있었던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능력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루한 일대기 형식의 자소서는 지양하세요.

2. Gsat 합격

전 직장에 근무 중에 Gsat 응시를 한 것이라, 야근,회식 등 준비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약간 자포자기의 심정이었고, 에듀스 등 일반 출판물의 책을 보니 너무 어려웠고 이게 시간내에 다 풀수 있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튜브 봉봉TV 채널을 통해서 Gsat 문제 원리 해결 방법을 익히자, 매우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양치기 안하셔도 됩니다. 독취사에서 Gsat 어렵나요? 이런 후기 보실필요 없습니다. 이 시험은 정답이 정해져있는 보기형의 문제입니다.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걸러가면서 정답만 찾고 넘어가는 속도가 중요한 시험입니다. 유튜브 참고하셔서 원리파악 후에 실전 대비 2회 정도만 하고 가신다면 부산대 학우분들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 면접

자소서에 첫 장에는 학점이 나옵니다.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왜 공부를 안했냐는 질문에 유연하게 대처하였습니다. 학점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조선소는 협업이 중시되기에 대학 시절부터 협업 및 인적 네트워크를 쌓기위해 대외활동 및 학생회 활동에 몰두하다보니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돌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 **면접질문 내용은 취업전력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051-510-3709)**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여 매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화법을 통하여 면접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처음 취업성공우수사례 공모전을 봤을 때, 무슨 말을 써야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취업'성공'의 성공이란 단어를 깊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취업에 성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 일까요? 남들이 보기에 좋은 기업? 본인이 만족하는 기업? 월급을 많이 주는 기업? 등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취업에 성공을 했다는 것은 정녕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가, 본인의 꿈으로 가는 취업인가 이 대답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취업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취직을 하고 일년 반, 또 이직을 하고도 일년이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직장 생활이었지만 업무를 하다보니 초심을 잃고 타성에 젖어 업무를 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취업을 열렬히 원할때 얼마나 이 순간들을 갈망했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업에 와서도 일년이 되는 시점에서 해당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사회 각지에서 서로 도우면서 살수 있는 효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취준생과 이직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안전부(기계공학부)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4.0	영어점수	TOEIC 900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선배와 손잡기 멘토(2019년) 기업체 채용설명회(2017년) 공기업 NCS 직무적성검사(2017년) 현대(HMAT) 직무적성검사(2017년) 취업아카데미(2017년) 효원튜터링(2015년)		
자격증	일반기계기사 한국사(1급)		
봉사활동	삼성 드림클래스 멘토링(414시간)		

□ 합격수기

"E조 4번 지원자 들어오세요."

엇그제 대학교 기말고사를 치른 나인데, 어떻게 지금 면접장 앞에 서 있게 된 걸까?

생각해보면 군대 전역 후 쉴 틈 없이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새내기로 원 없이 20살의 청춘을 즐겼던 때와는 달리 전역 후에는 많은 걱정거리가 생겼다. 성인이 됐으니 생활비는 알아서 해결해야만 했던 상황부터 학점, 멀리는 취업까지 고민만 한가득이었다. 과외부터 시작해서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가며 생활비를 벌었고, 학과공부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바쁜 대학생활을 보내면서도 나의 미래, 목표, 방향성에 항상 고민했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목표나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방황하고 있던 내 생각을 확실히 잡아준 건 한 강의 때문이었다. 전공학점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나는 우연히 원자력 공학이라는 수업을 들었고,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알게 되었다.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적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것이 국민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공학도의 피가 끓었다. 전문적인 엔지니어로서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수원에 입사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 뒤로 나의 생활은 크게 바뀌었다. 수업을 듣고 시험만을 위해 공부하던 이전과는 달리 시간이 생길 때마다 한수원에 대해서 검색해보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 내가 입사하려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찾아보게 됐다. 당연히 NCS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것에 맞추어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고민했다. 여기서 NCS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준말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뜻한다. 허울뿐일 수 있는 '스펙'보다 실제 기업의 직무를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큰 기회가 됐던 제도이다.

대학교 4학년이 된 뒤로도 그 과정은 계속됐다. NCS를 토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기계기사 공부 등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NCS가 있음으로써 방향을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었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중 많은 도움이 됐던 건 취업전략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었다. 당시에는 생소할 수밖에 없었던 직무적성검사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업체 채용설명회를 들으면서 하나둘씩 준비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4학년 1학기에 한수원 채용공고를 보게 됐다. 대졸 수준 채용공고라 나 또한 지원할 수 있었고, 내 기준에 멋들어진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한수원 전형 특성상 서류 탈락은 없었기에 바로 NCS 평가를 치렀다. 필기전형은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와 직무수행 능력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직업기초 능력평가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수리능력, 직업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고, 직무수행 능력평가는 지원한 직군에 따라서 전공내용에 관련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당시엔 '아직 재학 중인 학생을 뽑아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 단번에 합격할 거란 생각이 없었기에 한번쯤 경험해보고 싶어 치르게 된 시험이었다. 운칠기삼이라고 하였던가? 내가 시험을 치른 그 해부터 유형이 변경되어 출제되었는데, 평소에 계속하여 연습해오던 자료해석 유형의 NCS 문제가 대거 나오고, 전공 또한 그 당시 일반기계 기사를 준비하던 중이라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필기전형을 통과하게 되었고, 면접을 준비하게 되었다.

큰 기대도 하지 않던 필기시험이 덜컥 합격해버리자, 조바심이 났다. 면접을 어떻게든 붙고 싶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 당시 나는 무척 바빠서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과외부터 멘토링, 기말고사, 졸업논문까지 도저히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 상황에서도 내가 제일 처음으로 찾은 건 NCS에 명시된 기계직군의 직무역량이었다. 면접 또한 이 내용을 토대로 준비하면 된다고 철저히 믿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수원 홈페이지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거렸다.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부터 비전, 핵심가치 등 내 경험과 부합되는 것을 맞춰나갔고, 자기소개서에 서술한 내용을 토대로 나를 표현할 말을 찾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면접장 앞까지 오게 되었고, 나는 떨면서 들어갔다. 면접관분들은 나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셨다. 왜 한수원에 지원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직무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많은 질문을 던지셨다. 또한 직무에 관련된 전공지식을 깊이 있게 물어보기도 하셨다. 이렇게 면접에서도 직무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중요시하는 NCS 기반 평가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NCS 직무소개서를 토대로 내가 준비했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을 면접관분들 앞에서 잘 풀어나가기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내가 준비해온 얘기를 해나갔다.

직무면접 외에도 한수원에는 추가적으로 2개의 토론면접과 영어면접이 있었다. 토론면접의 경우에는 직무주제 1개, 공통주제 1개로 토론하는 자세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는 것이었다. 영어면접은 간단한 의사소통능력을 보았는데, 가장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긴장했지만 토론면접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이해, 배려, 존중을 통해 긍정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가려 노력했다. 영어면접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질문과 대답이 오갔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다. 준비했던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해 많이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기로 하고 결과만 기다렸다. 최종적으로 나는 2017년 상반기 한국수력원자력에 합격할 수 있었다.

최종합격 후 5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쳐서 2017년 12월 31일자로 정규직원이 되었다. 어린 나이로 취직한 나는 열정과 의욕이 넘쳤다. 좋은 선배들과 마음 맞는 동료들과 같이 인턴 생활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한수원은 인턴기간에도 이론적인 내용부터 현장 OJT,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해주었고, 난 성공적인 인턴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적응 기간은 있었지만, 짧은 시간 이내로 나는 한 사람 몫을 하게되는 발전소 엔지니어로 발전할 수 있었다.

'스펙' 대신 '직무'로 평가하는 것은 이전보다 취업을 더 어렵게 보이게도 한다. 직무 경험이 없는 갓 졸업한 대학생은 어떻게 취직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4학년 1학기 재학 중 결국 최종합격증을 손에 쥐었고, 그 Key는 NCS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직무에 대한 역량을 Standard로 명시해준다는 것은 이러한 직무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 더불어 그러한 역량을 갖춘 '준비'가 된 사람을 채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NCS를 통해서 나에게 적합한 직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했고, 내가 원하는 기업으로 준비해나갔다. NCS는 나의 노력을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해줬고, 또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까지 제시해줬다. 나의 좌우명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방향을 찾고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로핵연료개발부(기계공학부)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9점대	영어점수	토익 895점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취업전략과 프로그램 1. (2018-2학기) 잡아라 취업 PNU 취업컨설팅 프로그램-3차 2. (2018-2학기) 여대생 취업역량개발프로그램-7차 3. (2018-2학기) 대학생 CAP+-5차 4. (2019-1학기) 잡아라 취업 PNU 취업컨설팅 프로그램-2차 5. (2019-1학기) 대기업 직무적성검사-8차 6. (2019-1학기) 자기소개서 프로그램-18차 7. (2019-여름계절) 대기업 취업특화 프로그램-2차 8. (2019-여름계절) 대기업 취업특화 프로그램-6차 9. (2019-여름계절) 대기업 취업특화 프로그램-7차 10. (2019-2학기) 기업체 채용설명회-6차 11. (2019-2학기) 기업체 채용설명회-8차 12. (2019-2학기) 면접역량강화 프로그램-2차 13. (2019-2학기) 면접역량강화 프로그램-8차 14. (2019-2학기) 대기업 직무적성검사-1회 15. (2019-2학기) 부산대학교 취/창업 한마당 박람회-1차 16. (2019-2학기) 공기업 NCS 직무적성검사-2회 ○기계공학부 프로그램 1. CK 심화학습형 인턴십 프로그램 2. KAERI시설을 이용한 원자력공학실습 교육 3. 한국수력원자력 견학 4.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견학 5. 방사선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 6. 명사초청특강-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 특강 및 취업설명회 7. 현대자동차 박람회 8. 원자력 특강(원자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		
동아리	축구동아리, 연학실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의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 이용 촉진에 기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연구로핵연료개발부는 상업용이 아닌 연구용 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를 연구하고 제조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기술 관리 담당으로서 주로 핵연료를 제조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불량 발생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거나 절차서 등 여러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저는 2학년 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다목적 소형원자로(SMART 원자로)를 통해 원자력에 처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에게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막연하게 가고 싶은 회사였습니다. 이후 원자력분야로의 취업에 대해 알아보며 원자력분야는 다양한 전

공의 전문가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부에서 전공선택과목으로 여러 원자력과목들을 수강하며 원자력전공 이수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계공학과 원자력공학의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와 직무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분야가 이전보다는 다소 침체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정부출연기관의 긴 정년기간, 수평적 조직문화 및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통해 현재 취업한 곳에 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제가 취업 준비를 위해 했던 활동으로는 크게 3가지(학부 연구생 활동, 원자력 관련 견학 및 교육 참여, 취업프로그램 참여)가 있습니다.

우선 2학년 때부터 저는 원자력 관련 실험실(원자력계통 및 시뮬레이션 연구실_정재준 교수님)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학부 연구생으로서 기계공학부에서의 심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응축 열전달 모델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원자력 뿐만 아니라 LG 전자, 현대자동차, 한화방산 등 열유체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학년 때는 다양한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특히 학과에서 제공하는 원자력 관련 견학 및 실습에 열심히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풀어 놓으며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4학년 때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위해 취업전략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였습니다. 채용설명회들에 참여하며 저에게 맞는 회사 및 직무를 선택하였으며 회사에 지원서를 넣을 때는 자기소개서 특강을 통해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배우고 첨삭지도를 통해 저의 자소서를 다듬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기업 및 공기업의 직무적성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g-sat, NCS 등을 준비하였고 면접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면접을 실시하며 저의 문제점을 미리 알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저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강점 및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약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업 준비 초기에 인적성에서 계속 떨어졌고 이후 취업전략과에서 제공하는 인적성 관련 프로그램 및 여러 인적성 스터디에 참여하며 문제풀이 방법을 익히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이후로는 면접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면접스터디를 진행하며 모의 면접을 실시함을 통해 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쳐나가며 실제 면접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우선 저는 학점을 잘 받기 위해 과목별로 전략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전공과목 중 이론 위주 과목이나 교양과목의 경우 시험 직전 ppt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내용을 최대한 모두 암기하

는 식으로 준비하였고 4대 역학 등 문제풀이 위주의 과목은 책에 있는 연습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과제 문제 및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사실 저는 벼락치기 공부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학점이 엄청 좋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공부 방법을 모방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점수의 경우 저는 여름방학 때 1달 동안 토익학원을 다니며 준비하였습니다. 독학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처럼 의지가 약하고 단기간에 점수를 취득하는 것이 목표라면 학원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대의 경우 입사 지원 시 기준 점수만 넘으면 어학점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토익점수를 높이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그 시간에 다른 경험이나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직무경험의 경우 의외로 저는 특별한 외부 활동보다는 학부 교육과정에서 수행했던 조별 과제나 프로젝트들이 면접 시 유용하게 활용되었기 때문에 평소 전공과목에서 수행한 조별 과제나 실습했던 내용에 대해 짧게나마 정리해두면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서류의 경우 요즘 취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만 골라서 지원하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원자력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전공과 관련되는 다양한 기업들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소서와 경우 취업전략과에서 꾸준히 자소서 특강 및 1:1 첨삭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체계적인 자소서 작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필기시험의 경우 저는 유튜브나 구글에서 해당 지원하는 기업의 기출문제를 확보하고 준비하는 식으로 준비하였으며 기출문제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너무 세세한 정보를 암기하기 보다는 4대 역학 위주로 대표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예제 수준의 문제를 원활하게 풀이하는 연습을 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대기업 인적성 및 NCS의 경우에는 4학년 때부터 스테디에 참여하며 문제풀이 요령을 익히고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면접의 경우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면접 기출문제를 구글 검색을 통해 찾고 키워드를 유튜브에 검색하여 면접 전문가들의 모범답안을 참고하여 저의 답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스테디는 시선처리, 말의 빠르기, 답변의 내용 길이 등 서로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취업 준비를 약 1년 동안 하면서 서류와 면접에서 수없이 떨어지며 자신감을 많이 잃었고 속상한 적도 많았기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종 합격이 발표되었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학우분들께서는 혹시 지원 과정에서 탈락하게 되더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뛰어나지 않은 평범한 저도 이렇게 취업을 했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준비하신다면 원하는 곳에 꼭 취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동력차량팀(기계공학부)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76	영어점수	TOEIC 940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선배와 손잡(Job)기 2018학년도, NCS 특강, 자기소개서 및 면접특강		
자격증	일반기계기사, 한국사능력검정 1급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한국철도공사는 대한민국의 철도 운송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KTX, ITX와 같은 고속철도를 포함하여 지선을 달리는 무궁화호, 화물을 실어 나르는 화차 등 레일 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사무영업, 운전, 차량, 전기, 시설, 건축의 모든 직렬이 고객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는 업무는 디젤 기관차의 유지보수 업무입니다. 디젤 기관차는 무궁화호를 이끄는 차량으로, 아직 전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곳곳을 누비며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을 만지면서 정비를 실시하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사무직과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느끼게 됩니다. 일이 고될 때도 있지만 정비규범대로 실시하면 대민업무로 받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피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사기업 보다는 공기업 위주로 취직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그 특성상 순환근무로 인해 오지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 그 중 부산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하였고, 지금 다니는 한국철도공사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을 목표기업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순환근무가 없고, 지금 근무하는 차량사업소는 당감동에 위치하여 지리적인 이점도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민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어 적성에도 맞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교내 프로그램 중 NCS 특강, 선배와 손잡기 프로그램과 자기소개서 및 면접특강에 참여했습니다. NCS 특강은 전문 강사님이 오셔서 문제 풀이를 쉽게 할 수 있는 팁 들을 알려주셔서, 필기시험에서 굉장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처럼 따로 인터넷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와 손잡기 프로그램은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교통공사 멘토님과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부생은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 방도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밥까지 사주면서 선배님들과 붙여주며 알려주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정말 좋았습니다. 활동하며 들은 내용들을 면접에서 잘 말하였고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및 면접특강에서는 NCS에 맞춰서 쓰는 자기소개서를 배웠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셔서 실제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면접은 활동할 때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실제 면접에서 면접 자세와 자신감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큰 시행착오는 없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기업을 정할 때 3가지를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근무지역입니다. 공기업은 도시근무도 있겠지만 발전소나 댐 등, 오지 근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 쪽으로 옮길 수 도 있으나 몇 년 정도 걸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근무환경입니다. 공기업의 사무업무는 민원처리가 많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직은 현장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부 때 열심히 설계과목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오퍼레이팅이나 유지보수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 할 기업의 정확한 근무 내용을 미리 알아야 후회 없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봉입니다. 오지근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고액 연봉이라면 참을 사람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사회생활은 드러나는 수치에 의해 평가받는 일이 많으므로 어쩌면 자의식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 3가지 항목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학점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원 시 학점을 기재하는 곳이 없을뿐더러 NCS에도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기술직은 전공시험을 함께 치르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어학능력도 TOEIC 정도만 준비하시고 고득점에 목숨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 가능한 최저 점수만 맞추시면 나머지 시간은 필기시험 준비에 쓰셨으면 합니다.

직무경험은 체험형 인턴 정도일 텐데 물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중학교 때는 문·이과를 경험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때는 시간표를 짜는 경험을 못했듯, 그 단계에서만 해볼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서류는 면접을 위한 발판입니다. 필기시험도 중요하지만 결국 합격의 당락은 면접에서 나뉩니다.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STAR 기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동기를 물어보는 항목에서 '어릴적부터~'와 같은

문장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Situation, Task, Action, Result로 구성되는 기법이며 항목마다 사례를 하나씩 포함시켜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자기서류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활동한 아르바이트 경력, 조별과제 목록, 졸업과제, 자격증 등등을 자기서류 한 장으로 문서화 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보면서 사례를 선택했습니다.

필기시험 준비는 길게 봐야 합니다. 저는 3학년 2학기 까지 조금 무리해서라도 졸업 이수에 필요한 과목들을 듣고, 4학년 때는 교양 위주로 적은 학점을 들으며 필기시험에 매진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저학년이시라면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대부분의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공을 좀 챙기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학 때 바짝 하셔서 토익과 한국사, 기사 등을 따시면 4학년 동안 필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책을 푸시면서 유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리와 문제해결 능력 부분은 유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푸는 방법을 체득 하셔서 시간 단축에 힘을 써야 합니다.

면접은 면접스터디를 구해서 활동하긴 했지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면 가서서 기본적인 태도 등을 배우고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최근 이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은 반드시 미리 조사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지원자 입장 보다는 회사의 입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면접도 하나의 문제이며 정답이 있습니다.

면접 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접질문 내용은 취업전력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051-510-3709)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이러니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첫 직장이 중요하지만 또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련의 것들이 자신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시간만 낭비하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직을 준비한다면 공부하는 시간을 방해할 수 있기에 좋지 않습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직장을 가볍게 생각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시대라서 자신과 맞지 않는 직장인데도 다닌다는 건 말리고 싶습니다. 다녀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준비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뛰어나고 남은 인생은 깁니다.

다만 직장의 유무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건 지양했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취업의 문을 쉽게 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서 으스스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조금 늦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장수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힘든 세상에 나는 운이 조금 좋았을 뿐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건 고기를 사주는 일입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및 기술보증(나노에너지공학과)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4.04	영어점수	토익 810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싱가포르 스타트업 탐방(2017), 기보 청년기술평가체험단(2018)		
자격증	기술신용평가사 2급		
동아리	학과홍보동아리, 부산대학교 홍보대사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미약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술기업이나 창업기업들에게 기술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저는 기보에서 현재 기술평가와 기술보증 업무를 담당하여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자마자 코로나19로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중소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저는 코로나와 맞서 싸우고 있는 최전방에 있으니 기보가 우리나라의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첫째, 저는 비록 공학을 전공했으나, 사회나 경제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며 보람을 느끼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갖고 싶었습니다.

둘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계발도 놓치지 싶었습니다. 따라서 워라밸이 좋은 직장을 다니며 퇴근 후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직장을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좋지만 "칼퇴"가 가능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더 취업하고 싶었습니다.

위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곳이 제가 다니는 기보라고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말 만족하면서 꿈꾸던 직장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가치관, 원하는 근무지역, 직장 내 분위기, 노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고싶은 직장을 고르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것도 입사공부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공공기관, 공기업들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취업전략과에서 주최했던 부산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전반적으로 부산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후엔 자신이 상담 받고

싶은 기업설명회 타임에 참여하여 질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들도 속 시원히 알 수 있었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계속 떨어진다고 목표를 낮추지 말자”

취업준비 과정은 얼마나 걸릴지 개인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한번에 붙을 수 있고 누구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취업하는데 나만 계속 제자리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목표를 확 낮추게 되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기업이 아닌 곳에 취업하여 다니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이직준비를 반복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필기를 탈락하고 조급한 마음에 아무 기업들에 지원하면서 방황했었는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제가 가고싶은 기업에 심기일전하여 도전해서 결국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비록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들보다 뒤쳐지는 것 같아도! 중요한건 결국 마지막에 자리 잡고 30년 넘게 다닐 직장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탈락한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잘 보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품은 그 1순위 기업에 반드시 도달하길 바랍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저는 다수의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순서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진로에 대한 꾸준한 고민보다 4학년이 되면 막연히 취업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남들이 많이 따는 한국사, 토익, 기사자격증 등을 목표 없이 무작정 공부하고 이후에 자기가 가진 스펙으로 직장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가고싶은 기업을 정하는 데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인 다음, 그 기업에 맞춰 관련 스펙을 쌓았습니다. 저는 그 흔한 기사자격증, 한국사, 컴활자격증도 없습니다. 무작정 남들 다 따는 자격증 보다 자기가 일하고 싶은 직무를 뒷받침하는 경험과 자격증만 갖춰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기보에 가기위해 기술신용평가사를 취득했고, 그 외에는 자격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기술보증기금 이공계 전형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

기보는 서류전형에서 자소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공계 전형이므로, 자신의 전공지식에 대한 어필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자소서 1번 문항에서 전공관련 자신의 큼직한 성과를 기입하거나 전공분야를 우리나라 산업과 연관지어서, 예를들면 ‘에너지를 공부했다’를 ‘신재생에너지 연구의 경험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풀면 좋습니다. 나머지 문항에서는 전공 관련 내용보다는, 동아리나 대외활동 등에서 겪은 팀활동 등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가면서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는 성격임을 어필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필기]

이공계 전형 필기는 논술입니다. 문제수는 10문제인데 문제 지문 자체도 길고 시간은 9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 매우!! 촉박합니다. 내용은 보통 경제나 사회 이슈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기보의 역할, 기보의 미래 방향 등을 물어봅니다. 따라서 올해 경제 신문기사, 경제연구보고서 다 읽어보시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글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길게쓰는 시험은 아니고 3-5줄 정도로 핵심만 쓰는 논술이니 형식에 너무 신경쓰지 마십시오.

[면접]

이공계 논술을 준비하다 보면 면접은 자연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1차 면접은 인성면접, PT, 토론 면접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됩니다. 인성면접은 자기소개 (30초, 60초 두가지 버전) 준비하시고, 자기가 낸 자소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가십시오. PT는 논술을 발표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 공부할 때 정리했던 것들 다시 정리하고 가십시오. 제가 맡았던 PT면접 주제는 기보가 '비대면 금융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시키고,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 PT면접에서 합·불이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많은 후배님들이 제가 다니는 기보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기간은 인생 전체에서 너무나도 작은 시간입니다. 늦어진다고 너무 조급해지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의 꿈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국립공원공단 레인저직(조경학과)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4.39	영어점수	-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수리온취업동아리(2017년) 취업아카데미(2018년) 등		
자격증	조경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수상경험	전국 텃밭 디자인 공모(부산광역시시장상) 제 2회 대학생 IP창업 챌린지 캠프 경진대회(한국발명진흥회 우수상) 2017 서울정원박람회 포미터 가든 공모(서울특별시시장상) 2017 부산관광공사 지도제작단(부산관광공사장상) 2018 청년정원서포터즈(산림청장상)		
해외경험	2015 겨울학기 단기파견(영국 센트럴랭커셔대학)		
봉사활동	제12기 동계방학 대학생 지식봉사캠프 등		
동아리	창작동아리(2016년) PNU학습동아리(2017년) 창업동아리 발굴육성(2017년) 독서소모임(2017년,2018년)		
인턴십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현장실습(1개월)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체험형인턴(5개월)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국립공원공단 소개 및 업무범위]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환경부장관이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 22개 국립공원(산악형 18개, 해상해안형 3개, 사적형 1개)이 지정되어 있으며, 한라산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여수·오동도지구를 제외한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립공원의 보전,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시설 설치·관리,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청소,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 자연공원 보전·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 등 국립공원공단법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배정 및 현재 담당하는 직무]

담당하는 직무는 크게 입사시 지원 직렬에 따라 행정, 자원조사, 레인저, 기술, 안전으로 구분되지만 발령받은 사무소의 사정 및 개인역량에 따라 분소나 대피소에서 현장업무를 1~2년간 파악한 후 담당업무를 배정받게 됩니다. 공단에서 지향하는 인재상은 종합적인 공원관리를 하는 전문가 양성이기 때문에 입사시 지원 직렬과 다른 업무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탐방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느낀 점 등]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근무환경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을 보전하는데 사명감을 가져야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준정부기관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근무지가 도심지와 멀고, 특별보호구역 조사의 경우 무인도나 산 정상에서 근무하고, 예상치 못한 야생동물과의 만남 등 위험한 상황도 많기 때문입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현장실습 및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체험형인턴 경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전시교육과 전시팀에서 현장실습을 하였습니다. 특히, 야외전시장 리모델링 계획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전시교육사업부 전시원관리실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전시원관리 및 전시관관리지원업무, 기념품사업TF팀 지원업무,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계획 지원업무 등이었습니다. 그동안 환경관련 전시,교육관련 현장체험과 인턴을 했던 경험이 국립공원공단 교육해설직 입사로 연결되었습니다.

[업무와 전공의 관련성]

공단의 업무가 복합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융복합적인 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공한 조경학 같은 경우는 공원계획 및 생태전반에 대하여 공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향후 채용 전망]

환경보전과 관련된 인식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인기 직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주도적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때 만큼의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게 제공되지는 않겠지만 정년퇴직에 따른 채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안전관리, 드론 등 새로운 공원관리 업무 수요에 따른 직종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취업동아리(생태관광)활동과 면접]

2017년에 생태관광을 주제로 취업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생태관광지를 다녀오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등을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녕 우포늪을 트레킹하고 우포늪 생태전시관 및 따오기 체험관을 방문한다거나, 무등산국립공원의 평촌마을을 방문하여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고 주민해설사의 해설을 듣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립공원공단 면접 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때 PT면접이 있었는데 '생태관광 평가 지표 및 방법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생태관광 동아리 활동을 토대로 생태관광의 평가 영역을 5가지로 나누고 세부지표를 각 3개씩 구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목표기업을 정하는 과정과 변화하는 직업관]

사실 취업준비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같은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일을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일(환경관련 전시와 교육)의 특성이 국가주도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이뤄지다보니 공공기관에서 현장실습과 인턴을 하고,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표기업을 선정하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목표직무를 설정해보면 어떨까요. 특히, 4차산업혁명(드론,AR 등)에 따른 새로운 직무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직업관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직종(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의 등장과 기존 직업의 사항화에 따른 직무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조경학은 조경설계나 조경수목 관리, 자연자원조사 등의 업무겠지만, 현대사회에서의 조경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환경교육, 지도제작 등 여러개의 분야가 섞이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하고싶은 직업을 찾는것보다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이공계계열은 학점관리와 자격증 준비 병행이 중요]

4학년 여름방학 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러갔습니다. 그런데 상담해주는 분들이 당황해하셨던 부분은 자격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공계계열의 경우 기사자격증이 서류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합격자 배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50배수의 경우 기사 1개로도 서류합격이 가능하지만, 10배수의 경우 기사 2개가 서류합격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사자격증은 4학년부터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학년 여름까지는 기사자격증 최종발표가 나기 전 상황에서 취업준비를 병행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 이공계열이라면 4학년 1학기, 2학기에는 기사 필기와 실기 시험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 맞물려있기 때문에 학점관리와 자격증 준비 병행이 중요합니다.

[체험형인턴을 하는 것이 좋은가]

체험형인턴은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인턴경험입니다. 대학생들은 사회의 첫 발돋움으로, 현장직무경험으로 부푼 꿈을 앎고 지원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체험형인턴은 계약직 업무로 판단하여, 향후 경력산정이나 경력산정에 따른 임금협상시 체험형인턴 경험은 일부만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공공기관 인턴쉽 가산점을 서류평가에서 반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경력산정은 입사확정 후 진행되는 절차로 경력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직무가 적성과 흥미에 맞는지 확신이 없거나, 해당 기관의 업무나 조직분위기가 궁금하다면 체험형인턴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겠으나, 하고 싶은 직무나 입사하고 싶은 곳이 명확하다면 체험형인턴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공기관은 한국사와 NCS를 준비해야한다고?]

공공기관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결과가 필수 혹은 가산점으로 반영되며, 시험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나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NCS라는 시험을 통해 필기시험을 치루게 되는데 이공계열의 경우 전공과목 시험이 추가됩니다. 같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지원 직무에 따라 전공시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예를 들어, 조경학을 전공한 학생이 국립공원공단 자원조사직(식물)에 지원하게 되면, 전공으로 식물학을 치게 되고, 레인저직(교육·해설)에 지원하게 되면 교육학을 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공과목은 문제집이 없는 경우가 많아 준비가 어려운데요. 기사시험이나 관계법령위주(설계의 경우 시방서도 자주 출제)로 출제가 되니 자격증 공부와 병행하여 준비하면 좋습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서류는 자격증 취득이 중요]

국립공원공단은 서류에서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한정적이고 글자 수가 적어 이공계의 경우에는 특히나 기사자격증, 정보화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이 중요합니다.

[면접은 PT면접과 NCS면접 2가지]

PT면접은 지문을 주고 30분동안 자기 생각을 정리한 후 3분동안 해당 질문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고, NCS면접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면접(지원계기, 역경과 극복사례 등)입니다. PT면접지문이 국립공원과 관련된 현안 위주로 출제되므로 관련 뉴스나 연구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취업이 안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지원하는 직무의 기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다만, 먼저 취업준비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내에 차선책들과 기준을 정립하여야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협력단(미생물학과)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2.9	영어점수	825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수리온취업동아리(2017), 공기업 NCS직무적성검사(2017 1차, 3차) 부산경제진흥원 공공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2017), 면접교육(2018), 잡아라 취업 PNU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2018)		
자격증	폐기물처리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 (소개) 국내 유일의 물관리 기업으로 수자원, 수도, 단지개발 세 분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대 강 등 수자원의 이용·개발을 위한 시설(댐, 보 등)의 건설·운영관리, 광역 상수도·공업용수도 시설의 건설·관리, 지방 상·하수도 수탁운영, 산업단지 및 스마트시티 개발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직무) 현재 경남지역협력단 수질검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먹는물의 미생물 검사 및 수질검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면서 느낀 점) 같은 회사라도 부서마다 분위기가 천차만별인데 제가 있는 부서 분위기는 매우 좋아 만족스럽게 근무중입니다. 정기적인 순환근무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 이외 부분에서는 회사 복지, 급여, 근무환경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을 목표로 정하고, 전공과 연관된 기업을 찾아보니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직이 알맞다고 판단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직후 직접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본부(현 경남지역협력단) 수질검사센터에 단기계약직 3개월 근무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본 결과 근무 환경이 좋고 회사의 수도관리 업무에 흥미를 느껴 최종적으로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2017년도 4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내 프로그램으로 NCS 모의고사, 취업특강, 모의면접, 취업컨설팅에 참여했고 모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도움이 되었던건 부산시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모집한 공공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공공칠빵)이 그것입니다. 2017년도에 교내 취업지원센터에서 부산경제진흥원의 공공칠빵 프로그램을 안내해줘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공기업 지원의 기초인 자소서 등 서류지원 특강부터 시작하여 주

기적인 NCS 모의고사와 문제풀이 특강, 면접특강, 스터디까지 취업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제공해줬습니다. NCS기초를 다지는 것부터 면접까지 전 단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필기준비가 덜됐다고 시험치는걸 포기하는 건 바보같은짓이라 생각합니다. 필기 경험도 많아질 수록 도움이 됩니다. 시험장이 멀지 않다면, 다음 공채때 를 대비해서 기출문제 습득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필기를 쳐보는것도 좋습니다.

제가 응시한 필기 기업은 코레일(2회), 한국수력원자력(2회),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3회), 한국수자원공사(5회)입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공기업은 자격증, 직무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야 다들 따는 기사, 컴활 등 자격증이 있고, 직무경험에서 남들과 차별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내주는 현장실습으로도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으므로 추천 드립니다. 졸업 이후에는 단기계약직, 인턴 등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기나 스펙 준비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무작정 직무경험을 하겠다고 계약직에 뛰어들거나 하진 마시고,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겠다 싶은 상태에서 직무경험도 쌓으시면 좋습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서류]

공기업의 경우 서류가 대부분 토익점수, 기사 자격증 등으로 적합 부적합을 따지는 적부판정이거나, 높은 배수로 서류를 거르므로 서류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별다른 스펙이 없는 관계로 서류 적부 판정만 하는 공기업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적부판정이라도 서류접수시 제출한 자기소개서가 면접때 면접관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신경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시엔 기업 분석 자료나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을 참고했고, 처음 자소서 작성시 학교 취업지원센터, 잡아라 PNU 취업 컨설팅, 부산경제진흥원 취업지원센터에서 첨삭을 받아서 자소서 작성 요령을 익혔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대부분 기업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으므로 몇 번 쓰다보면 데이터가 쌓여 이후에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자소서 TIP은 본인의 경험사항을 짚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정리한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이후 새로운 자소서 작성시 자소서 항목에 맞게 살만 붙여서 쓰면 금방 완성 가능합니다.

[필기-NCS]

NCS 기초는 기본서와 특강을 통해 다졌고, 실전연습은 학교나 시청에서 주최한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를 이용했습니다. NCS에 계산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산수, 수학 계산을 연습하기 위해서 비타민이라는 PSAT용 계산연습 자료를 매일 꾸준히 연습해서 연산속도와 정확성을 높

였습니다. 그리고 19단을 외우거나 신현(PSAT, NCS 강사) 계산 방식을 연습해서 연산 요령을 익혔습니다.

실전에서는 NCS 짧은 시간동안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포기하고 나머지 문제들을 다 맞추면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문제를 보자마자 판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봉투모의고사와 수많은 NCS문제집을 풀면서 익혔습니다. NCS 문제집에 쓴 금액만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필기-전공 환경공학,화학]

미생물 전공인 관계로 환경공학 기초는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를 준비하면서 들은 인강으로 익혔고, 졸업후 신동성 공무원 환경공학 개념 인강과 공무원 화학 문풀 강의로 익혔습니다. 화학 문풀 강의는 정말 강추합니다.

[면접]

면접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다수 경험했습니다.

면접은 전공이든 인성면접이든 스터디를 통해 연습했습니다. 기출 면접 질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인성질문의 경우 어느 기업이든 비슷한 질문이 빈출되므로 그런 질문들에 대한 표준 답변들을 작성해놓고,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100대1의 경쟁률이라도 될사람은 됩니다.

동아화학(주) PE기술팀(고분자공학과)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58/4.5	영어점수	TOEIC 770점 / TOEIC SPEAKING 130점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2018/1학기 기업체 채용설명회(18차수, 삼성디스플레이, 취업전략과, 2018.03.14) -자기소개서 프로그램(10차수, 2019.03.15) -자기소개서 기초반(1차수, 2019.06.24) -대기업 취업특화 프로그램(6차수, 2019.04.23) -면접 기초반(4,5차수, 2019.08.05-2019.08.06) -기업체 채용설명회(5,21차수, 2019.09.04/2019.09.18) -부산대학교 취·창업 한마당 박람회(2차수, 2019.09.04) -자기소개서 실전반(2,19차수, 2019.09.16, 2020.01.07)		
자격증	6시그마 프로젝트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운전면허 1종보통		
수상경험	롯데칠성음료 리그린 서포터즈 최우수팀(2019.07~2019.08)		
봉사활동	봉사 동아리(잔디, 2014.03~2014.09), 한국장학재단 다운화 멘토링(2018.04~2019.01), Hugtogether 멘토링(2019.06~2019.12)		
동아리	학과 화장품 동아리(미지, 2017.09~2018.08)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입사한 현직자: 동아화학(주)는 Polyester polyol, Polyurethane 합성 수지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Polyester polyol 기술팀에서 polyol과 PUE(Polyurethane elastomer)를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 후 양산 test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업무이기에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분석 장비를 실제로 다루고 있어 업무 흥미도가 높습니다. 또한, 팀장 및 팀원들이 업무와 회사 생활에 대해 조언을 종종 해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학과 특성상 학사로는 연구개발 직무가 가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연구개발 직무로 가고 싶어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던 찰나에 채용공고가 올라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업무이기에 끊임없이 경쟁사를 파악 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입사 후에도 업무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어 성장하는 거 같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이 가장 도움 되었습니다. 삼성 인사팀 출신 외부 강사분께 첨삭 및 기업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배워 자기소개서 쓸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저는 제 전공을 살리고 싶어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었으나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취업 준비라는 결정을 내리고 4학년 초부터 학교 프로그램과 졸업 후에 취업 알선 기업(한국품질재단 품질/생산관리 교육)에서 교육 받으며 차근차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아화학(주)에서 폴리에스테르 연구개발직 채용공고를 보았고, 학창 시절 배웠던 고분자 지식들을 복습하여 서류 및 면접에 임했던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은 거 같습니다.

시행착오라 하면 초반에 mindset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동기들에 비해 준비 시간이 짧아 조급해하여 서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서류 합격이 0% 였습니다.(4학년 2학기 기준) 그리하여 주변 선배나 취업한 친구들에게 조언을 얻었는데, 공통적으로 멀리보고 차근차근 준비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소개서부터 쓰는 법을 배운 결과 올해에 7개 기업 중 2군데 서류 및 면접까지 갔습니다.(한국제지는 최종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취업이 안된다고 너무 조급해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좋은 결실을 맺는 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체력을 길러 나중에 면접 2~3개씩 준비 하더라도 끔찍 없을 겁니다. 그리고 취업(또는 면접) 스터디에 참여하여 다른 취업준비생들에게 정보를 얻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스터디와 면접 스터디를 했었는데,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학점에 있어서는 사기업에 취업하려면 적어도 3.5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하가 되면 종종 면접시 지적을 받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격증은 저희 학과 경우에는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이 연구개발 직무에 있어선 중요하지 않기에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성적은 TOEIC은 700점 정도는 넘어야 되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시 다른 지원자가 TOEIC 500점 대 였는데 팀장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턴이나 현장실습 경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인턴이 금턴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턴을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학부 연구생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며 최대한 유사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한 결과 스펙이 일부분을 차지하지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틈틈이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 여름방학부터 영어성적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 후 4학년 겨울방학부터 인턴 또는 현장실습에 다녀옵니다. 4학년 학기가 시작되면 인적성 준비(Gsat로 인적성 준비하였습니다.)와 자기소개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류넣을 회사를 알아봅니다. 무엇이든지 몰아서 하지 말고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이력서 적을 때에는 직무에 알맞은 자격증을 기입하는게 좋습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면접에서 지적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적을 때에는 본인이 누구인지를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본인은 무엇을 했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조직입니다. 그렇기에 대학생활을 하며 조직생활에 대해 적으며 본인이 무얼 했는 지가 중요합니다. (면접시 단체 생활 경험에 대해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있으면 꼭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인턴도 요즘 기졸업자도 뽑아서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우선 팀장님께서 회사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직무 및 회사에 대해 궁금한거 있으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팀미팅 할때의 분위기 였습니다. (딱딱함과 편안함 사이였습니다.)

면접 질문 및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Q/A. 3분 자기소개 : 저는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여 그대로 했습니다.

Q/A.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 : 3학년 총대를 하면서 시험 날짜 정할 때 의견 조율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Q/A. 성격 장단점(솔직하게 말해주세요) :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으로 답변했습니다. 장점: 집요한 성격이다. 단점: 한 가지 업무 집중으로 인한 다른 일 소홀히 한다.

Q/A. 주량 : 저의 주량을 말했습니다.

Q/A. 열정적으로 했던 경험 : 롯데칠성음료 서포터즈 때, CSV 아이디어 도출 얘기를 했습니다.

Q/A. 자소서 엉망(육하원칙으로 쓰세요) : 제가 자기소개서 글자수를 줄인다고 실수를 한 부분이여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Q/A. 출퇴근 가능한지 : 집이 조금 멀지만 아버지 차로 출퇴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Q/A. 야근하게 되면 할 것인지 : 중요한 업무이면 당연히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Q/A. 입사 후 비전은 무엇인가 : 조직에 어우러져 팀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제품을 개발해 회사의 지속 성장에 이바지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Q/A.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발로 뛰는 신입사원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면접에서 말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 마주치면서 목소리 크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되도록 짧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면접관들이 지루해합니다.(실무진들은 업무가 많기에 바쁩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늘 그렇듯 조급해 하지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빛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에이프로젠 공정개발(생명과학과)

□ 프로필 요약

평균학점	3.9/4.5	영어점수	930점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2018 취업전략과의 자소서첨삭 및 진로상담 2019 제약 바이오 품질특화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참여		
자격증	워드2급		
인턴십	2020 함미약품 인턴십		

□ 입사(합격)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에이프로젠은 바이오시밀러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생명공학기업입니다.

최근 오송에 신공장을 지으면서 cGMP인증과 FDA승인을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합격한 공정개발 직무는 성남의 연구소에서 생산수율을 높힐 수 있는 공정 파라미터를 연구한 후 실제 바이오 공정에 기술 이전을 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 진로결정 과정

○ 위 기업(기관)을 선택한 계기?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

우선 한미약품에서 인턴생활을 하면서 얻은 인맥을 통해 회사의 유망함을 알게 되었고 전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라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사학위로 보통 QC/QA로 취업하는데 늦은 취업 준비로 인해 석사를 도전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저의 열망을 채워줄 수 있는 연구직 분야라서 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에도 더 발전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취업준비 과정

○ 취업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한 적 있는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제약 바이오 중소기업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메이저 제약회사로의 인턴십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다니면서 쌓은 직무 역량이 추후 자소서나 면접을 진행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만난 현직자들을 통해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고 상담하면서 업계 상황을 이해하기 쉬웠던 점 덕분에 가장 추천합니다.

○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긴 고시생활을 통해 늦어진 취업준비를 시작으로 스펙도 없고 나이만 먹은 상태라 취업의 시작이 가장 큰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하나 해나가다 보니 결국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절망하지말고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스펙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우선 학벌은 지거국이라는 측면에서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요소입니다. 간혹 제약분야는 업계 상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부산출신의 팀장님이 계신다면 부산대를 선호하는 팀이 간혹 있기는 했습니다. 스펙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실험실 경험이나 직무관련 경험이 없는 취준생을 기준으로 학점은 3.5이상, 그리고 3.8이상부터 메리트가 있는 학점이며 영어는 QC/QA분야 대부분 900이상이 많으므로 이를 완성하고 취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험실 경험이 많다면 충분히 학점이나 영어가 커버 가능합니다. 이외에 제가 시간을 돌려서 취준을 한다면 꼭 방학 기간을 이용해 인턴쉽 경험을 쌓았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굳이 GMP 온라인 교육 같은 것들을 듣지 말고 직무 관련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만 찾아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채용 프로세스

○ 나만의 취업전략 또는 실용적인 Tip

기본적으로 서류는 자소서보다는 스펙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학점 영어 직무관련 경험 이것으로 거의 서류컷 당하기 때문에 스펙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그 후에 자소서는 직무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무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뜬구름 잡는 자소서만 작성하게 되므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관련 카페를 이용해 현직자와 꼭 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 보세요.

그리고 원서를 넣기 전 잡플래닛 평점 확인은 필수입니다.

인적성은 보통 자교학생 기준으로 1~2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여러 팁이 있지만 그냥 많이 경험해보면서 본인이 느낌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본다고 무조건 붙지도 않고 못 본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 계속 기회를 잡으면서 면접 보러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 합격 소감 및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선 저는 3년을 휴학하고 고시공부에 실패한 후 늦은 나이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특성상 석사를 많이 진학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아무런 취업준비도 되어있지 않았고 학점이 조금 높은 편이라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학사로 취업할 수 있는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모른 채 취업전략과를 방문해서 QC/QA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취업준비는 졸업 후 1년 동안 하였습니다. 코로나도 터지고 제약분야가 많이 사정이 안 좋아져서 고스펙자들이 QC/QA로 문을 계속 두드리는 판국에 서류는 몇 백 개씩 떨어졌습니다. 면접도 1년간 10번 내외 간 것 같네요. 그래도 인턴을 병행하며 취업준비를 한 끝에 좋은 직무에 합격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고 몇 년간 또 저의 커리어를 위해서 끈임없이 노력해야합니다. 저처럼 늦게 취업준비를 해서 힘든 시간 보내는 분들이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